아웃도어 스타일 패션 / 캠핑 / 트래블 / 기어

www.gooutkorea.com

GO OUT KOREA

05 | **2023 MAY**
vol.125
10,000won

SPECIAL

2023 15th GO OUT CAMPING FESTIVAL

GO OUT CAMP

ITEM **ECHO FOR THE ECO**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

INDOOR TRAVELLER **PAS NORMAL STUDIOS SEOUL**

ACTIVITY **DUST AND CAMEL** 흙먼지 자욱했던 약속의 땅

05
9 772234 673008
ISSN 2234-6732
10,000won

united by summits
지금 우리의 정상은

TERREX

GO OUT CONTENTS

VOL. 125 / 2023 MAY

006 **COPYRIGHT**

008 **EDITOR'S NOTE**

009 **GO OUT CHOICE**
<고아웃> 에디터가 엄선한 이달의 아웃도어 아이템

022 **INDOOR TRAVELLER #1**
PAS NORMAL STUDIOS SEOUL

024 **INDOOR TRAVELLER #2**
PEAKERS SINCHON

026 **ADVERTORIAL**
MAXIM SUPREME GOLD
캠핑에서 즐기는 더 진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

028 **ITEM**
AGAINST THE WIND
20개 브랜드가 선보인 다양한 바람막이

038 **ITEM**
WATCH YOUR FEET
놓칠 수 없는 아이템, 2023년 봄 스니커즈

048 **PEOPLE & ITEM**
RIDE or E-BIKE
나의 취향은 e-Bike로! 어디든 가보자고

060 **ITEM**
백팩 vs 토트백
인도어 & 아웃도어, 어디서든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

070 **ITEM**
ECHO FOR THE ECO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

Fontana
폰타나
Extra Virgin
Olive Oil
Arbequina & Hojiblanca
이젠
싱글 오리진
폰타나 올리브유
단일품종으로 향까지 살리다
특별한 혜택!

GO OUT CONTENTS

VOL. 125 / 2023 MAY

080 SPECIAL

15th GO OUT CAMP in GUMI

제15회 고아웃 캠프 리뷰

082 GO OUT CAMP SNAP PART1

고아웃 캠프를 빛낸 캠퍼들의 매력적인 스타일링

090 GO OUT CAMP SITE PART2

DEDICATED TO GO OUT CAMPERS

098 GO OUT CAMP MOMENTS PART3

15th GO OUT CAMP DAY & NIGHT

112 GO OUT CAMP BRAND ZONE PART4

고아웃 캠프와 함께 한 브랜드존 리포트

138 ITEM

COME, GENTLE SPRING!

봄이 즐거운 이유

160 ACTIVITY

DUST and CAMEL

흙먼지 자욱했던 약속의 땅

166 BRAND PICK UP

PWA

172 GO OUT MOTORCYCLE CLUB

ROYAL ENFIELD HUNTER 350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공랭 단기통

174 **GO OUT FISHING**

후이나무 팀원과 바다 배스 지깅 대결하기

176 **LBOT**

PANASONIC BF-192, 헤드랜턴의 베스트셀러 모델

178 **GO OUT CULTURE**

<고아웃>에디터가 추천하는 이달의 음악과 책, 영화

181 OUTDOOR CALENDAR

<고아웃>이 엄선한 5월의 아웃도어 소식

182 **BRAND NEWS**

OUT OF OUTDOOR

아웃도어 안팎을 넘나드는 브랜드의 최신 소식

186 GO OUT SUBSCRIPTION

187 GO OUT SNS

188 BRAND INFO

SEAFOOD FROM NORWAY
노르웨이 연어는
언제나 옳다
캠핑에도 옳다
청정 노르웨이 자연에서 온 노르웨이 연어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Origin matters

GO OUT KOREA

www.gooutkorea.com

CEO & PUBLISHER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세훈** Lee Se Hoon — sehoon@mediabling.co.kr

EDITOR IN CHIEF
편집장 — **김환기** Kim Hwan Ki — evoke@gooutkorea.com

EDITORIAL DEPT.
Senior Editor — **김해길** Kim Hae Gil — sunroad@gooutkorea.com
Contributing Editor — **유성** Yoo Sung — atsgnuoymik@gmail.com
김영하 Kim Young Ha — younghakim@mediabling.co.kr

DESIGN DEPT.
디자이너 Designer — **차세진** Cha Se Jin
객원디자이너 Designer — **김정희** Kim Jung Hee

CREATIVE TEAM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 **이민형** Lee Min Hyung — alsgud@mediabling.co.kr

ADVERTISING DEPT.
본부장 Director — **조정훈** Cho Jung Hoon — goout1234@gmail.com

GO OUT STORE
Director — **김영호** Kim Young Ho — 05x05x05@gooutkorea.com
Assistant Manager — **박진환** Pack Jin Hwan — very_9oooood@gooutkorea.com
Sales Manager — **박예림** Park Ye Rim — yeal91@gooutkorea.com
Junior Staff — **정상협** Jung Sang Hyeop — hyhyuping@gooutkorea.com

DIGITAL CONTENT TEAM
Executive — **김영하** Kim Young Ha — younghakim@mediabling.co.kr

DISTRIBUTION
Director — **신종원** Shin Jong Won

ACCOUNTER
과장 Manager — **문미경** Moon Mi Kyung

아웃도어 스타일 <고아웃> 코리아 2023년 5월호 (제11권 제4호, 통권 125호, 매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용산 라 00205 | **등록일** 2011년 11월 8일 | **발행처** ㈜미디어 블링 | **인쇄** 신성토탈시스템(주)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53 3층 (우편번호 04351) | **전화번호** 02-794-4926~7 | **팩스** 02-794-4928 | **홈페이지** www.gooutkorea.com

<고아웃> 코리아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발행처(주식회사 미디어 블링)의 서면 동의 및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아웃 한국판은 일본 고아웃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발행됩니다.

<GO OUT> JAPAN © SAN-EI CORPOPATION, Tokyo, Japan
ADDRESS 160-8461 7F Shinjuku east side square 6-27-30 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TEL 03-6897-4622(Advertising), 03-6897-4645(Editing), 03-6897-4611(Sales) **HOMEPAGE** sun-a.com
OUTDOOR STYLE <GO OU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AN-EI CORPOPATION, Tokyo, Japan

동서식품
더 진하고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다
Maxim
슈프림골드
커피믹스
커피 11.85%
20
STICKS
중량 : 270 g (60 kcal/1개 13.5 g, 총 1,200 kcal/20개)
당신의 취향,
슈프림이 되다
Maxim
슈프림골드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집 구경은 겉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분명하게 안다. 교통도 봐야 하고, 위치와 규모도 살펴야 한다. 다른 집과 견줘도 본다.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싼 맛에 덜렁 살 수도 없다. 꼼꼼히 살펴 이거다 싶어야 사는 것이다. 책 읽기도 다를 게 없다. 이리저리 뜯어보고 하나하나 따져 보아, 책을 덮고 나서도 성성하고 생생해야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었다 할 수가 있다." 조선후기 『백수문집』을 저술한 유학자 백수 양응수의 『독서법』에서 삶에 대한 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많은 기우에도 특별한 시간과 추억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담담한 마음을 담아 안녕을 전합니다.

2023년 가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고아웃>하세요.

<고아웃> 코리아
편집장 김환기

GO OUT Choice

GOC01

Item

IISE SHADOWS CAMP SHIRT

EDITOR KIM HAE GIL

이세의 몽환적인 작품을 보는 듯한 아이템

기존 스트리트 무드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더한 스트리트 컨템포러리를 추구하는 브랜드 'IISE(이세)'가 매력적인 아이템을 출시했다. 하나의 미술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모델로 가벼운 무게의 폴리에스터로 독특한 텍스처가 인상적이다. 프린트한 사람의 그림자는 고도의 수공예 기법을 통해 마치 화선지에 유유히 퍼지는 먹물과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바로 이점이 '이세'가 추구하는 심미적인 디자인 철학과 '이세'다운 특별함이 아닐까. 22만원

(왼쪽) 이세의 군더더기 없는 로고 라벨 (가운데) 구김의 질감으로 인해 프린트 그러데이션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오른쪽) 프린트한 사람의 그림자가 인상적이다.

Item

OSTRYA TESSELLATE FLEECE SWEATER

EDITOR KIM HAE GIL

오스트리아 미드웨이트 플리스

어패럴과 장비류 등 마운티니어링 제품을 만드는 캐나다 몬트리올 베이스 브랜드 'OSTRYA(오스트리아)'에서 미드웨이트 격자무늬 플리스를 출시했다. 가슴 부분에 있는 3레이어 접착 포켓에는 휴대폰이나 열쇠 등 간편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다. 모크(Mock) 터틀넥 형태로 가벼운 재킷과 함께 입어도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아이템으로 속건성, 흡수성의 기능과 오스트리아의 재귀반사 로고가 인상적인 제품이다. 30만9000원

Item

ESPIONAGE NC BDU JACKET

EDITOR KIM HAE GIL

1980년대 US ARMY BDU 재해석한 에스피오나지 JACKET

클래식, 밀리터리, 아웃도어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의복을 베이스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단과 부자재, 기술, 핏 등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탐구하고 수집해 조합 및 재해석한 결과물을 만드는 브랜드 '에스피오나지(ESPIONAGE)'에서 1980년대 US Army BDU Jacket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나일론 & 코튼 혼방의 재킷을 출시했다. 기존 US Army BDU Jacket을 어레인지하여 앞부분의 포켓을 변형하였고, 통기성이 뛰어나 오랜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한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하단의 스트링을 조절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16만9000원

(왼쪽) 앞부분에 적용한 다섯 개의 프런트 플랩 포켓 (가운데) 벨크로로 가볍게 개폐를 할 수 있다. (오른쪽)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

GO OUT Choice

GOC04

Item

BACH DR.ROLL 40, 80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바하의 트롤리 타입 3WAY 캐리어

2020년 출시한 이후 'BACH(바하)'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된 닥터 더플백을 바퀴 달린 트롤리 타입으로 출시한다. 사용자를 배려한 '와이드 지퍼' 타입으로 개폐가 쉽고, 더플백, 백팩, 트롤리 등 3WAY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곳을 가든 이동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추천한다.

프레임 구조의 넓게 열리는 입구, 수납식 숄더 스트랩 등 더플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바퀴를 달아 트롤리 형태로 제작했다. 겉감에는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하고, 앞부분과 모든 방향에 핸들이 달려있어 어떤 방향에서도 당기거나 들어 올릴 수 있다. 국내 여행에 추천하는 40L 사이즈와,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장 시 사용할 수 있는 80L 사이즈 두 가지로 출시한다. 40L 4만8400엔, 80L 5만9400엔

(왼쪽) 앞면에 수납한 숄더 스트랩을 당기면 백팩처럼 등에 맬 수 있다. (왼쪽 가운데) 메인 포켓 안쪽에는 지퍼식으로 된 3개의 사이드포켓과 귀중품을 연결하는 키 클립이 달려있다. (오른쪽 가운데) 백을 열지 않고도 안쪽의 사이드포켓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퍼가 옆면에 달려있다. 이걸 활용하면 소품이나 가젯, 귀중품 등을 백 안에 넣고 꺼내기가 쉽다. (오른쪽) 이동 시에 부딪히거나 긁히기 쉬운 트롤리 모델이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코듀라 소재를 적용했다.

GO OUT Choice

GOC05

Item

MOIF ALL-TERRAIN PARKA

EDITOR KIM HAE GIL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위한 모이프 올터레인 파카

'정돈된 삶을 위한 기능적인 일상복'에 집중한 브랜드 '모이프(MOIF)'에서 도심과 아웃도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올터레인 파카를 출시했다. 내구성이 뛰어난 고밀도의 나일론 소재로 가벼운 물방울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및 발수 가공 처리를 하여 아웃도어 활동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루즈한 실루엣으로 하단의 스토퍼를 이용하여 바람을 막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가볍지만 충실한 기능을 갖춘 똑똑한 아이템이다. 36만7000원

네크라인과 후면 중앙에 스토퍼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플랩과 지퍼로 구성된 상단 포켓 및 하단 아웃포켓이 인상적이다.

GO OUT Choice

GOC06

Item

MEANSWHILE × THIS THING OF OURS SOLOTEX® WAFFLE S/S TEE & TEE EASY SHORTS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솔로텍스를 사용한 민즈와일과 디스 띵 오브 아워스의 협업 제품

“MEANSWHILE(민즈와일)”이 2022년 S/S에 출시한 솔로텍스 와플 소재 셋업을 “THIS THING OF OURS”가 의뢰하여 출시한 컬러 별주 모델. 흡수 속건성이 뛰어난 기능 소재 때문에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여유로운 실루엣이 특징으로 데일리 웨어로 추천한다. 그린 색상은 민즈와일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판매한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는 영국 런던의 “THIS THING OF OURS”가 별주했다. 민즈와일의 태그와 숍 오리지널 로고가 인상적이다.

겉감에는 기능 소재 '솔로텍스'를 사용한 변형 와플 패턴에, 옷단 부분만 폴리에스터 태프터 원단을 사용했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여름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왼쪽 위) 옷단에는 드로 코드가 달려있어서 실루엣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숏 슬리브 TEE 1만5400엔 (오른쪽 아래) 옷단에서 보이는 폴리에스터 태프터를 안감에 사용한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이지 쇼츠 2만2000엔

네이비 컬러는 플래그십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모델이다. 이 밖에도 오프블랙, 카키, 베이지 총 3가지로 출시한다.

(왼쪽) 쇼츠에는 포켓 이외에 삼각 고리가 양옆에 달려있다. (오른쪽) 솔로텍스의 와플 소재는 코일 모양이라 신축성과 흡수 속건성이 특징이다. 또한, 옷단 부분의 폴리에스터 태프터는 논라미네이트 가공처리로 투습 발수성이 뛰어나다.

Item

ODLO ZEROWEIGHT DUAL DRY WATERPROOF JACKET

EDITOR KIM HAE GIL

러닝을 쾌적하게, 오들로 제로웨이트 듀얼 드라이 워터프루프 재킷

스위스 애슬레저 브랜드 오들로에서 봄, 여름 러너를 위한 제로웨이트 듀얼 드라이 워터프루프 재킷을 출시했다. 2020년 ISPO 금상 수상에 빛나는 듀얼 드라이 패브릭 사용을 사용하여 통기성과 신축성이 뛰어나고, 수주 20,000mm 및 투과율 50,000g/m²/24h의 우수한 수분관리를 통해 운동선수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한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후드, 가슴 주머니 및 재귀반사의 기믹 등 러너를 위한 실용적인 기능을 더했다. 39만8000원

GO OUT Choice

GOC08

Item

ROVR ROLLER COOLER 45QT

EDITOR KIM HAE GIL

더 오래, 더 차갑게!
로버 롤러 캐리어형 하드쿨러 45QT

모든 지형에서 쉽게 견인할 수 있는 올인원 쿨러 '로버(ROVR)'의 롤러 캐리어형 하드쿨러 45QT를 소개한다. 로토 몰드 방식으로 만든 로버 쿨러의 고밀도 보디와 리드는 외부 충격과 낙하 충격에도 끄덕없을 만큼 견고하다. 또한 9인치 크기의 펑크방지 공기 주입 튜브 타이어를 사용하여 어느 지형이든 거침없이 이동할 수 있다. 5개의 알루미늄 스포크 휠은 부드러운 움직임과 큰 충격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구성이 뛰어난 로버 롤러 캐리어형 하드쿨러로 어떤 환경에서든 신선함을 경험해 보자. 42만9000원

(왼쪽) 쿨러 옆에 거치할 수 있는 홀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소품도 거치할 수 있다. (가운데) 안감이 부드러운 플리스 소재로 휴대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넣을 수 있다. (오른쪽) 클립온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로버의 사이드 테이블, 공간 활용에 탁월하다.

Item

SLOWER FOLDING CONTAINER BASK

EDITOR KIM HAE GIL

어디서든 편리하게, 언제든 쾌적하게

인도어에서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브랜드 '슬로워'에서 폴딩 박스를 출시했다.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딩 박스로, 조립한 상태와 폴딩한 상태에서 같은 사이즈의 박스를 쌓아 올릴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캠핑을 갈 때도, 집안의 잡동사니를 넣을 때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BLUE XL 5만9000원
W59 x H22 x D39
(단위cm)

BLUE L 2만5000원 W40 x H17 x D30 (단위cm)

BLUE S 1만5000원 W30 x H12 x D20 (단위cm)

같은 사이즈의 박스를 스태킹 할 수 있다.

GO OUT Choice

GOC10

Item

INEOS GRENADIER

EDITOR KIM HAE GIL

타협하지 않는 4X4,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2017년 자동차 애호가이자 모험가이기도 한 이네오스 그룹의 짐 래트클리프(Sir Jim Ratcliffe) 회장이 만든 자동차 그레나디어. 동급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 실용성을 갖춘 4X4 차량을 목표로 기능에 따른 형태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했다. 그레나디어의 중요한 특징은 엔지니어링 무결성과 견고함, 그리고 제작 품질이다. 그레나디어에 이상적인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라이드 & 핸들링 엔지니어가 그레나디어의 멀티 링크 서스펜션에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부여해 더욱 안락하고 세련된 승차감을 제공한다. 차체와 프레임 사이에 있는 8개의 섀시 마운트는 차체 진동을 줄이고 소음의 실내 유입을 막는다. 정통 오프로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그레나디어의 동급 최고의 성능을 경험해 보자. 판매 일정 및 가격 미정

그레나디어 기본 사양

BMW 3.0L 직렬 6기통 엔진	LED AUX 하이빔 라이트
수동 변속할 수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30/70 스플릿 리어 도어
상시 사륜구동	풀사이즈 스페어 휠
박스형 사다리꼴 프레임	전/후면 견인 고리
아연도금강판 차체	루프 레일 및 루프 프로텍션 스트립
카라로(Carraro) 전/후면 빔 액슬	레카로(Recaro) 시트
헤비 듀티 코일 서스펜션	센트럴 컨트롤 시스템
2단 트랜스퍼 케이스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
센터 디퍼렌셜 록	Toot 버튼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오프로드 및 웨이딩 모드
LED 헤드라이트	Pathfinder 오프로드 내비게이션

Item

FRESHSERVICE × 공조복®
AIR COOLING VEST FABRIC BY SOLOTEX®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프레시서비스의 에어 쿨링 베스트

트렌디한 실루엣과 데일리 웨어로 잘 알려진 브랜드 'FRESHSERVICE(프레시서비스)'에서 어패럴 컬렉션을 출시했다. '공조복®'과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심플한 디자인의 포켓을 활용하여 공조복®을 어반 무드의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다.

프레시서비스와 첫 협업을 시작으로 요즘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공조복®의 로고를 플래킷 안쪽에 달았다.

겉감에는 신축성이 우수한 프레시서비스의 별주 소재 솔로텍스 원단을 사용하여,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조복®의 스위치를 켜면 다운 베스트처럼 부풀어 오르고, 팬에서 옷 안으로 외부 공기를 주입하여 땀의 기화열로 몸을 식힘으로써 옷 안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가슴에 집 포켓이 2개, 양 사이드에 핸드 포켓이 달려있다. 5월 출시 예정. 3만5200엔

(왼쪽) 좌측의 플래킷 안쪽에는 배터리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을 배치하였고, 루프를 따라 코드를 통과하여 양쪽 각각의 팬으로 연결하였다. (가운데) 작고 가벼운 배터리는 버튼 하나의 간편 조작으로 팬의 풍력을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오른쪽) 군납 스펙의 로고 프린트가 프레시서비스의 특징적인 디자인이다.

GO OUT Choice

GOC12

Item

WACACO MINIPRESSO NS2

EDITOR KIM HAE GIL

초소형 휴대용 커피 머신, 와카코 미니프레소 NS2

‘카페뮤제오’는 커피박물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태리어로 ‘A moment with Coffee’를 지향하는 브랜드이다. 커피문화의 확산을 위해 걸어온 카페뮤제오에서 휴대용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인 ‘와카코 미니프레스 NS2’를 출시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경량, 초소형 휴대용 커피 머신으로 어디서든 간단히 펌핑만 해주면 네스프레소 캡슐커피를 즐길 수 있다. 캠핑, 트레킹, 하이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작은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와카코 미니프레소 NS2를 추천한다. 와카코 미니프레소 NS2 8만6000원, 전용 보호백 4만7000원

손쉽게 누르기만 하면 18bar의 강력한 추출 압력으로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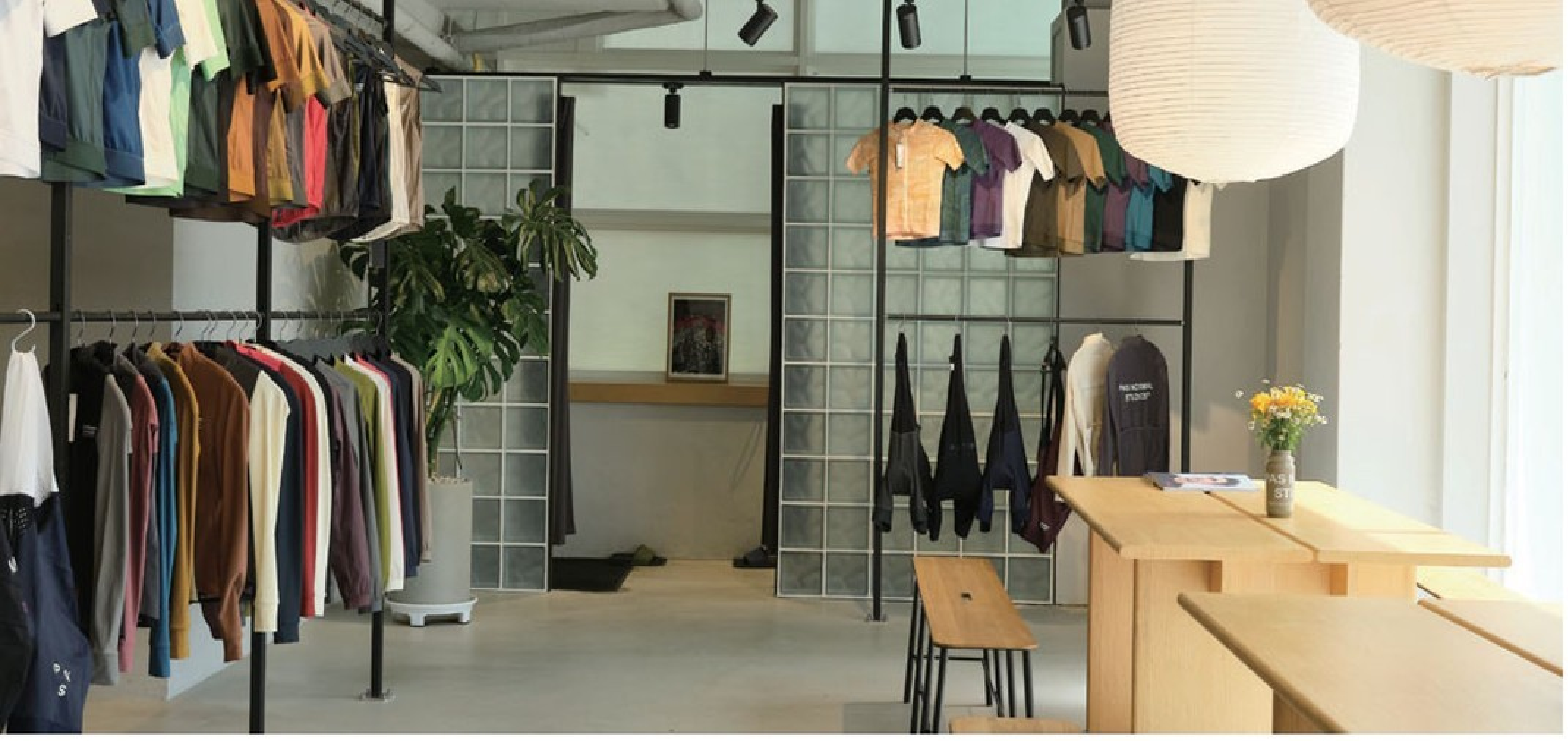
이동 시 전용 보호백에 담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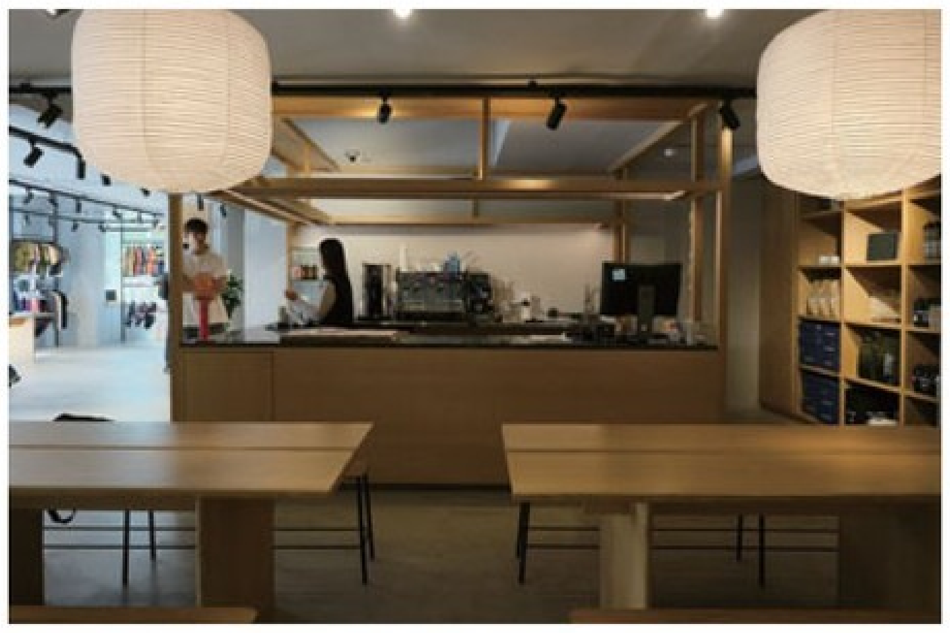
Brings the bass.
Reads the room.
Beosound A5
BANG & OLUFSEN
[뱅앤올룹슨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 02-518-138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5 태승빌딩 1층
[뱅앤올룹슨 신세계 강남점] / 02-592-1380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3층
[뱅앤올룹슨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 031-8072-1517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2층
[뱅앤올룹슨 현대 본점] / 02-595-138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65 현대백화점 본점 B1층
[뱅앤올룹슨 갤러리아 본점] / 02-545-138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 WEST 5층
[뱅앤올룹슨 갤러리아 광교점] / 031-5174-713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24 갤러리아광교 1층
[뱅앤올룹슨 현대 판교점] / 031-5170-13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2층
[뱅앤올룹슨 현대 무역점] / 02-566-13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7층
[뱅앤올룹슨 롯데 본점] / 02-318-138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본점 8층
[뱅앤올룹슨 신세계 센텀시티점] / 051-745-15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층
[뱅앤올룹슨 공식 온라인몰] : https://www.bang-olufsen.com
BANG & OLUFSEN
You won't just hear it.
You'll feel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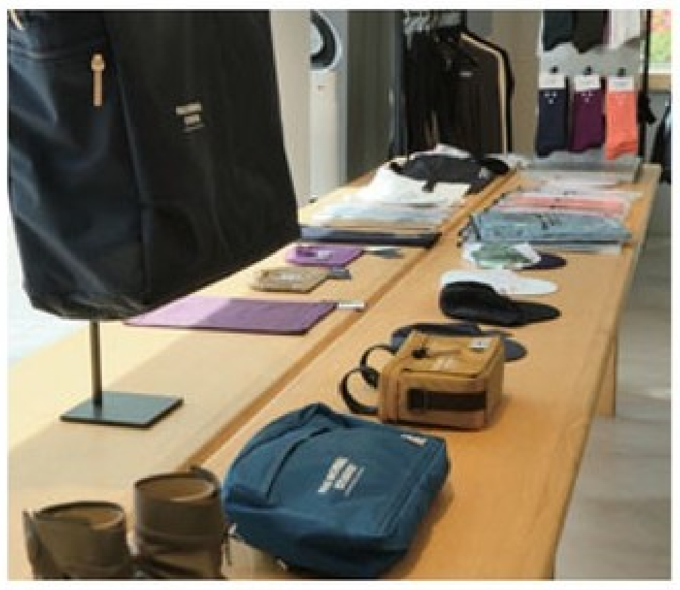
PAS NORMAL STUDIOS SEOUL

스칸디나비아의 자전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글로벌 사이클링의 흐름에 영감을 전달해온 브랜드 파스 노말 스튜디오(이하 파노말). 라이딩하기 좋은 4월의 어느 날, 채광으로 가득한 파노말 서울을 찾았다.

EDITOR KIM YOUNG HA **PHOTOGRAPHER** LEE MIN HYUNG







<파스 노말 스튜디오 서울> 내부 전경.

파스 노말 스튜디오 서울을 방문한 후 <고아웃>코리아는 파노말의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매니저 Jian Yap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공간 소개가 아닌 브랜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싣게 되었다.

ABOUT PAS NORMAL STUDIOS

파스 노말 스튜디오(Pas Normal Studios, 이하 파노말)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된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로 환상적인 미학과 결합된 혁신적인 디자인,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오리지널리티가 명확한 타 브랜드와의 협업과 새로운 방법의 소싱을 통해 현대의 사이클링을 다른 맥락에서 정의하는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파노말은 스칸디나비아에 기반을 두고 론칭한 브랜드지만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전개중이다.

KEY ITEM

파노말은 사이클링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최신 패션을 정의하는 패턴과 색상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특유의 디테일과 함께 대량생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완성시킨 지속가능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특히 전문 라이더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물과 방법으로 고급 어페럴을 생산하지만, 동시에 모든 스타일이 장기적인 사용과 내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제품 라인업은 메커니즘, 솔리튜드 에센셜이며 메커니즘과 솔리튜드는 모두 기장이 짧고 몸에 붙는 슬림핏이다. 그 외에 캡, 양말 등을 추가적으로 선뵈고 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끌어내어 강한 충성도를 누적시켰다. 파노말의 간결한 콘셉트로 구성된 어페럴 컬렉션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는 스트리트 패션과 사이클링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COLLABORATION ISSUES

파노말은 코펜하겐 베이스의 브랜드 우드우드(WOOD WOOD)의 파운더가 론칭하기 이전부터 자전거 외에 패션과 건축, 음악과 예술 등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특히 2023년 2월초, 살로몬의 XA-Alpine 라인, 포터와의 컬래버레이션, 피렐리(PIRELLI)의 피제로(P ZERO) 레이스 튜브리스 타이어 및 어페럴, 뮤젯 등 다양한 협업을 선보였다. 이러한 협업들은 각 브랜드 간의 시너지 상승은 물론, 다른 산업군의 소비자들에게 파노말의 오리지널리티를 알리는데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PAS NORMAL STUDIOS SEOUL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의 실내 디자인 콘셉트는 자전거 커뮤니티를 포용하며 가정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간을 통해 진보한 사이클링 의류를 제안하려는 브랜드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단지 쇼핑하는 장소적 의미를 넘어 사이클링 후 라이더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큰 화면으로 레이스 영상 등도 시청할 수 있는 곳이다. 매장과 카페 섹션의 모든 요소는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맞춤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공동 테이블과 카페 및 샵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더불어 조명 시스템은 XAL의 기술 조명과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 및 랜턴 제작의 재료를 사용해 구성된 무드의 조합이다.

PURPOSE OF THE BRAND

파노말은 현재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파노말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무리하게 전개하기보다는 사이클링 여행지와 브랜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도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 묻는다. '파노말이 진입하기에 알맞은 시장인가? 그리고 파노말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파스 노말 스튜디오 서울>

Open EVERYDAY 12:00PM-8:00PM

Address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71,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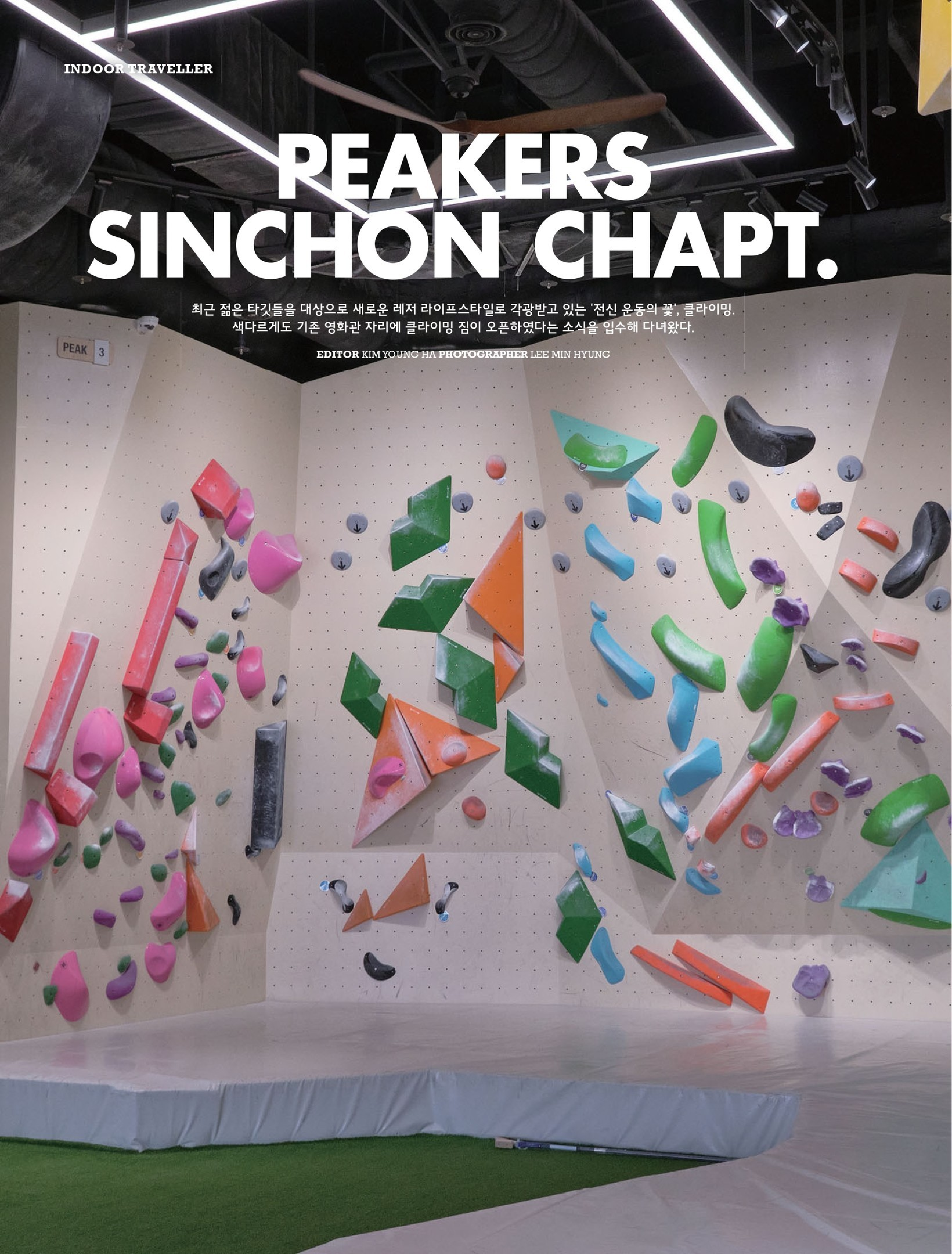
Phone 0507-1484-9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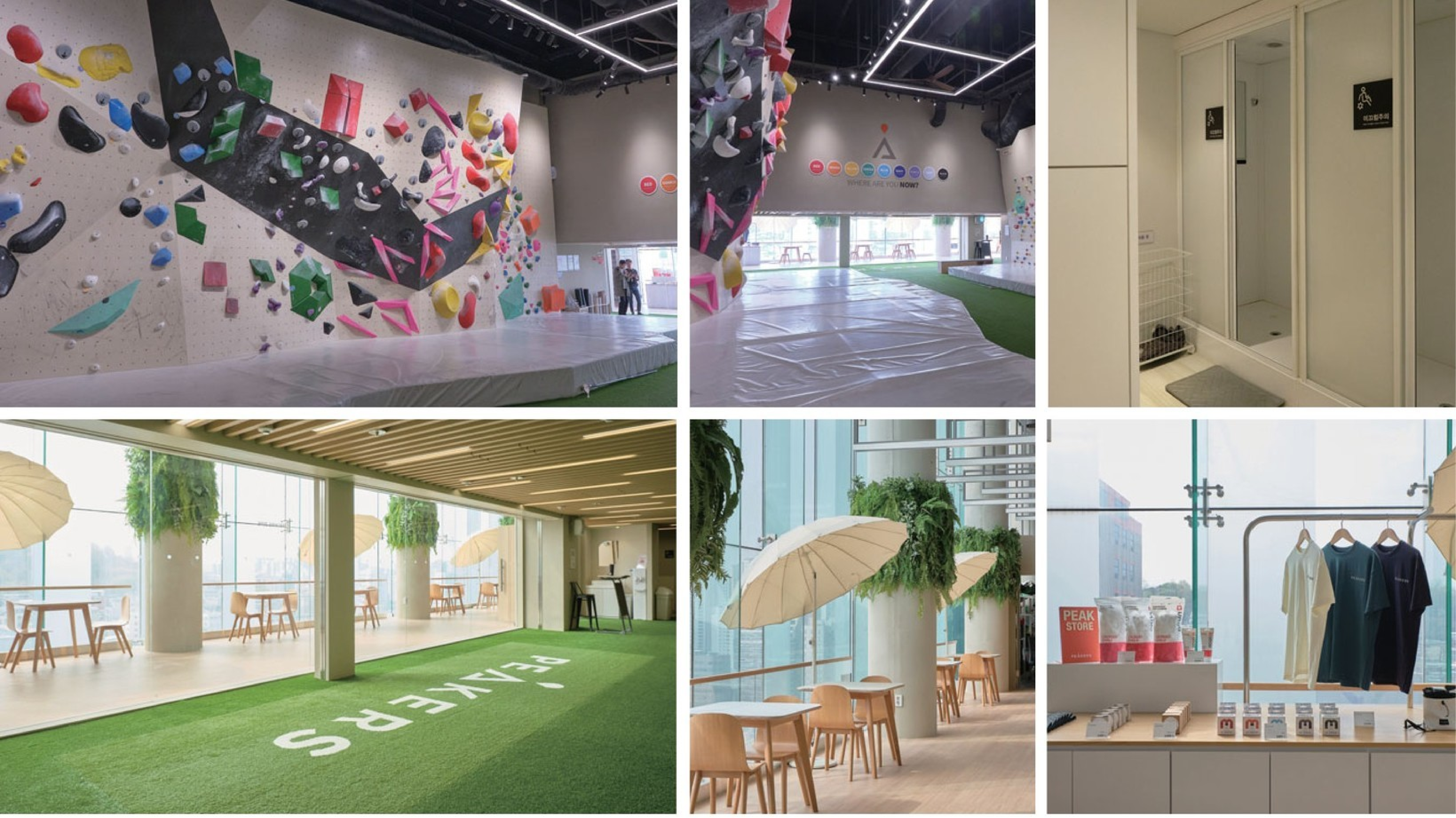
Instagram @pasnormalstudios

PEAKERS SINCHON CHAPT.

최근 젊은 타깃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레저 라이프스타일로 각광받고 있는 '전신 운동의 꽃', 클라이밍.
색다르게도 기존 영화관 자리에 클라이밍 짐이 오픈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해 다녀왔다.

EDITOR KIM YOUNG HA **PHOTOGRAPHER** LEE MIN HYUNG





<PEAKERS신촌> 내부 전경

'PEAKERS신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피커스(PEAKERS)는 CGV가 상영관 공간의 변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클라이밍 짐이다. 종로 CGV 피카디리 1958 상영관에 1호점이 문을 연 이래 CGV 구로에 2호점이 들어섰고, 젊음의 거리 신촌까지 진출했다. CGV신촌아트레온의 8, 9관을 리뉴얼해 선보인 신촌점은 기존 상영관의 강점인 높은 층고를 활용해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볼더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에 근접해 접근하기 편하고, 로비를 통창 인테리어로 설계해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 속에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방문 요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PEAKERS신촌의 각 공간을 소개한다면?

PEAKERS신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코스는 총 9개이며 레드, 오렌지, 옐로, 그린, 블루, 네이비, 퍼플, 그레이, 블랙 순으로 난이도가 나눠진다. 구역은 A존과 B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존의 경우 상행, 하행이 아닌 양옆으로 움직이며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강습벽이 함께 조성돼 있다. PEAKERS신촌은 4~5m 높이의 경기벽에서 안전로프 없이 오르는 볼더링 위주로 설계됐으며, 경기벽 아래에는 넓은 매트가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200명 이상이며, 클라이밍 공간 'PEAK 1,2,3'와 매점, 소모품 판매점 '피크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운동에 앞서 이용하는 스트레칭 공간과 별도로 구비된 매트, 스마트폰 충전 스팟 등도 갖추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인 발 샤워 부스, 락커룸, 샤워부스는 물론 체중계부터 헤어드라이어 등 운동 센터의 인프라를 기본 이상 마련하였다.

PEAKERS신촌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루종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1일 이용권'이 성인 기준 2만 원이며, 체험 강습을 포함한 '1일 체험권'은 3만 원이다. 1일 체험권 구매 방문객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본 이용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정기 회원권은 1개월 13만 원, 3개월 30만 원이며, 정기회원에 한해 7회 강습권도 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피커스 정기 회원권 고객은 기간 내 PEAKERS신촌과 함께 구로와 종로, 제휴된 클라이밍 암장인 '훅클라이밍' 왕십리점과 성수점도 이용할 수 있다.

클라이밍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클라이밍은 자연 암벽을 형상화한 홀드를 잡고 발을 디뎌 오르는 스포츠로 크게 리드와 스피드, 볼더링으로 나뉜다. 클라이밍을 '전신 운동'의 최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초 장비만 탑재한 채 발바닥으로 밟고 다리로 밀어주며 팔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어느 볼더를 거쳐서 가야 편하고 빠르게 오를 지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반복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체력이 붙으면 금새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안전하고 즐거운 클라이밍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전문 강사의 입문, 초보자용 눈높이 교육을 통해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면 다칠 일은 크게 없다. 물론 클라이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따라서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만큼 낙법을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 안전하게 볼더(Boulder)를 잡고 디디며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Climbing Down)'부터 매트 위로 낙하할 시 몸의 충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철저한 안전 교육과 제대로 수업을 익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클라이밍의 첫 관문에 들어설 수 있다. 또한, 무리해서 벽을 오르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PEAKERS신촌>

Open MON-FRI 10:00AM-11:00PM / SAT-SUN 10:00AM-8:00PM

Addres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9, 아트레온 11층

Phone 02-526-8989

Instagram @peakers_sinchon

18+

WHAT IS AVAXHOME?

AVAXHOME -

the biggest Internet portal, providing you various content: brand new books, trending movies, fresh magazines, hot games, recent software, latest music releases.

Unlimited satisfaction one low price
Cheap constant access to piping hot media
Protect your downloadings from Big brother
Safer, than torrent-trackers

18 years of seamless operation and our users' satisfaction

All languages
Brand new content
One site

AVXLIVE.ICU

AvaxHome - Your End Place

We have everything for all of your needs. Just open https://avxlive.icu

Maxim

나만의 취향, 캠핑과 함께 즐기는 맥심 슈프림골드 커피믹스

MAXIM SUPREME GOLD

캠핑에서 즐기는 더 진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

EDITOR KIM HAE GIL **COOPERATION** MAXIM

아웃도어의 계절, 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기다. 아름다운 봄꽃이 활짝 피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캠핑을 떠난다. 텐트를 치느라 분주한 시간도 잠시,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다.
드디어 완성!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여기에 더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 단 하나! 커피가 빠질 수 없다.
더 진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맥심 슈프림골드'와 함께 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분명 아는 맛인데, 새로운 맛! 마치 카페에서 먹는 라떼처럼 커피 맛이 진하고 크리미하다. 가장 아름다운 카페에서 즐기는 소중한 추억, 올봄, 커피 향 가득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갖자!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즐기는 캠핑은 언제나 설렌다. 잠시 얽매였던 삶에 소소한 탈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연을 벗 삼아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때론 혼자 일 땐, 커피 한잔과 함께 사색을 즐겨도 좋다. 커피의 깊은 풍미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행복한 경험이다.

HOW TO? 믹스 커피 제조 방법

ICE 커피 레시피

❶ 유리컵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❷ 별도의 컵에 맥심 슈프림골드 2봉을 넣고 뜨거운 물을 60~80ml 붓는다. ❸ 얼음을 담은 컵에 녹인 커피를 부어 맥심 슈프림골드의 진한 맛을 시원하게 즐긴다.

HOT 커피 레시피

❶ 컵에 슈프림골드 1봉을 넣고 뜨거운 물 80ml를 넣고 잘 섞는다.

AGAINST THE WIND

좋은 바람막이 하나면 열 재킷 부럽지 않다. 20개 브랜드가 선보인 다양한 바람막이를 소개한다.

EDITOR YOO SUNG

K2

ALP WINDBLOCK JACKET

초경량 원단을 사용한 바람막이 재킷. 경량 나일론 20 데니어 스판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우수한 스트레치 기능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나며, 방풍·발수 기능이 탁월하도록 설계됐다. 18만9000원

SALOMON

ESSENTIAL WP 2.5L JACKET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올라운드 워터프루프 재킷.
심플하지만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아웃도어 전문 제품으로 바람이나
소나기에도 끄떡없다. 경량 원단으로
제작되어 수납이 간편하다.
15만8000원

NEPA
RICO STRETCH WIND JACKET

경량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해 초여름부터 착용 가능한 방풍 재킷. 소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벨크로 디테일과 밑단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 기능이 적용되었다. 패커블이 가능한 제품이다. 19만9000원

BLACK YAK
M LOOP ALPHA JACKET

간절기에 입기 좋은 방풍 재킷. 얇은 기모 안감이 보온성을 더해 단벌 또는 레이어드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착용할 수 있다. 포켓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K-rPET' 친환경 원사로 항균 기능까지 더했다. 23만9000원

BLACK DIAMOND

ALPINE START HOODY

방풍, 발수 및 투습 성능이 뛰어난 쉘러 (Schoeller® stretch-softshell)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 클라이머가 착용시 극도로 가벼움을 느낄 수 있고 일상에서의 활용도도 좋은 초경량 소프트쉘 재킷이다. 29만9000원

MONT-BELL

JBWFSWJW021

무려 250g이라는 놀랍도록 가벼운 중량을 가진 재킷. 밑단과 소매 핏 조절이 가능하다. 70데니아와 스판라이크, 나일론을 균형감있게 합사해 제작하였다. 13만9000원

MILLET

G.P_S1 JACKET

메시 안감이 삽입되어 쾌적한 방풍 재킷. 메카니컬 스트레치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신축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움직임에도 높은 활동성을 보장한다. 간절기 아이템으로 적합한 제품. 23만9000원

ADIDAS TERREX

XPLORIC RAIN.RDY HIKING JKT

하이킹, 트레킹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위한 재킷. 다양한 포켓이 필수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게 하며 탁월한 방수 기능이 악천후 시 산뜻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100%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되었다. 37만9000원

ZEROGRAM

DETACHABLE WIND JACKET M

간절기용 재킷으로 아웃도어와 일상 모든 상황에서 착용하기 좋다. 브라이트 원사를 사용해 내추럴한 외관과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돋보인다. 소매 탈부착이 가능해 긴팔과 반팔 모든 연출이 용이한 재킷. 22만9000원

PATAGONIA
M'S STORM RACER JACKET

러닝용 제품 중 하나로 초경량 3레이어 방수 재킷이다. 후드는 한손으로 당겨 조절이 가능하고 혁신적인 더블 지퍼를 사용해 백팩 위에 입기 수월하게 디자인되었다. 재킷을 포켓에 넣어 패커블이 용이하다. 39만9000원

LULULEMON
PRECIPITATION JACKET

여유로운 클래식핏의 방풍, 방수 재킷.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돕는 립스톱 원단으로 제작되었다. 최적의 위치에 디자인된 벤틸레이션이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리플렉티브 디테일로 인해 야간 러닝도 수월하다. 20만원대

NEW BALANCE OUTDOOR
UNI HIKING LIGHTEST PATTERN SHELL JKT

여름 시즌 아웃도어와 일상 모두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재킷. 초경량 두께감으로 설계하였고 내구성이 탄탄하다. 방풍은 물론 뛰어난 발수기능 및 UV차단 기능을 탑재하였다. 턴오버 패커블 휴대가 가능하다. 15만9000원

FJÄLLRÄVEN
HIGH COAST WIND JKT

스너그핏(Snug-fit) 디자인의 조절식 후드가 내장된 가벼운 재킷. 재생 폴리아미드와 오가닉 코튼이 합쳐진 HC-Lite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하다. 안감은 메시 라이닝 처리가 되어 지퍼 개방시 통기성이 좋다. 29만9000원

WELTER EXPERIMENT
RHOMBUS PACKABLE HOOD JACKET

방풍 및 방수 효과를 높여주는 소재로 제작되어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제품. 소매패턴은 신체활동에 맞게 설계되어 편한 움직임을 돕고 보디에 덧댄 원단은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원한다. 21만8000원

KALEG
UNISEX METALIGHT WIND JACKET

워밍업과 리커버리 동안 사용자를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량 재킷. 축열 기능이 탑재되어 저온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보온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운동에 적합하고 일상룩 연출도 용이하다. 39만9000원

OPENING PROJECT
RIPSTOP HOODED JUMPER BLACK

과하지 않은 크롭 기장감의 후드 실루엣으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재킷. 무광 화섬직 원단에 소프트한 터치감이 느껴지는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었다. 25만8000원

K•WAY
NICOLA WINDBREAKER

초경량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가벼운 재킷. 까웨의 시그니처인 '바야데르(삼색)' 지퍼를 적용하였고 패커블 기능을 적용해 휴대하기에 용이하다. 간절기에 실용적인 제품. 총 7가지 컬러로 준비되었다. 13만9000원

ÉÉ
NYLON HOODED JACKET

100% 나일론 소재의 후드 재킷. 입체감있게 조절 가능한 후드와
함께 3-사이드 포켓이 멋스럽다. 사이즈는 S부터 L까지 구성되었다.
29만8000원

LORES
SPOILER JACKET - ECRU

탄탄한 텍스처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아웃도어 활동시
방풍 및 방수 기능을 경험하기에 좋은 재킷.
일상에서도 캐주얼 스타일링 연출을 하기에 용이하다.
리플렉티브 로고 디테일이 돋보인다. 20만9000원

RAINS
STORM BREAKER

어떤 룩에 매치해도 부담없이 입기 좋은 윈드브레이커.
특히 적당한 기장감과 스포티한 핏으로 남,녀 구분없이 착용하기 좋다.
투웨이 지퍼와 발광 디테일이 있어 자전거 라이딩에도 최적화된 제품.
17만8000원

WATCH YOUT FEET
2023 SPRING

놓칠 수 없는 아이템, 2023년 봄 스니커즈!

2023년 봄, 다양한 브랜드에서 디자인과 기능으로 무장한 스니커즈가 출시됐다.
브랜드별로 소재와 컬러 및 기믹까지 갖춰 일상부터 아웃도어까지,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제품들이 다양하다.
봄이 오면, 왠지 모르게 갖고 싶어지는 스니커즈! <고아웃>이 주목한 라인업을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EDIT** TAKATOSHI AKUTAGAWA(Thunderbird Design) **PHOTO** HIROYUKI YAMADA **STYLING** TAKAHIRO NAKAJIMA

TRANSPORT

TORRENT 3

SPEEDGOAT 5 GTX

TECTON X 2

CHALLENGER 7 GTX

HOKA

호카 오네오네에서 호카로

이번 시즌에도 매력적인 모델을 출시한 호카. (왼쪽 앞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카본 플레이트를 적용하고, 경량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신소재 매트릭 스와퍼를 사용하여 만든 트레일 러닝 모델 '메크톤 엑스 2'. 2만9700엔 통기성, 접지력 등 다양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여 기능성이 뛰어난 '토렌트 3'. 1만7600엔 서스티너블 소재를 사용하여 일상용으로 만든 모델 '트랜스포트'. 1만9800엔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한 '스피드 고트 5 GTX'. 2만900엔 기존 모델에서 완벽한 변화를 꾀한 고어텍스 버전 '챌린저 7 GTX' 2만3100엔

BROOKS
LEVITATE

유연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어퍼와 기존 모델 대비 10% 가벼워진 미드솔 DNA AMP v2를 사용하여 만든 러닝 모델. 페트병 7개 분량의 재생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1만9800엔

SALOMON
SENSE RIDE 5

밸런스가 우수한 미드솔과 적당한 착화감을 가진 메시 어퍼 등,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만능 트레일 러닝 모델. 1만8700엔

LA SPORTIVA
MUTANT

중장거리용 올 라운드 모델에서 접지력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출시했다. 어퍼에는 스포르티바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의 지아노 디 피엠메의 등고선이 그려져 있다. 2만4200엔

ON
CLOUDIVSTA WATERPROOF

쿠셔닝이 뛰어난 헬리온 슈퍼 폼팜을 적용했다. 가볍고 방수성이 우수한 트레일 러닝 모델의 시즈널 컬러 모델이다. 야간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리플렉터도 달려있다. 1만5180엔

SCOTT
SUPERTRAC AMPHIB

뛰어난 트랙션 성능을 가진 아웃솔에 더해, 우수한 배수 성능과 속건성 메시 어퍼를 갖추고 있어서, 젖고 험악한 필드에서도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하는 트레일 모델이다. 2만5300엔

ON
CLOUDSURFER

높은 쿠셔닝과 중심 이동을 중시하는 신기술 클라우드테크 헤이즈를 적용했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여 서스티너블을 고려한 온 로드 모델의 신제품. 1만8480엔

ALTRA
OLYMPUS 5

기존 모델의 쿠셔닝과 안정성, 접지력은 유지한 체 버전 5로 업그레이드했다. 힐을 중심으로 착화감을 향상해 하이커에게 인기인 트레일 러닝 모델이다. 2만3100엔

SALOMON
ULTRA GLIDE 2

독자적인 로커 모양과 6mm 드롭으로 중심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 러닝 모델. 쿠셔닝이 뛰어난 미드솔과 착용감이 탁월한 어퍼가 특징이다. 1만9800엔

PUMA
VOYAGE NITRO 2

다양한 발 모양에 최적화한 어퍼, 우수한 그립 성능을 발휘하는 아웃솔, 쿠셔닝이 뛰어난 질소 주입 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트레일 러닝 모델. 1만6500엔

COLUMBIA MONTRAIL
TRINITY FKT

독자적인 경질 EVA 소재와 초경량 미드솔, 그립력이 우수한 아웃솔 등을 갖춘 트레일 모델. 스피드를 갖춘 러너에게 추천. 1만5950엔

CLAE
BRADLEY

LA에서 2001년에 창업한 클레이. 스마트한 폼에 고품질 레더를 사용한 기존 모델의 새로운 컬러 모델. 쿠셔닝이 높은 재생 소재 인솔을 넣었다. 2만4200엔

TEVA
TERRA CANYON

환경을 고려한 코튼 x 헴프 혼방 캔버스를 어퍼에 사용하고 아웃솔을 그립성이 우수하고, 뒤꿈치를 구겨 신으면 샌들처럼 신을 수도 있는 2WAY 사양의 모델이다. 1만2100엔

VANS
FINN

가볍고 쿠셔닝이 뛰어난 '반스 라이트'에서 신작 모델을 출시한다. EVA 컵 인솔로 쾌적한 착용감을 실현했다. '오프 더 월'로고가 인상적이다. 8250엔

COLUMBIA
EASTSIDE TRAINER

폴리에스터 ×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여 거리에서 마주할 법한 디자인의 레트로 런 모델. 독자적인 발수 기능 소재인 옴니 쉴드를 적용하여 비가 오는 날에도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다. 1만450엔

DANNER
OCHOCO

방수 성능 대너 드라이를 갖춘 어퍼와 안정성과 쿠셔닝이 우수한 솔을 조합한 경량 하이킹 모델. 리플렉터 사양의 슈 레이스를 사용하여 야간의 시인성도 우수하다. 2만900엔

SUPERGA ARTIFACT
COLLERCT WORKWEAR

워크 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브로큰 트윌을 어퍼에 적용했다. 솔은 1970년대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어딘가 빈티지 무드가 연상되는 모델이다. 1만6500엔

LUNGE
DERBY WALK S

넓은 발에 맞춘 와이드 폼 워크 모델. 엘라스토머 첨가제로 특별 개량한 고품질 EVA 폼이 최고의 안정성과 반발성을 구현했다. 3만6300엔

REPRODUCTION OF FOUND
BRITISH MILITARY TRAINER BW UDO SOLE

기존의 브리티쉬 프레이너를 코듀라 나일론 어퍼와 경량성과 탄력성이 높은 PU 미드솔 및 내구성과 미끄럼방지 성능이 우수한 아웃솔을 적용한 모델. 3만3000엔

JACK WOLFSKIN
TERAQUEST TEXAPORE LOW

독자 투습 방수 원단인 텍사폴 에코스피어 프로를 사용한 트레킹 모델. 솔은 그립성이 뛰어난 비브람 에코스텝을 적용했다. 2만8600엔

ADIDAS ORIGINALS
SST SUPERMODIFIED

1990년대 말 출시한 제품을 복각한 스케이트보드 슈즈가 약 25년 만에 부활했다. 스웨이드와 캔버스 원단의 콤비 어퍼가 인상적이다. 1만6500엔

WHITE MOUNTAINEERING × VANS

CLASSIC SLIP-ON 98 DX, AUTHENTIC 44DX

자수로 WM 특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협업

WM과 반스가 오랜만에 협업으로 만났다. 반스 창업 때부터 사용한 모델명과 스타일 넘버를 사용하고,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오리지널리티와 발목의 엣지 부분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 자수를 넣어 WM의 특징이 인상적이다. 고급스러운 레더를 사용하여 무게감 있는 모델로 출시했다. 각 1만5400엔

AIRWALK CLASSICS × BILLY'S

DECKOUT SP

스케이트 슈즈와 드레스 슈즈의 조합. 에어워크의 애프터 스케이트 슈즈로 개발한 '덱아웃'에 비트(금속 장식)를 추가한 별주 모델.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는 등,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하여 밸런스 좋은 캐주얼 슈즈로 완성했다. 각 1만6500엔

LA SPORTIVA
JACKAL Ⅱ BOA

BOA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이스 중에도 빠르게 피팅을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일 러닝 모델.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 힘을 추진력으로 변환하는 인피니움 미드솔을 적용했다. 2만7500엔

ZAMBERIAN
RANDO GT

고강도 코듀라 나일론과 이탈리아 벨왕가 사의 양질의 스웨이드 어퍼에 그립력이 우수한 비브람 크루크 마운틴 솔을 조합한 트레킹 부츠. 4만9500엔

HI-TEX × FRESHSERVICE
EASTEND MID WP

하이텍의 인기 모델을 피그 스킨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거리의 외벽이나 노면을 연상하게 하는 콘크리트 컬러를 적용한 협업 모델. 1만9800엔

CARAVAN
C1_02S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뛰어난 그립력을 가진 트랙 솔을 사용한 캐러밴의 대표 모델. 이 어퍼는 이번 시즌의 새로운 컬러다. 2만900엔

TEVA
GEOTRECCA LOW 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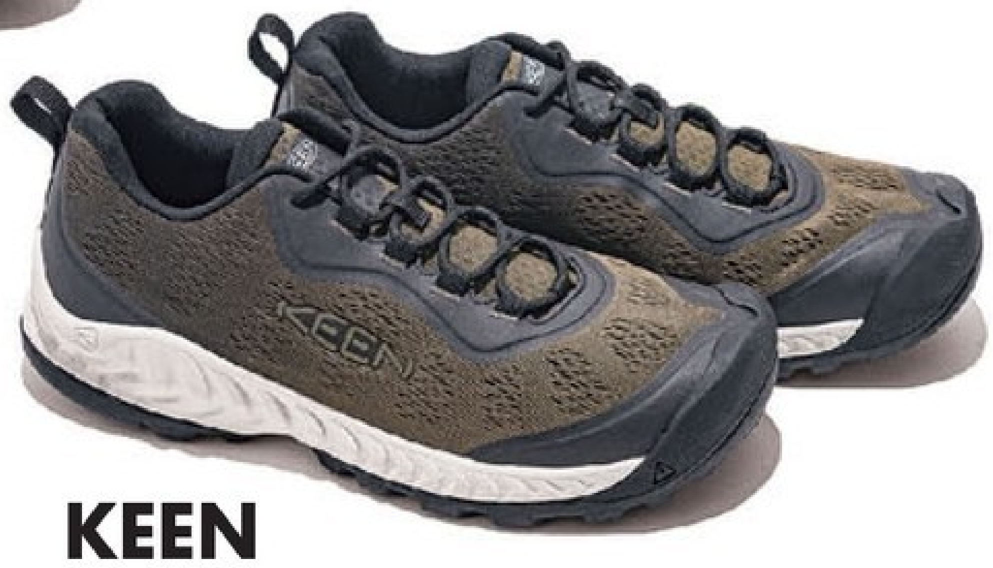
대부분 파츠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방수성, 내구성, 착화감이 우수한 전천후형 하이킹 슈즈. 페퍼민트를 사용하는 항균 기술로 신발 내부의 탈취 성능도 우수하다. 2만1450엔

DAIWA
FOGLER GORE-TEX HICUT

뛰어난 투습 및 방수성능 소재인 고어텍스를 사용했다. 신고 벗기 쾌적한 스피드 피팅 시스템과 비브람 사와 공동 개발한 오리지널 솔을 사용하는 등 고기능성 모델이다. 3만1240엔.

BONFIRE
RE.IGNITE SHOES

원터치 슈 레이스와 진흙의 오염을 막아주는 머드 가드,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 니트 어퍼 등 아웃도어에서 활용하기 좋은 모델이다. 1만3200엔



KEEN
NXIS SPEED

통기성이 우수한 메시 어퍼와 요소마다 TPU 보강처리하고 그립력이 높은 독자적인 아웃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하이 퍼포먼트 트레블 트레일 모델이다. 1만6500엔

SUPERGA
ALPINA RIPSTOP

립스톱 코튼 어퍼와 머드 가드 사양의 알피나 솔, 투박한 슈레이스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든 아웃도어 무드의 부츠. 1만7600엔

TIMBERLAND
GREENSTRIDE M6 WP MID HIKERS

재생할 수 있는 바이오 베이스 소재를 사용한 그린 스트아리드 솔의 방수 부츠. 물과 진흙, 모래 등의 침투를 방지하는 가젯 텅 사양이다. 2만4200엔

STARFIRESC J

QAK CP
GORE-TEX HI F/CE.

ALLSTAR®
NANAMICA GORE-TEX HI

CONVERSE

2023년 봄, 컨버스의 매력적인 모델

올스타뿐만이 아닌 이번 시즌의 컨버스는 인라인과 협업 모델 등 눈여겨볼 만한 모델을 출시한다. 위 : '스타 파이어 SC J'는 1977년 출시한 러닝 슈즈 '스타 파이어'를 모티브로 하여 털이 긴 스웨이드 및 내구성과 발수성이 우수한 코듀라 립 나일론을 사용한 어퍼. 그리고 비브람 솔과 오서라이트 인솔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각 2만2000엔. 오른쪽 아래 : 캠핑 서플라이 컬렉션에서 만든 F/CE의 투박한 밀리터리 감성을 더한 협업 모델 'QAK CP 고어텍스 하이 F/CE'. 2만4200엔. 왼쪽 아래 : 나나미카의 아이콘 컬러인 다크 네이비에 차분한 느낌을 더하는 그레이 솔 및 어퍼와 같은 색의 앵글 패치로 포인트를 준 '올스타 나나미카 고어텍스 하이'. 2만2000엔

TOPO ATHLETIC®
SPECTER

쿠셔닝과 반발력이 우수한 록커 모양의 솔을 사용하여, 우수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로드 러닝 모델. 메시 어퍼는 재생 소재를 사용하였다. 2만5300엔

HI-TEC
SLV SHADOW Ⅱ

1981년 출시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모델을 복각하여 업그레이드한 모델. 젖은 노면이나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발군의 그립력을 발휘하는 비브람 메가그립 아웃솔을 사용했다. 1만9800엔

UGG®
CA805 V2 REMIX

프리미엄 누벅 레더와 탈부착이 편리한 토글 레이스를 인기 모델 CA805에 더한 모델. 쿠셔닝과 안정성이 우수한 솔도 적용했다. 2만5300엔

ADIDAS
ULTRABOOST LIGHT

가볍고 반발력이 우수한 부스트 미드솔을 갖춘 모델. 악조건 속에서도 우수한 그립력을 발휘하는 콘티넨털 베타 러버 아웃솔을 사용했다. 2만5300엔

CHAMPION
OJA MUGUS

원톤의 그레이에 오렌지 컬러를 아웃솔에 사용한 모델. EVA 솔을 사용하여, 경량성과 쿠셔닝이 우수하다. 1만1550엔

LUNGE
CLASSIC RUN S

룬게 모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러닝 모델. 안쪽에서 경도의 교정 작용을 발휘하여 평발이나 다리가 다소 안쪽으로 휜 사람을 서포트해 주는 기능이 있다.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독일산. 3만6300엔

SOREL
KINETIC VREAKTHRU TECH LACE

시스루 립스톱 나일론과 TPU를 겹친 심리스 어퍼가 착용 시 발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서스티너블한 소재의 미드솔을 사용했다. 1만7600엔

ZDA
2803CPL

동유럽의 스포츠 선수가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슈즈 브랜드의 클라이밍 슈즈를 양질의 이탈리아산 스웨이드를 사용한 어퍼와 안정감이 우수한 모델. 3만3000엔

NEW BALANCE
FRESH FORM × FIERRO V7 GTX

쿠셔닝이 뛰어난 프레시 폼×미드솔과 그립력이 우수한 비브람 아웃솔을 사용한 트레일 러닝 모델. 1만9250엔

MERRELL
NOVA 3 TACTICAL

내마모성이 우수한 발리스틱 메시 어퍼와 탄성이 뛰어난 슈퍼 리바운드 컴파운드 미드솔을 사용한 트레일 러닝 모델. 미드컷도 출시하였다. 1만6500엔

WAVE RIDER β BEAMS SP

WAVE MUJIN TL
MID GTX nonnative

MIZUNO × NONNATIVE MIZUNO × BEAMS

미즈노의 기능성에 감각을 더한 협업

도메스틱 브랜드와 셀렉트숍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와 만난다면
왼쪽 : 미즈노의 트레일 러닝 모델을, 방수성이 높으면서도 신축성이 우수한 니트 어퍼와 미슐랭 아웃솔 등 논네이티브의 기능미를 추구한 모델. 2만9700엔. 오른쪽 : 미즈노와 빔즈의 모델은 염색 전의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여 서스티너블을 의도했고, 미즈노의 신모델을 모던하게 디자인한 모델. 2만3100엔

TERREX FREE HIKER 2 AND WNDR

JUNGLE ULTRA LOW

SALOMON × AND WANDER ADIDAS TERREX × AND WANDER

앤드 원더의 뛰어난 감도와 기능을 갖춘 모델

협업의 다채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앤드원더.
왼쪽 : 군용 정글 부츠를 살로몬의 정글 울트라 부츠를 로우컷으로 제작한 '정글 울트라 로우'. 그레이 톤 일부에 리플렉터를 사용하여, 그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콘타 그립 솔을 사용했다. 3만3000엔. 오른쪽 :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회수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파레이 오션 플라스틱을 일부 사용하여 만든 하이킹 모델 '테렉스 프리 하이커 2 앤드원더'. 니트 어퍼로 착용감이 편하게, 힐에 새긴 메시지가 앤드 원더의 위트를 느낄 수 있다. 3만3000엔

OAO
WYND

신축성이 우수한 네오프렌 소재와 두께 5.8cm의 비브람 솔, NASA가 개발한 저반발성 쿠션 등 고기능을 갖춘 슬립온 모델. 3만4870엔

ADIDAS ORIGINALS
HYPERTURF

투박하고 터프한 아웃도어 슈즈에서 영감을 받은 일상용 모델. 앞부분에 고반발성 소재 아디프린 플러스를 사용했다. 1만7600엔

THE NORTH FACE
BASE CAMP MULE

재생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높은 폴리에스터 메시를 사용하였고, 힐을 꺾어서 2WAY 사양으로 신을 수도 있는 뮬. 탈부착 할 수 있는 EVA 풋베드를 넣었다. 1만4960엔

SHAKA
OTTER TRAIL AT

샌들의 경쾌함과 스니커즈의 착용감을 두루 겸비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뉴 컬러 버전. 항균 탈취성, 통기성, 쿠셔닝을 갖췄다. 1만6500엔

TELIC
SOFT-VEL

독자적인 리커버리 기능과 휴일과 업무용 등 일상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인 벨크로 모델. 로커 모양의 아웃솔이 쾌적한 보행을 도와준다. 1만5180엔

PG
OLVER

1990년대에 인기였던 프랑스의 등산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일상용 모델. 프리록 시스템과 네오프렌 소재로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2만4200엔

PG
GARDEN MOC

금속구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슬립온 타입의 모크 슈즈. 아웃도어 스타일이지만 적절한 어반 컬러를 사용하였고, 착화감이 뛰어난 모델. 1만5400엔

FLOWER MOUNTAIN
CAMP

모크 슈즈를 그래픽 디자이너인 타니구치 코우키가 만든 가공의 등고선 지형을 넣은 모델. 브랜드 로고를 지도에 넣은 위트가 눈길을 끈다. 1만7600엔

ORPHIC
LANDAFF

로퍼의 실루엣에 덱 슈즈의 디테일을 더한 어퍼와 쾌적한 저반발 스니커즈 솔을 조합한 모델. 리플렉터 기능을 갖춘 슈 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3만7400엔

CMF OUTDOOR GARMENT
APPROACH 02

독자적인 투습방수 원단 코이그지스트를 사용하고, 그립력이 뛰어난 솔을 갖춘 어프로치 모델. 물림쇠는 밀리터리 업계에서도 인기인 ITW 넥서스 사의 제품을 사용했다. 2만2000엔

NIKE

압도적인 라인업의 나이키

매 시즌 다양한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스니커즈 최강 브랜드, 나이키의 신제품. (앞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와 리액트 폼을 사용한 ACG 모델 'ACG 마운틴 플라이 2 로우'. 1만7600엔 플라이 니트 어퍼에 미드솔을 조합한 레이싱 모델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3 플라이니트'. 2만9700엔 영국 뉴올리언스의 사육제 마르디 그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컬러를 서스티너블 소재 등으로 표현한 나이키 스포츠웨어 모델 '나이키 에어맥스 테라스케이프 90'. 1만7600엔 과거의 모델에 리액트 폼 미드솔 등을 더해, 트레일 모델로 업데이트한 '나이키 페가수스 트레일 3'. 1만5400엔

NIKE AIR MAX TERRASCAPE 90

NIKE VAPORFLY NEXT% 3 FK

NIKE PEGASUS TRAIL 3

NIKE ACG MOUNTAIN FLY 2 LOW

RIDE OR E-BIKE

나의 취향은 e-Bike로! 어디든 가보자고!

오프로드에 잘 어울리는 팻 타이어, 접이식 미니벨로, 스포티한 로드 타입의 크로스 바이크 등 다양한 환경과 필드에서 'e-Bike' 유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웃도어의 계절 봄을 맞아 다양한 취향을 가진 e-Bike 마니아를 만났다.

나만의 e-Bike 라이프

나만의 취향이 담긴 e-Bike를 타는 유저들, 어디서든 개성을 나타내는 매력적인 e-Bike를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 TAIZO SHUKURI, FUMIHIKO IKEMOTO
REPORT & TEXT MASATSUGU KUWABARA

WO BIKES M2X-2

4인치 팻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갖춘 스트리트 바이크의 대용량 배터리 사양.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100km이다. 방향지시등과 경적 기능도 있다.

(왼쪽) 에프씨이의 올메틱스 텍트라우저는 자전거를 타도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스마트폰용 포켓이 달려있다. (오른쪽) 에프씨이의 벤틸레이션 테크셔츠는 요크 플랩의 안쪽이 메시로 되어있어서 통기성이 뛰어나다.

OWNER
야마네 토시후미 / F/CE.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ORDISK CAMP SUPPLY STORE 오너

일상부터 캠핑용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이크

에프씨이의 야마네가 타는 바이크는 트레일 바이크를 연상하게 하는 더블오의 최신 모델. "캠핑장에서 탈 수 있는 e-Bike를 가지고 싶어서 구입했다. 이 팻 타이어 모델은 숲길과 오토 캠핑장 안에서도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 자택과 사무소 주변에 언덕이 많아서, 평소에도 탈 기회가 많다. 오렌지 컬러의 프레임은 거리에서도 눈에 띄고, 스트리트 무드도 잘 어울린다."

재킷 3만19000엔, 팬츠 3만9600엔, 캡 9900엔 모두 **에프씨이**, 파카 **빈티지**, 슈즈 **클락스**

OWNER
사노 켄타 / BERUF BAGGAGE 대표 겸 디자이너

스포티한 밴 무프는 편도 15km 출근 거리의 든든한 파트너

베루프 배기지의 사노가 편도 15km 출근용으로 구매한 것이 밴 무프의 S3이다. "장거리를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기동력도 좋고, 무엇보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배터리와 라이트가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어서 통근용 자전거보다 심플하다. 일상복은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입을 때가 많은데, 그건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 모델이다."

백팩 3만5200엔 **베루프 배기지**, 캡 8800엔 **할로코모디티×베루프 배기지**, 재킷 **골드윈**, 팬츠 **더 노스페이스 퍼플 레이블**, 슈즈 **뉴발란스**

VANMOOF S3

밴무프 S3는 클래식한 스트레이트 프레임과 매트한 컬러링이 매력적이다. "7년 전 협업한 이후로, 계속 타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던 중, 2022년에 겨우 구했다."

(왼쪽) 전용 앱과 연동하면, 앱 경유로 언록을 할 수 있고, 자전거의 각종 설정도 가능하다.
(오른쪽) 토트와 데이팩의 2WAY 사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짓 20+. "롤톱으로 내수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 추천하는 모델이다."

OWNER
오자와 히로유키 / NNBF 대표

투박한 디자인의 메이트 X로 일상의 거리 주행도 액티비티하게

NNBF를 런칭한 오자와. 미팅이 많은 이동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크 '메이트 X'다. "좀 더 라이트한 메이트 시티가 시내용으로 적합할 수 있지만, 내 취향은 이 모델이다. 팻 타이어도 시내를 달리면 숲에 온 듯 느껴질 때도 있고, 가벼운 아웃도어를 즐긴다는 기분을 갖는다. 이 바이크를 타면서부터 외출할 기회가 많아졌다. 굳이 일부러 더 먼 목욕탕까지 다닌다."

나일론 재킷 2만8600엔, 나일론 팬츠 2만5300엔, L/S 포터 티셔츠 1만6500엔 모두 **NNBF**, 캡 **탑건(빈티지)**, 슈즈 **아디다스**, 백팩 **브리핑**

MATE.BIKE MATE X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에서 런칭한 메이트 바이크의 모델, 메이트 X. "밀리터리와 워크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컬러링이 마음에 들었다."

(왼쪽) 스마트폰 홀더와 사이클 메타와 같이 에어 태그도 장착하고 있다. (오른쪽) 브리핑의 백팩과 NNBF 세트가 메이트를 탈 때 자주 애용하고 있다. "이 세트는 안감에 쿨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봄까지도 쾌적하게 탈 수 있다."

PANASONIC EZ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에 주력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BMX 스타일형 모델. 20형 알루미늄 프레임과 대형 블록 타이어로 출시한 이후,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한다.

(왼쪽) OGK의 컨테이너 바스켓을 장착했다. "전용 아이템은 아니지만 사이즈도 적당하고, 튼튼하고 가벼워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 (오른쪽) 요세미티 스트랩은 스마트폰과 함께 유코의 LED 라이트가 달려있다. "밤에 탈 때는 이 라이트를 핸들에 장착한다."

OWNER
미우라 슈란 / GMT 프레스

컨테이너로 수납 기능을 높인 바이크

피스트 바이크와 파나소닉 EZ의 2대를 사용 목적에 따라 타는 미우라 슈란. "실용성을 생각하며 거리에서도 타기 쉬운 슬림한 모델로 골랐다. 일상의 장보기와 업무용 짐 운반으로 유용하게 타고 있다. 차량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용 컨테이너 바스켓을 달아 적재력을 향상시켰다.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정도 탔는데 가벼운 피크닉용으로 개조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

보이스카우트 셔츠, 버그 캡 모두 **빈티지**, 플란넬 셔츠 **선컷케이**, 오버올 **발링턴**, 슈즈 **파라부츠**, 스트랩 **요세미티 스트랩**

OWNER
하시모토 케이 / 4K 프레스, CARSERVICE 디렉터

차에도 적재하기 쉬운 가볍고 작은 모델

자동차 마니아인 하시모토가 이번 봄에 구매한 것은 캐논 데일의 최신 모델, 콤팩트 네오다. "캐논 데일의 크로스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고른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디자인과 기동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에 적재하기 쉬운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 이유는 슬림하고 접을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닌 무게도 불과 18kg 미만이었다. 어디서든지 가볍게 꺼내서 탈 수 있는 것이 매력이고, 시내에서도 쾌적하게 탈 수 있어서 크로스 바이크에 탈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티셔츠 **스투시×아워 레거시**, 팬츠 **디키즈**, 슈즈 **아디다스**, 넥클리스 **4WA**, 선글라스 **아워 레거시**

CANNONDALE COMPACT NEO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과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여, 놀랄만한 경량성을 실현했다. "핸들과 페달을 접을 수 있어서, 차 안뿐만이 아닌, 실내에도 보관하기 편리하다."

(왼쪽) MTB와 로드 바이크를 만드는 브랜드답게 8단 변속 기어를 적용했다. LED 라이트를 앞뒤로 탑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오른쪽) BMX 스타일의 바이크와 잘 어울리는 캘리포니아 무드의 티셔츠가 인상적이다.

디자인? or 기능?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고르는 E-BIKE

보통 e-Bike로 말하지만, 팻 바이크, 미니벨로, MTB, 로드, 크로스 등의 종류부터, 배터리 용량까지 모델은 다양하다. 용도와 디자인을 겸비한 나만의 e-Bike를 찾아보자.

EDITOR KIM HAE GIL **TEXT** MASATSUGU KUWABARA

SUPER73
ZX
배터리 용량 : 615Wh

1970년대의 캘리포니아에서 출시한 미니 바이크를 답습한 상징적인 프레임에 파워풀한 전동 모터와 팻 타이어를 달았다. 상쾌한 보디의 컬러는 거리에서도 아웃도어에서도 눈에 띈다. 48만4000엔

FANTIC
ISSIMO FUN
배터리 용량 : 630Wh

페달이 달린 스쿠터 '모펫'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이탈리아의 e 바이크. 샤프한 리어엔드와 블록 타이어의 조합이 특징이고, 사이드 커버와 백 등의 옵션을 충실하게 갖췄다. 44만엔

ROCKAFLAME
MAKAMI
배터리 용량 : 375Wh

도쿄의 브랜드가 만드는 와일드한 모델. 군용 바이크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중량감 있는 디자인에 5단계 어시스트 레벨과 시마노 7단 기어를 달았다. 누구든지 쾌적하게 탈 수 있는 모델. 27만2800엔

ARCHON DESIGN
TR1
배터리 용량 : 748.8Wh

'럭셔리 & 기능성'을 컨셉으로 하는 도쿄의 디자인 브랜드. 전후의 서스펜션과 7단 기어를 갖춘 모델. 시트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 31만9000엔

COAST CYCLES
BUZZRAW X
배터리 용량 : 768Wh

BMX와 모터크로스 바이크에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의 e 바이크로, 아웃도어와의 완벽한 호흡을 느낄 수 있다. 전후 서스펜션 & 8단 기어에 더해, 마구라 유압식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액티브한 주행도 할 수 있다. 55만엔

BRINGER
FAT-01
배터리 용량 : 374.4Wh

투박한 팻 바이크 스타일이지만 접이식 모델로 컴팩트하게 실을 수 있다. 캠핑과 낚시 필드에 가져가서 숲길과 강가에서 액티브한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 28만5000엔

BESV
PS1
배터리 용량 : 378Wh

유럽에서 많은 디자인상을 받은 베스비의 프리미엄 모델. 앞뒤로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초경량 카본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시부터 다이나믹한 주행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모델. 34만8000엔

MATE.BIKE
MATE CITY
배터리 용량 : 468Wh

도시의 라이딩에 특화된 메이트 시티.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도 다루기 편한 크기에 3단계로 접을 수 있다. 배터리가 꺼져도 보통 자전거처럼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 27만5000엔

BENELLI
ZERO N2.0 FAT
배터리 용량 : 280.8Wh

이탈리아의 모터사이클 브랜드, 베넬리를 뿌리로 레더 백 등 클래식한 옵션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 모델은 팻 타이어지만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서, 아웃도어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21만1750엔

LOUIS GARNEAU
EASEL E
배터리 용량 : 393Wh

캐나다의 스포츠 브랜드, 루이 가노의 미니벨로 e 바이크.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경량성도 우수하고,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105km(ECO 모드 사용 시)라 쾌적한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다. 23만9800엔

MATE.BIKE
MATE SUV
배터리 용량 : 미정

2023년 말에 전 세계 동시 발매가 예정된 e카고 바이크. (전동 어시스트 3륜 자동차) 자전거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개발하여, 최대 주행거리 100km, 최대 적재량 210L를 실현했다. 국내 출시 예정인 컬러와 가격은 미정이다.

TERN
HSD P9
배터리 용량 : 300Wh

접이식 핸들로 스마트한 디자인이 특징인 미니벨로 e 바이크. 150cm~195cm의 신장에 대응하는 시트 포스트와 시마노의 9단 기어, 투박한 리어 캐리어가 표준 장비로 되어있는 등 실용적인 기믹이 특징이다. 44만3300엔

EVOL
AERITH
배터리 용량 : 234Wh

두꺼운 알루미늄 프레임에 20x2.35의 팻 타이어를 매칭한, 액티브한 디자인의 미니벨로 모델. 시트 포스트의 내장형 배터리를 사용하여 컴팩트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BMX을 타는 듯 시내 주행을 즐길 수 있다. 19만8000엔

XROSS
DX612
배터리 용량 : 468Wh

150mm의 스트로크를 가진 풀 서스펜션 e-MTB. 에너지 넘치는 주파성과 안정감이 우수한 트라이앵글 프레임을 사용하여, 다운힐은 물론이고, 업힐도 즐길 수 있다. 58만6300엔

XEALT
XEALT M5
배터리 용량 : 468Wh

파나소닉이 만든 새로운 e 바이크 브랜드, 제올트의 e-MTB. 유럽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최대 토크 90Nm의 GX 드라이브 유닛이 파워풀한 주행을 도와준다. 44만2000엔

SCOTT
GENIUS ERIDE JAPAN SPEC LIMITED 2ND
배터리 용량 : 625Wh

트레일 라이드부터 다운힐까지, 등산에 특화한 e 라이드 최신 모델. '트윈록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나의 레버로 앞뒤의 서스펜션을 동시에 셋업 할 수 있다. 70만1800엔

SPECIALIZED
KENEVO SL EXPERT
배터리 용량 : 320Wh

혁신적인 스포츠 바이크 브랜드 스페셜라이즈드가 만드는 트레일 라이드 대응 e 바이크. 오프로드 더트 코스 '엔듀로'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올 라운드 사양의 주행 능력을 제공한다. 135만3000엔

YAMAHA
YPJ-MT PRO
배터리 용량 : 471.6Wh

야마하의 e 바이크 'YPJ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 우수한 차체 강성과 밸런스를 추구한 '야마하 듀얼 트윈 프레임'이 특징이다. 74만8000엔

MERIDA
EONE-SIXTY 500
배터리 용량 : 504Wh

낮은 중심의 안정성과 프레임 내장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 게다가 29인치 전륜과 27.5인치의 후륜을 사용한 말렛(앞뒤의 바퀴가 다른 사양) 설계로, 기민한 움직임을 실현한다. 69만8500엔

BIANCHI
E-OMNIA T-TYPE
배터리 용량 : 625Wh

체레스테 컬러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비앙키에서 만드는 올라운더 e 바이크. 프런트 서스펜션과 인텔리젠트 디자인으로 아스팔트에서 자갈길까지, 다양한 노면에서 쾌적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93만5000엔

GIANT
ESCAPE R E+
배터리 용량 : 400Wh

자이언트의 크로스 바이크, 이스케이프R에 전동 어시스트를 더 했다.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넓은 폭의 타이어 등, 시내를 안전하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장비를 갖췄다. 33만엔

VANMOOF
S5 DARK GRAY
배터리 용량 : 457Wh

스트레이트 프레임이 인상적인 밴 무프의 최신 모델에 뉴 컬러인 다크 그레이를 추가했다. 새롭게 개발한 토크 센서가 라이더의 페이스와 움직임에 맞춰 바이크가 반응한다. 48만7000엔

MIYATA
ROADREX I 6180
배터리 용량 : 418Wh

일본 최초의 안전형 자전거를 만든 브랜드, 미야타가 만드는 그래블 로드. 최대 주행거리는 105km(ECO 모드 시)이고, 리어 캐리어 옵션으로 바이크 패킹도 할 수 있다. 40만7000엔

PANASONIC CYCLE TECHNOLOGY
BP02
배터리 용량 : 302Wh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인 비치크루저 스타일의 e 바이크. 파나소닉과 빔즈가 공동 개발한 모델이다. 최대 적재량 18kg의 빔즈 로고가 들어간 알루미늄 리어 캐리어가 표준형 모델이다. 15만5000엔

FUJI
MOTIVATOR
배터리 용량 : 200Wh

일본의 유서 깊은 브랜드가 만드는 스타일리시한 모델. 알루미늄 CNC 보디와 풀 카본 포크로 경량화를 추구했고, 내장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스마트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35만2000엔

TREK
FX+ 2
배터리 용량 : 250Wh

프리사이즈 보디에 약 18kg의 중량의 모델. 250Wh의 내장 배터리로 67km 주행이 가능하고, 외부에 배터리를 추가하면 주행거리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 32만4500엔

CANNONDALE
QUICK NEO
배터리 용량 : 500wh

캐논 데일의 전통적인 알루미늄 프레임과 가벼운 카본 파이버 포크로 만든 퀵 네오. 다운 튜브에 내장한 파워풀한 배터리로 가득 충전 시 최대 165km를 주행할 수 있다. 36만3000엔

E-BIKE를 더욱 즐길 수밖에 없는 아이템

<고아웃>이 이동을 쾌적하게 도와주는 기능과 유틸리티는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갖춘 아이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e -Bike 라이딩을 제안하는 아이템 모았다.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NG** RYOSUKE ITO
TEXT MASATSUGU KUWABARA

NARIFURI
UPR VENTILATION SHIRT

사이클 계열 브랜드, 나리프리의 벤틸레이션 셔츠. 양옆을 메시 소재를 적용하여 통기성을 확보했다. 뒤쪽에는 야간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리플렉터 사양의 네임과 파이핑이 넣었다. 2만4200엔

DESCENTE ALLTERRAIN 81
GORE-TEX JACKET MS

모델명인 'MS'는 메신저의 뜻을 담고 있다. 후드가 있는 스탠드 칼라와 백 포켓, 메신저 백의 기능을 하는 프런트 플랩 등 자전거 탑승 시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5만600엔

ARC'TERYX
GRANVILLE 25 BACKPACK

그란빌을 업그레이드한 모델. 커다란 플랩이 있는 메신저 백 같은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 3만3000엔

BLUE LUG
THE MESSENGER BAG

올드 스쿨 스타일의 메신저 백. 프런트 패널을 적용한 네온 컬러의 리플렉터 테이프는 벨크로 타입으로 탈부착 할 수 있다. 1만9800엔

STANCE
ICON

스케이트보드나 스트리트 무드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 스탠스. 페달을 밟을 때는 양말도 눈에 띄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다. 화려한 컬러링의 모델을 추천한다. 각 1760엔

PATRICK
CYPOOL

패트릭이 사이클리스트용으로 출시한 모델, 사이풀. 발수성이 좋은 어퍼와 남는 슈 레이스를 텅 부분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시 체인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 1만9800엔

CHROME
KURSK AW

자전거의 타이어 & 튜브 전문 브랜드, 파나레이서와 공동 개발한 전천후형 어반 바이크 스니커즈. 뛰어난 속건성과 통기성을 갖췄다. 1만3200엔

SMITH OPTICS
XC

1980년대의 스타일의 플립업 렌즈의 선글라스 모델. 레트로한 디자인에 선명하게 보이는 크로마 팝 렌즈와 노즈 러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용성도 뛰어나다. 2만7500엔

SUUNTO
SUUNTO 9 PRO

가볍고 튼튼한 티타늄 베젤과 실리콘 스트랩의 조합으로 실현한 초경량, 초박형 스포츠 워치. 경이로운 배터리 수명과 군용 레벨의 내구성 및 다양한 액티비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9만8890엔

SMITH OPTICS
NETWORK MIPS

유선형 실루엣과 라인이 스타일리시한 사이클용 헬멧. 충격에도 뛰어난 흡수성을 자랑하며, 주행 중인 아이웨어의 시야를 극한까지 깨끗하게 밝혀준다. 2만7500엔(템프라 사이클)

QUAD LOCK
QUAD LOCK CASE, OUT FRONT MOUNT PRO

와이어리스 충전 헤드에도 설치할 수 있는 머그 시리즈의 아이폰 케이스와, 핸들바에 설치할 수 있는 마운트.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보기 편한 포지션과 각도로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다. 케이스 5940엔, 마운트 8580엔

JACK WOLFSKIN
MOROBBIA SEAT BAG

시트 포스트에 설치하는 소형 백. 하드 커버의 아우터와 롤톱식 이너를 활용한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바깥쪽의 번지 코드는 마그넷 다이얼 스냅이다. 1만8700엔

POLER
CLASSIC SPRING GLOVE

스포티한 디자인의 바이크용 글로브 같지만, 익숙한 사이크롭스 로고가 눈에 띄는 모델. 좌우로 디자인이 다른 어소트 모델로 개성을 연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8580엔

MEANSWHILE
BUNGEE CORD HOLDER

리플렉터 소재와 네온컬러 번지 코드로 만들어진 유틸리티 홀더. 짐을 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닌, 드링크 보틀 홀더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각 2200엔

BLUE LUG
TRIANGLE REFLECTOR

피스트 바이크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한 블루 러그의 오리지널 레트로 반사판. 새들 레일과 새들 백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어소트 컬러의 디자인이 매력이고,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이 특징이다. 각 1540엔

백팩 vs 토트백

인도어 & 아웃도어, 어디서든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

휴대폰, 지갑 등 작은 소지품부터 노트북, 책 등 사용자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방의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가방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디자인이 아닐까. <고아웃>이 봄을 맞아 다양한 취미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방을 들여다보았다.
재밌는 소품부터 센스있는 아이템까지. 나의 목적에 따라 어떤 가방이 좋을지 생각하며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자, 이제 가벼운 짐을 넣고 밖으로 나가자.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ST** TOMOYUKI SASAKI **TEXT** MASATSUGU KUWABARA

L.L.BEAN

보트 앤드 토트

1980년대 모델로 긴 길이의 실루엣이 특징이다. "이런 형태의 가방은 핸들 간격이 좁게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들과 공원에 외출할 때, 장난감을 넣어서 다닌다."

센스있는 소품과 어울리는 백팩과 토트백

움직임이 자유로운 백팩 및 생활용품이나 아이템을 편하게 넣기 위한 토트백 중 어느 쪽이 주력 멤버가 될지 알아봤다.

츠카하라 마나부

BALLISTICS 기획 운영

밀리터리와 아웃도어, 모터사이클을 기조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발리스틱스의 대표. "요즘에는 매일 아침 집의 개러지의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취미다."

타잔 QAZAWA

ELDORESO, ALDIES 디자이너

각각 다른 스타일을 표현하는 엘도레소와 알디즈의 두 브랜드를 전개한다. 취미인 러닝은 정기적으로 대회에 나가고 있다. "요즘 지구를 달리는 것에 빠졌다."

ELDORESO

코뮤트런 배낭

러닝계열 아이템을 갖춘 엘도레소의 데이팩형 스포츠 배낭. "얼핏 보면 보통 데이팩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달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러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세탁도 가능해서 야외 페스티벌에도 자주 들고 간다."

HENDER SCHEME

오리지널 백 빅

프리미엄 레더 슈즈 등을 전개하는 헨더 스킴 토트백. "일본 고유의 종이접기와 보자기를 활용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물건도 보자기처럼 잘 감싸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유용하다."

카츠아키 타카오
VIC2 디렉터

키치죠지의 아웃도어 계열 셀렉트숍, 빅투의 디렉터. 오리지널 브랜드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봄에는 오랜만에 트레킹을 시작할 예정이라, 매일 아침을 러닝으로 시작한다."

BRIEFING

이지 토트 RP

브랜드의 25주년을 기념하여, 20년 만에 복각된 토트백. "미국산 한정 복각판이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다. 가벼운 미팅 등의 상담 시에 최적화된 크기로 내구성이 뛰어난 아이템이다. 매일 사용하고 있다."

야마다 쇼이치
PEOPLE SHOWROOM 디렉터

아웃도어 기어에 특화된 어태시드 프레스를 운영하는 한편, 카탈로그 제작 등의 창의적인 업무도 활동하고 있다. 휴일에도 캠핑과 낚시 등 아웃도어에 푹 빠져있다. "드디어 계류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계절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낚시를 하고 싶다."

TEMPRA

투 토트

스트랩의 버클을 탈부착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나일론 소재의 미니 토트. "개인용으로 만든 SNS에 업로드 했더니 제품 제작을 요청받아서, 판매하기로 했다. 기성품은 크기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고바야시 켄타
TEMPRA CYCLE 대표

구마자와 거리 주변에 있는 자전거 & 잡화 숍을 유능한 스탭에게 맡기고, 현재는 다양한 아이템을 고안하고 있다. "점장이 독립하게 되어, 이 기회에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BATTENWEAR

메시 토트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디자이너가 만드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메시 토트. "여유로운 메시의 질감이 특징이다. 땀을 흘리거나 젖은 웨어를 그대로 넣어, 세탁망처럼 한꺼번에 세탁할 수도 있다."

시라이 노리마사
플래너

국내외 브랜드의 마케팅과 PR을 담당하는 프리 플래너. 취미는 프로레슬링을 보는 것이다. "요즘에는 골프와 캠핑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있는데, 올봄에는 그와 관련된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다."

COTOPAXI

루손 백팩 24L 델디어

잔여 소재를 사용한 어소트 컬러가 인상적인 백팩. "같은 컬러링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하나뿐인 모델을 고를 수 있어서 좋다. 아웃도어용 기능성과 기믹이 특징이다."

쿠니히로 츠지이

OFFICE BORSHCH PR 디렉터

국내외 패션에서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PR을 맡고 있다. 휴일에는 바이크 패킹을 즐기고 있다. "봄에는 그래블 바이크 패킹과 팩 래프팅을 이용하여 리버사이드 캠핑을 즐기고 있다."

ULTRASPIRE

라이프스타일 팩

트레일 러닝용 혁신적인 배낭을 만드는 하이드레이션 기어 브랜드의 백. "아이템명 그대로, 일상용 모델이다. 다소 작은 16L 롤팩 타입의 모델로, 독특한 분위기가 내 취향과 맞았다."

시마다 테츠야

MUROOFFICE 프레스 매니저

프로모션 오피스, 무로 오피스에 소속되어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의 PR을 맡고 있는 한편, 트레일 러닝과 볼더링, 자전거 등 취미를 즐기고 있다. "패스트 패킹으로 다양한 산을 즐기고 싶다."

SEALLINE

바하뷰 드라이 백

방수 굿즈로 정평이 나 있는 실 라인이 제안하는, 데이팩 스타일의 드라이 팩. "GO OUT CAMP의 플리마켓 출품 당시에, 다른 출품자의 아이템에서 발견했다. 투명한 백팩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구입했습니다. 방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콘도 토모미치

스타일리스트

캐주얼부터 드레스까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캠핑과 트레킹, 바이크 패킹 등을 즐기는 아웃도어 마니아이다. "봄과 여름에는 다른 아웃도어에 도전할 예정이다."

THE PARK SHOP

볼 파크 팩

바닥 면에 메시 포켓을 적용한 키즈 사이즈의 데이팩. 메시 포켓을 당기면 공이나 헬멧을 수납할 수 있다. "공과 헬멧은 백 안에 넣으면 너무 거슬리고, 내부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구매했다."

히로오카 쇼에이

THE PARK SHOP 대표

공원에 있는 키오스크를 컨셉으로 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전개한다. 프라이빗에서도 아웃도어 아빠의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봄에도 조사라는 명목하에 아이들과 전국에 있는 공원 매점을 순회하고 있다."

디자인과 편리함을 위한 아이템 봄에 특히 자주 사용하게 될 백팩과 토트백

등이나 어깨에 매거나 들고 다니는 등 사용자의 편리한 목적뿐만이 아닌, 새로운 계절을 맞아 눈여겨볼 만한 디자인까지, <고아웃>이 주목하는 아이템을 모았다.

NORDISK
TOOL TOTE BAG

바깥쪽의 포켓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만든 툴 토트백. 제품명 그대로 다양한 툴을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다. 무거운 기어도 넣을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캠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상용 아이템으로도 좋다. 1만9800엔

L.L.BEAN
BOAT and TOTE M, L

엘엘빈의 마스터 피스 중 하나, 보트 앤드 토트에서 새로운 컬러를 출시했다. 기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바꿔가며 쓰는 것도 추천한다. L: 1만890엔, M: 9790엔

THE NORTH FACE PURPLE LABEL
TPE TOTE BAG

습기와 오염에 강한 TPE 패브릭 래미네이트 원단을 사용하였고, 핸들에는 레더를 사용하여 도회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내부에는 퍼스너 포켓과 보틀이 들어가는 포켓을 넣었다.

MIS
MULTI TOTE BAG

밀리터리 스타일의 멀티 토트백. 양 사이드의 스트랩을 조이면, 실루엣과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 우레탄 코팅 처리한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수성도 우수하다. 2만4200엔

PORTER
2WAY TOTE BAG

밀리터리 모티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파루스 시리즈의 2WAY 토트백. 정면에 비스듬하게 배치한 웨이빙 테이프로 실용성과 디자인성을 겸비한 기능미 넘치는 디테일을 가미했다. 4만6200엔

PORTER

DAYPACK

포터 샬렛 시리즈에서 출시한 데이팩. 보디 소재에 60/40 클로스 사용한 클래식한 분위기와, 동그란 모양 등, 사용하면 할수록 애착이 생기는 모델이다. 3만3550엔

GREGORY

DAYPACK

1977년에 출시한 이래로, 원형 그대로의 디자인을 유지한 모델, 데이팩. 일상용으로 최적화된 26L 사이즈로 일상용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2만6400엔

ARC'TERYX

ARRO 22 BACKPACK

애로 시리즈의 22L 모델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 모델. 패드가 들어간 슬리브가 내부에 달려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만9700엔

SHIPS ANY × OUTDOOR PRODUCTS

SIMPLE BACK PACK

아웃도어 프로덕츠의 상징적인 모델인 데이팩을 아웃 포켓을 분리한 모델. 브랜드의 네임 아래에 성조기 피스 라벨을 붙였다. 1만450엔

MONT-BELL

U.L KNAPSAC

13L 용량에 불과 39g의 경이로운 무게가 인상적인 냅 색. 얇은 나일론 원단은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컴팩트하게 수납할 수 있는 포터블 사양의 모델이다. 3080엔

THE NORTH FACE PURPLE LABEL

MESH DAY PACK

주변과 다른 개성을 연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데이팩 타입의 모델. 두꺼운 섬유로 짠 폴리에스터 메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짐을 넣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만900엔

TOPOLOGIE

TOPOLOGIE BAGS DRAW TOTE

베이직한 스퀘어 실루엣에 방수 퍼스너 포켓과 클라이밍 로프의 스트랩이 포인트. 양옆의 스트랩을 사용하면 백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2WAY 사양의 모델. 1만3750엔

PATAGONIA

BLACK HOLE TOTE 25L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의 립스톱으로 만든, 가볍고 튼튼한 중형 토트백. 수납력 또한 뛰어나다. 입구 부분은 후크로 닫을 수 있다. 8800엔

CMF OUTDOOR GARMENT

3DAYS TOTE BAG

그 이름 그대로, 3일간의 여행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여 만든 토트백.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과 3개의 외부 포켓이 달려 있어서, 1일 1포켓으로 생활용품을 소분하여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만4000엔

AND WANDER

DYNEEMA TOTE

방수성이 우수한 경량 소재 다이니마 콤포짓 패브릭을 사용하는 백. 핸드백, 숄더백, 크로스 숄더백 등 3WAY 사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라비너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다. 2만7500엔

KELTY

PICNIC TOTE

빈티지 라인에서 출시하는 피크닉 토트백. 바닥이 넓기 때문에, 커다란 도시락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고, 바닥 부분과 앞뒤로 우레탄 패드가 달려있어서 쓰러지지 않는다. 1만3200엔

HOBO

NYLON 2WAY BAG

길이가 다른 두 종류의 스트랩이 인상적인 나일론 토트백. 바닥이 넓어서 의외의 수납력이 특징이다. 경량이지만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캠핑 기어를 넣어서 쓸 수 있다. 2만5300엔

ELDORESO

TRANSPORT RUCK

대회와 레이스 등, 러닝 계열 이벤트에서 쓰는 트래블 백. 주요 수납 부분은 U자 지퍼로 열려 짐 정리가 편리하다. 2만790엔

AND WANDER

SIL DAYPACK

얇은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한 18L 사이즈의 데이팩. 가볍고 패커블 사양으로, 여행용 서브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머니 스타일의 입구와는 별개로 비스듬한 지퍼를 사용하여 내부에 소품을 수납할 수 있다. 1만9800엔

WHITE MOUNTAINEERING

NYLON TUSSAH DAY PACK

미니멀한 디자인과 심플한 실루엣이 인상적인 나일론 소재의 데이팩. 등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거친 움직임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자전거와 바이크 이동에도 최적화 되어있다. 2만5300엔

KLÄTTERMUSEN

FJORM 18L

클라터뮤젠 특유의 고급스러운 컬러와 세련된 디테일이 특징인 백팩. 방수성과 기동력이 우수한 패스트 트레킹용 아이템이지만,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18L 사이즈의 모델. 2만6400엔

BACH

SHIELD 20

트레킹부터 출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0L 사이즈의 경량 백팩. 넓게 펼쳐지는 3D 프런트 포켓과 통기성이 우수한 패드가 들어간 배면 시스템 등, 필드에서의 사용감도 뛰어나다. 2만4200엔

PAAGOWORKS

RUSH30

오버 나이트의 패스트 패킹에 특화된 모델. 독자적인 설계로, 이상적인 밸런스와 착용감을 구현했다. 숄더 벨트와 탑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여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2만5300엔

ETHNOTEK
KUNGRI TOTE

네이티브 패턴과 오리지널 패턴을 갖춘 에스노텍의 쿤그리 토트백. 2L 페트병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안쪽에는 메시 지퍼 포켓이 달려 있어서 폭넓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만450엔~1만2650엔

THE NORTH FACE
BC FUSE BOX ECO TOTE

아웃도어를 사랑하는 BC 시리즈에서 가벼운 폴리에스터 소재의 에코 토트백을 출시했다. 부속품인 수납 파우치가, 미니어처 사이즈의 백팩이라 꽤 인상적이다. 각 6600엔

DULUTH PACK
JET SETTER TOTE

백팩이 유명한 덜루스 팩에서 토트백을 출시했다. 15oz 캔버스 원단과 프리미엄 레더로 만든 레트로한 디자인이지만, D링과 스트랩의 조합인 5WAY 사양의 모델이다. 3만1900엔

MADDEN
FUNNY TOTE

바닥부분에 가방을 말아서 넣을 수 있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패커블 모델. 그래서 바닥이 튼튼한 만큼, 얇지만 쓰러지지 않는 구조다. 숄더 스트랩은 탈부착으로 패커블 상태로도 체결을 할 수 있다. 7480엔

PUEBCO
TRUCK SEAT FABRIC SMALL TOTE

인도의 트럭 드라이버가 좌석에 사용하던 원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아이템. 실제 인도산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한 디자인이 매력이다. 집 앞 산책이나 장보기 용으로 추천한다. 각 3520엔

MACOLE
X-PAC SHOPPER, ROPE STRAP 400

편의점 봉투 실루엣의 쇼핑 백을, 엑스팩 소재로 만든 모델. 클라이밍 로프와 카라비너로 만든 스트랩을 사용하면 숄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쇼퍼 1980엔, 스트랩 1870엔

SAVOTTA
JÄÄKÄRI M

핀란드 국경 경비대의 라이트 보더 패트롤용 백팩을 개량한 모델. 몰 시스템의 웨이빙을 사용하여 파우치와 기어를 외부에 달 수 있다. 사진은 새로운 컬러 모델이다. 2만8600엔

BRIEFING
NEO FORCE RP

브랜드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컬렉션 중 하나. 대용량 42L 모델이기 때문에 여행뿐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사용하기 좋다. 6만1600엔

MOUNTAIN RESEARCH
MT PAX

탈부착식 아우터 파우치 메시 소재의 슬림 팩. 친숙한 누메 가죽 패치에는, 이번 시즌 티셔츠에도 사용되는 "A라이즈" 각인을 넣었다. 4만7300엔

PATAGONIA
REFUGIO DAY PACK 26L

일상용으로 최적화한 26L 사이즈의 데이팩. DWR 가공하여 발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내부에는 탈부착식 패드가 들어간 PC 슬리브를 넣었다. 사진은 새로운 컬러 모델이다. 1만4300엔

MATADOR
SEG28

프런트에 4개의 지퍼 포켓이 달려있지만, 심플한 실루엣이 인상적인 모델이다. 배면에 패드가 들어간 PC 슬리브, 사이드 보틀용 포켓 등 일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믹이 특징이다. 3만5200엔

F/CE.®
ONEDAY TECHNICAL TRAVEL BACK PACK

에프씨이의 어반한 디자인에 기능적인 기믹이 들어간 모델. 숏 트립부터 일상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만7400엔

ECHO FOR THE ECO

친환경 제품이 반드시 '고가'는 아니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

EDITOR YOO SUNG

K2

SNAPPY ANORAK ECO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가 사용된 친환경 제품. 반팔 아노락 스타일로 가볍고 스트레치가 뛰어나 활동적인 액티비티에 유용하다. 15만9000원

NEPA

ECO GTX PACLITE PLUS WTRP JKT

리사이클 원단과 친환경 발수제를 사용한 방수 재킷. 투습도가 우수한 고어텍스 PACLITE PLUS 2레이어 소재가 적용되었다. 안감이 없는 사양으로 초여름까지 착용할 수 있다. 39만9000

KOLON SPORT

DAY PACK COACH JACKET

가볍고 몸에 붙지않아 봄, 여름에 입기 좋은 재킷. 로고 와펜으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하고 일상과 여행에도 실용적이다. 리사이클 소재의 원단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액체를 튕겨내는 기능이 있다. 15만8000원

HENRY COTTON'S

DISTANCE22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의 유틸리티 셔츠. 빈티지 피싱셔츠를 현대적으로 복각해 멀티 아웃 포켓과 피싱고리 등의 디테일을 살렸다. 가슴둘레가 넉넉하며 어깨 부분도 드롭되어 여유로운 핏으로 입기 좋다. 16만5000원

PATAGONIA

WOMAN'S SLATE SKY JACKET

해양 폐그물을 활용해 만든 재생 소재 넷플러스(NetPlus®) 100% 포스트컨슈머 리사이클 나일론 평직 원단을 사용한 재킷. 매끈한 저지 안감이 편안하며 뛰어난 방수 및 투습 기능이 갖춰졌다. 39만9000원

PATAGONIA

MEN'S VENGA ROCK PANTS REGULAR

가벼운 재생 유기농 인증(Regenerative Organic Certified™) 순면과 스판덱스가 혼방된 원단이 사용된 제품. 신축성이 뛰어나 등반할 때 입기 좋은 클라이밍 팬츠다. 19만9000원

PATAGONIA

BLACK HOLE CUBE LARGE

100% 리사이클 소재로 주 원단과 안감, 웨빙을 제작한 10리터 사이즈의 가방. 특히 안감은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PU 코팅 처리되었다. 8만5000원

VANS

GROWTH GARDEN TOTE BAG

빈티지 그래픽이 눈에 띄는 토트백. 가드닝 콘셉트에서 영감받은 제품으로 뉴트럴한 색감을 구현한 오가닉 소재의 텍스처가 멋스럽다. 많은 소지품을 한데 넣을 수 있는 대용량이 장점. 11만9000원

GRAMICCI

G-SHORT TEE

100% 유기농 면 소재를 사용한 그래픽 티셔츠. 피부에 닿는 착용감이 부드러우며 기본적인 투습이 좋아 일상과 퍼포먼스 활동 모두 입기 좋다. 7만9000원

NEW BALANCE OUTDOOR
UNI TRAIL GRAPHIC T-SHIRTS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티셔츠. 신축성이 좋고 흡습속건이 뛰어나 아웃도어 활동시 적합한 베이스레이어 제품이다. 4만9900원

KAVU
KLEAR ABOVE ETCH ART BUTTERSCOTCH

저자극성 유기농 면으로 제작된 카부의 베스트 셀러 반팔 티셔츠. 여름 시즌을 더욱 시원하게 해줄 컬러가 매력이다.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구성되었다. 6만3000원

THE NORTH FACE

ENERGY TECH II BOA GTX

리사이클링 메시 소재가 적용된 친환경 슈즈. 방수와 발수성이 탁월한
고어텍스가 적용되었으며,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쿠션성이 뛰어나다.
27만9000원

SALOMON
PULSAR ADVANCED

천연 소재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합한 슈즈. 가볍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전체적으로 오가닉한 느낌을 주는 여름용 슈즈다. 26만원

BLACK YAK

343 ECO GTX GRAY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방탄복 등의 리사이클 원사를 합사해 만든 제품. 재생표준인증 'GRS(Global Recycled Standard)'를 획득한 고무로 제작된 아웃솔 등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트레킹 슈즈다. 21만9000원

LA SPORTIVA

TX4 R WOMEN

리사이클 소재와 고무로 제작된 어프로치 라인 슈즈. 100% 리사이클 슈 레이스와 후크, 안감 메시 등을 적용했다. 미드솔 또한 7% 리사이클 EVA가 반영된 제품. 29만원

VANS

GROWTH GARDEN VR3 COLLECTION

봄내음이 느껴지는 컬러로 구성된 스니커즈 컬렉션.
친환경 소재를 주로 사용해 만들었고 착화시 편안한
인솔과 부드러운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다.
모두 7만9000원

2023-15th GO OUT KOREA CAMP

2023. 3.31. FRI ~ 4.2. SUN | 경북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EDITOR GO OUT KOREA EDITORIAL DEPT **PHOTOGRAPHER** MS-PHOTOGRAPH, KHAN-PHOTO, VAGABONDPHOTOGRAPHY

2023년 봄,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다섯 번째 고아웃 캠프를 개최하였다. 지역 사회에 캠핑 문화를 소개 및 경험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취지였다. 대한민국 최대 캠핑 페스티벌인 고아웃 캠프는 여느 때처럼 많은 웃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사전 티켓 예매를 마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캠퍼와 아웃도어 관련 산업 및 캠핑, F&B 브랜드 관계자 등 약 1만5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약 40여 개 브랜드와 구미 플리마켓 업체들이 스폰서십으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 웰컴기프트와 열기구, 카누 체험, 스케이트보드 체험, 바이크 체험, 불꽃놀이 등이 운영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토요일 저녁 공연에는 폴킴과 다이나믹듀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이번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캠핑 페스티벌에 참여한 캠퍼들의 질서의식이 아니었을까.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덕분에 캠프에 참여한 캠퍼들은 이른 여름의 강렬한 햇살을 맞으며 캠핑을 즐겼다. 과거 고아웃 캠프 중 단 한 번도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날씨운'의 기록을 이번에도 이어 나갔다. 축제는 끝났지만,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제15회 고아웃 캠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CAMP

2023-15th GO OUT CAMP STYLING REPORT

고아웃 캠프를 빛낸 캠퍼들의
매력적인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KHAN-PHOTO

01

비비드한 컬러의 오프숄더 집업 재킷과 여유로운 실루엣의 진으로 완성한 페스티벌 룩

한은지 영화 스태프 @silverg0213

친구와 함께 온 15th 고아웃 페스티벌! 다양한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2박 3일간의 축제를 즐기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다는 그녀. 평소 취미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기록하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LP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커스텀한 집업 재킷으로 센스 있는 페스티벌 룩을 연출했습니다."

"평소 빈티지한 아이템을 좋아해서 컬러와 소재에서 빈티지 무드를 느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BEANIE **CERRIC**
SUNGLASS **CHANEL**
TOP **ADIDAS(CUSTOM MADE)**
PANTS **VINTAGE**
SHOES **CROCS-**
CAMERA **OLYMPUS PEN EE3**

02

컬러의 포인트와 다양한 아이템의 조화가 인상적인 데일리 웨어

최유정 크리에이터 @youdong2

평소 캠핑을 자주 즐기는 캠핑 마니아로 라이브커머스 MC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정', 2023년 하반기 고아웃 캠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나왔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의 반려견 충일이와 함께여서 더 기뻐요!"

"야외 페스티벌에 맞춰 활동성을 생각하여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착용했습니다. 반려견 충일이를 위해 배변봉투와 간식 등 산책용 준비물을 넣을 수 있는 가방도 필수죠."

03

포인트 컬러의 여유로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커플 룩

이모아 패션 디자이너 @milkbar_______1 | **이종호** 패션 디자이너 @tansan__bar

패션 디자이너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신혼부부 '이모아', '이종호'. 결혼한 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 멜리(사모예드)와 승찬(코숏)이와 함께 여유로운 여행을 하지 못해 고아웃 캠프에서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러 왔다고 한다. "평소 아내와 함께 드로잉 위주의 창작물 작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활동성을 고려하여 편안한 아이템으로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산책 시 챙겨야 하는 짐도 많아 다루기 편한 크로스 백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TOP **UNIQLO**
BOTTOM **CUSTOM MADE**
SACOCHE **HIDEOUT**
SHOES **COLUMBIA KOREA**

TOP **URBANDTYPE**
BOTTOM **CUSTOM MADE**
BAG **CAT BAG**
SHOES **KOLONSPORT**
CAMERA **CANON R10 24-70mm**

"반려묘 승찬이를 위한 동물 병원 한정판 가방입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아 자주 애용하는 가방입니다. (이종호)", 가벼운 무게로 착용이 편안한 아이템입니다. 직접 커스텀해서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이모아)."

04

개성이 돋보이는 커플 룩

오봉현 자영업 @5tagonia | **최송이** 자영업 @song_____yee

요식업을 하는 '오봉현'과 수제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송이'. 평소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긴다고 한다. "마침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장에서 캠핑해 보고 싶었는데, 때맞춰 고아웃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그들이라 그럴까. 개성과 위트를 겸비한 패턴 팬츠가 눈에 띈다. "강렬한 패턴에 이끌려 커플 룩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즐거운 캠핑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룩 아닌가요?"

CAP **INCHINCHINCH**
SUNGLASS **RAYBAN**
TOP **DEUS EX MACHINA**
BOTTOM **GOOD HOBBY CLUB**
SHOES **NEWBALANCE 911**

SUNGLASS **GEEKTA EYEWEAR**
TOP **DEUS EX MACHINA**
BOTTOM **GOOD HOBBY CLUB**
SHOES **SALOMON XT-4**

"독특한 그래픽이 눈에 띄어 구매한 제품입니다. 쓸수록 자연스러운 멋이 더한 아이템이라 손이 자주 가네요. (오봉현)", 모토크로스를 연상하게 하는 격자 패턴 팬츠. "매력적인 패턴에 착용감도 편한 아이템입니다. 심플하게 입은 후 포인트 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송이)"

05

빈티지 무드를 느낄 수 있는 톤온톤 룩

오소정 회사원 @______sojung | **조광민** 프리랜서 @j_____oasis

오토캠핑과 백패킹을 좋아하는 '오소정'과 스쿠버다이빙, 스노보드 등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조광민'. 캠핑을 즐긴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아웃 캠프는 처음이라고 한다. "아내를 따라 처음 온 고아웃 캠프에 공연을 즐기고, 이벤트를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귀한 텐트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요." 빈티지 무드를 느낄 수 있는 톤온톤 룩으로 편안함을 강조했다.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안한 실루엣과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수납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납공간이 많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건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디테일이 독특한 디자인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컬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광민)", "야외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외선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선크림과 버킷햇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저와 함께하는 바버 가방이에요. 에이징이 될수록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오소정)"

06

활동성을 중시한 아웃도어 캐주얼 룩

안정현 학생 @mouse0124 | **이성민** 회사원 @3sizes_

백패킹과 크로스핏, 러닝, 독서, 반려견 산책 등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하고잽이 안정현'. "반려견 동반이 되는 페스티벌, 따뜻한 계절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 최고의 공연과 체험 등 볼거리가 많은 페스티벌, 고아웃 캠프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현)" 백패킹, 러닝, 골프, 윈도우 쇼핑을 즐기는 '이성민'. 제가 사는 곳인 구미에서 고아웃 캠프가 열리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되죠. 더군다나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은 저의 최애곡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무조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민)"

"장소나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저에겐 필수 아이템입니다. 캐주얼한 무드에서도 포인트를 주기에 꽤 괜찮은 아이템이죠. 아웃도어 브랜드와 믹스 & 매치를 하게 되면 꽤 독특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성민)" 야외활동을 할 때 가벼운 소품을 넣기에 최적인 아이템입니다. 보기엔 작아보이지만, 꽤 수납성이 꽤 좋습니다. (안정현)"

07

카키 컬러로 포인트를 준 캠핑 룩

허이랑 **회사원** @kkorion_camping

평소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다 보니 클라이밍, 크로스핏, 등산, 마라톤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있는 '허이랑'. 특히나, 반려견 미쯔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을 주로 하고, 애견동반 캠핑과 아웃도어 유튜브, '꼬리온 캠핑'도 운영하고 있다. "유명한 캠핑 축제는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번 15회 고아웃이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부산 캠퍼로 안 갈 수가 없었다. (다음엔 부산 대저생태공원에서도 개최해 주세요.)"

"브랜드와 상관없이 디자인이 매력적인 아이템을 좋아합니다. 소재의 질감도 많이 고민하는 편이고요. 무엇보다 입었을 때 편안해야 합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해, 그런 점이 인상적인 룩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지만 디테일과 기믹이 들어간 점 역시 보통 내공이 아님을 알았다.

CAP **PEACHES**
TOP **ZARA**
BOTTOM **ZARA**
SHOES **MERRELL CUSTOM**

CAP **SUPREME**
SUNGLASS **OAKLEY**
TOP **THE LEVI'S® JAPAN X SUPER MARIO™ COLLECTION**
T-SHIRT **STUSSY**
BOTTOM **GRAMICCI JAPAN**
SHOES **NIKE**

08

패턴의 매치가 돋보이는 믹스 앤 매치 룩

이희영 **회사원** @jo_a__rewindgraphy

캠핑 사진 및 영상 촬영,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에 진심인 다재다능한 아웃도어 마니아 '이희영'. 고아웃 캠프 1회 때부터 참가한 캠핑 마니아다. "고아웃 캠프 소식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게 '국룰' 아닌가요? (웃음) 15회 고아웃 캠프엔 특별하게 돔 텐트 존으로 참여했습니다. 캠핑 문화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어서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로운 기획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색감이 뚜렷하고, 화려한 그래픽의 아이템을 좋아하다 보니, 믹스 앤 매치 룩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컬러 이외에도 소재를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희소성이 높을수록 그 매력에 끌려서 수집도 하곤 합니다. 한정판 마니아가 되어갈 수록 통장은 가벼워지지만, 늘 새것을 입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09

심플한 캐주얼 룩에 포인트 더하기

홍진희 웹기획자 @jhee_119
문성민 인테리어 매니저 @outdoors_coffee

평소 여행과 쇼핑을 좋아하는 '홍진희'와 캠핑, 러닝, 커피를 좋아하는 '문성민'. 여행 겸 가벼운 마음으로 고아웃 캠프를 찾았다. "고아웃 캠프를 통해 처음으로 캠핑을 입문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특히 텐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홍진희)" "여자친구가 캠핑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함께 왔어요. 하루빨리 캠핑하러 가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고 싶네요. (문성민)" 심플한 룩으로 보이지만, 액세서리와 소품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뻔하지 않은 액세서리로 매치를 하면 꽤 위트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홍진희)" "평소 아메리칸 빈티지나 오리지널을 복각한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특히 소재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은 여행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잡다한 소품과 옷 등을 넣을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수납공간이 많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건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문성민)"

SUNGLASS **GENTLE MONSTER**
TOP **BEAMS**
BOTTOM **VINTAGE**
BAG **BRADY BAGS**
SHOES **NIKE**

CAP **EBBETS FIELD**
SUNGLASS **RAYBAN**
TOP **MILITARY**
BOTTOM **NIGEL CABOURN**
BAG **ANATOMICA**
SHOES **NEWBALANCE**

10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연상하게 하는 룩

이상훈 **온라인마켓 운영, 유튜버(섬띠)** @seomtti

와일드한 부시크래프트 캠핑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상훈'.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을 찾았다. "부시크래프트 캠핑이 일반 캠퍼들이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아웃 캠프를 통해 그러한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 와일드 캠핑을 하는 캠퍼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연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발길이 멈춘 자연을 찾아 캠핑하다 보니, 내구성이 뛰어난 아이템에 자연스레 손이 갑니다.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어느덧 저희 체형과 생활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손때 묻은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것이 곧 개인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11

리얼트리 패턴이 인상적인 와일드 캠퍼 룩

함상근 **목수** @hamsanggeun84

목공, 수렵, 캠핑, 양궁, 국궁 등 뭐든지 직접 만드는 목수 '함상근'. 와일드 캠핑을 고아웃 캠프에 참여하는 캠퍼들과 교류하기 위해 찾았다. "캠핑의 시초는 생존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편리함이 익숙한 요즘 시대에 다소 낯선 부분이지만, 저와 같이 독특한 문화를 알리는 사람도 필요하죠. 모든 걸 손으로 직접 만들고, 구하기 때문에 과정은 길 수 있으나 이를 통해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죠."

"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수렵과 사냥을 즐깁니다. 캠핑 페스티벌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냥을 위한 복장을 완벽히 갖추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염두해두고 룩을 연출했습니다. 실제 자연에선 옷의 색과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움직임이 많은 와일드 캠핑에서 신축성이 뛰어난 옷은 꽤 도움이 된다. 험난한 지형과 자연환경에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의 선택도 중요하다.

2023 15TH GO OUT CAMP
CAMPERS PARADISE

어디서든 나만의 공간이 된다? 마치 집을 옮겨 놓은 듯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부터, 전 세계에 몇 안되는 희소성 높은 텐트까지, 고아웃 캠프에서 만난 특별한 사이트를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KHAN-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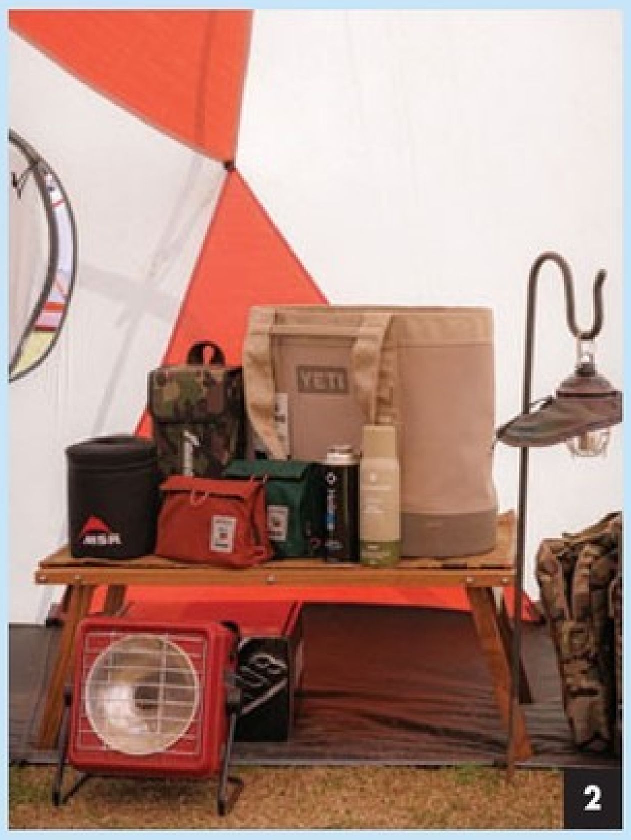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구성한 캠프 사이트

김태용 **자영업** @it.is.what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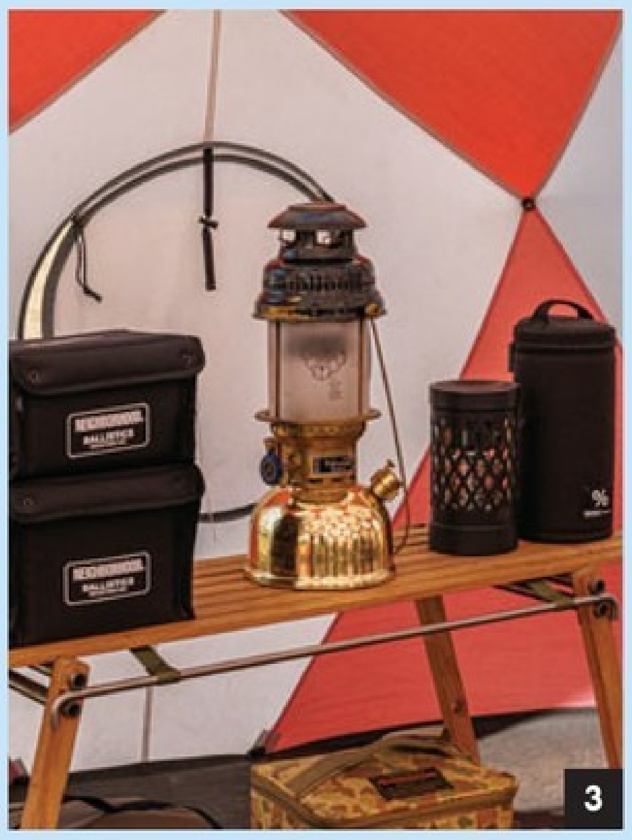
현재 프리랜스 디자이너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에는 캠핑, 백패킹,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아웃도어 마니아. "평소 다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덧 또 다른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번 고아웃 캠프에는 특별한 돔 존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어, 평소 관심이 많던 희귀한 돔 텐트를 직접 보기 위해 친한 지인들과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텐트 **SLINGFIN BFD**
테이블 **THE ARTH, HELINOX X NEIGHBOR HOOD, 38EXPLORE**
체어 **KERMIT, BALISTICS X BACK DROP LEATHERS**
체어스킨 **BACK DROP LEATHERS**
랜턴 **PETROMAX, WICK, BARENONES, DIETZ, HELINOX X NEIGHBOR HOOD X CLAYMORE**
랜턴 쉐이드 **COLONISTA, HELINOX**
수납박스 **NATAL DESIGN**
수납파우치 & 백 **NATAL DESIGN, THE100%, BALISTICS, THE NORTH FACE, NEIGHBOR HOOD**
컵 **TARP TO TARP**
스토브 **SNOWPEAK**
파일드라이버 & 셸프 **CHILLINGCAMPEEPS, SANZOKU MOUNATAIN**
스탠드 **WANDEROUT, WOOKINOKI**
야전침대 **HELINOX X NEIGHBOR HOOD**

1



2



3

4

1 평소 백패킹 시 자주 사용하는 사마야 텐트, 돔 텐트 안에 색다른 사이트를 구성했다. **2** "유니프레임 웜히터는 10년 전 처음 캠핑을 시작하면서 구매한 장비로 많이 낡았지만, 지금까지도 한번도 장비 변경 없이 4계절 내내 거의 함께하는 나의 애착 기어입니다." **3** "랜턴은 6~7년 전 우연히 들린 캠핑숍에서 저렴한 금액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되어 수십 만원에 중고거래가 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무드램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셸프에 가지런히 놓인 기어와 수납가방. 어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희귀한 아이템이다.

ONLY ONE,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캠프 사이트

허욱 허쉬캠프(캠핑장)운영 @camper_huckleberry

"허쉬캠프(캠핑장)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자연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영상으로 기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점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아웃 캠프는 돔 존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돔 텐트 100 여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과 영상을 담을 수 있었고, 이 때를 종종 회상하고 있습니다."

텐트 **SLINGFIN KAHILTNA DOME SPRINGBAR COMPACT**
테이블 **H&O, ROUGHNATURE MULTI TABLE**
체어 **URBAN BLIND DESIGN, KERMIT CHAIR**
랜턴 **GOAL ZERO, COLONISTA CONPE10**
수납박스 **SNOWPEAK SHELF CONTAINER50, 25**
컵 **URBAN BLIND DESIGN SIERRA CUP**
스토브 **ROUGHNATURE MONSTER STOVE**
파일드라이버 & 셸프 **MORNINGCAMP**

1 "같은 음식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정은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캠핑에서의 칵테일 한잔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2 어반 블라인드 디자인의 레더 쿨러 커버.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의 컬러가 변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3 독특한 구조의 코로니스타 오리지널 쉐이드. "어디서든 아름다운 밤을 만드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4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난로인 이와타니 카세트 난로. "미니멀하게 캠핑을 즐길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어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1

2

3

화이트 베이스에 포인트 컬러를 더한 에센셜 캠프 사이트

윤상범 (아빠) @7rkq_ **| 윤지훈** (아들) 초등학생

가족과 단란하게 캠핑 하는 것을 즐기는 캠퍼. "사진과 글로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어요. 책을 매개로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 시절 옷과 용품들을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보관해주셨어요. 1994년, 시골 친구들과 함께 멀리 강원도 고성까지 갔던 스카우트 어린이가 커서 아빠가 됐고, 어느새 제 어린 날의 옷이 딱 맞을 만큼 아들이 훌쩍 자랐네요. 알록달록 돔 텐트 존에서 아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그 시절, 함께 한 스카우트 어린이 중 한 명이 김군(@kim.goon)이기도 하고요. (하하)"

텐트 **SLINGFIN ONEUP**
테이블 **SNOWPEAK EXTENSION IGT**
체어 **SNOWPEAK LOW CHAIR**
랜턴 **SNOWPEAK GIGAPOWER BE LANTERN**
스토브 **SNOWPEAK GIGAPOWER LI STOVE**
파일드라이버 & 셸프 **SNOW PEAK PILE DRIVER, SHELF CONTAINER 25**

1 캠핑, 피크닉 때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시골집에 다녀올 때면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담아와서 어머니 생각도 나곤 합니다." **2**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용으로 출시한 STANLEY STEEL GROWLER 1.9. "캠핑장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애용하고 있습니다." **3** 최고의 화력이 장점인 SNOW PEAK GIGAPOWER LI STOVE

1

2

3

4

어디서든 즐기는 나만의 캠프 미니 바

조진주 **회사원** @pearl_syndrome

"캠핑, 여행을 좋아하는 회사원이며, 취미로 디제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캠퍼라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인 고아웃 캠프를 모를 수가 없죠. 캠핑을 시작하고, 처음 고아웃 캠프를 알았고, 처음 캠프를 참여했을 때 그때의 추억과 색다른 경험은 여전히 잊히지 않고 있어요."

텐트 **BACKCOUNTRY ORISON ULTIMATE**
타프 **URBANFOREST HEXA TARP**
테이블 **COMMA NINE CANION X**
체어 **PLAN40 GROWING CHAIR**
랜턴 **CLAYMORE 3FACE, KZM OUTDOOR GILBERT LANTERN, GOAL ZERO, BLACKDOG**
수납박스 **THOR CONTAINER**
스토브 **MINIMALWORKS VULCAN**
파일드라이버 & 셸프 **HASVIK**

1 불멍을 즐길 때 사용하는 미니멀웍스 불칸 화로대. "설치와 조립이 간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멀웍스 아이언쉘프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2** 생일선물로 받은 위스키 디스펜서. "리모컨으로 모드 설정이 쉽고, LED 불빛으로 인해, 아늑하고 따뜻한 무드의 나만의 캠프 바를 만들어줍니다." **3** 셀타티코 툴박스. "텐트 설치 시 망치와 팩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카모플라쥬 패턴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 "손전등 기능도 있어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콤팩트한 캠프사이트

이홍년, **파이낸셜 플래너** @hong_ma90_bjj

취미부자로 평소에는 주짓수, 웨이트 트레이닝, 낚시, 프리다이빙, 등산, 백패킹 등 1년을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살고 있는 금융업종사자. "하고싶은 걸 경험해야 하는 철학을 갖고 있어 본업보다 취미 활동으로 더 바쁠 때가 많습니다.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번 고아웃 캠프는 구미에서 개최하여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브랜드를 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텐트 (왼쪽부터 순서대로)
MAKETOHIKE DIA2,
AWESOME HOLIDAY 1.5P,
STARUS-TEX OPTIMADOME,
POLERSTUFF TWO MAN

타프 **HILLEBERG**
테이블 **KOVEA**
체어 **HELINOX, NEMO EQUIPMENT**
랜턴 **BRIGHTON, CAMBUG**
수납박스 **STANLEY, KOMAX**
스토브 **KOVEA ALPINE MASTER**

1 스탠리 아이스박스와, 워터저그. "시원한 음료와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2** 니모 문라이트 리클라이닝 체어.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는 동반의자 입니다. 가볍고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아이스박스 겸 수납박스. "4계절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갈치 낚시를 갔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새벽까지 낚시를 밤샘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INTO THE WILD! 부시크래프트 캠프 사이트

이상훈 **온라인마켓 운영** @seomtti | **함상근** **목수** @hamsanggeun84

텐트팩 까지 직접 만드는 부시크래프트 캠퍼. "국내 최대의 캠핑 패스티벌인 고아웃 캠프에 참여하여 다른 캠퍼분들과 교류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이상훈), 평소 목수로의 삶을 살면서 수렵, 낚시, 양궁, 국궁을 취미로 하는 와일드 캠퍼. "와일드 캠핑을 많은 캠퍼분들에게 알리고자 고아웃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텐트 **BUNDOX SOLO BASE, BUNDOX SOLO TIPI TENT, POLISH ZELTBAHN**
타프 **DD TARP**
테이블 **HANDMADE WOOD TABLE**
체어 **LOW CHAIR**
수납박스 **HANDMADE**
랜턴 **GERMAN OIL LANTERN**
FIRE PLACE LUETTBIDEN FIRE CROWN
컵 **HANDMADE KUKSA CUP**
파일드라이버 & 셀프 **HANDMADE**

1 BEAR ARCHERY 1969 CODIAC HUNTING BOW HANDMADE QUIVER **2** HANDMADE 구리 횃불 by 야외인 **3** HANDMADE VIKING COOKINGPOT **4** LUETTBIDEN FIRE CROWN, LUETTBIDEN BUSH PAN **5** 천비 곡환도, H.ROSELLI UHC HUNTING KNIFE, BRASS KETTLE, GRANSFORS BRUK SMALL FOREST AXE

1

2

3

따뜻한 컬러로 매칭한 텐트 캠프 사이트

박준호 **회사원** @_babduno

"평일엔 회사원(품질)으로, 주말에는 캠핑 및 골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캠퍼에게는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은 행사인 고아웃 캠프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봄꽃 흩날리는 이 순간을 즐기다 가고 싶네요. 다른 캠퍼들의 사이트도 눈요기 했습니다."

텐트 **CAMPINGKAN OAK DOME S, BLOW SHELTER**
테이블 **SNOWLINE MADRID (L)**
체어 **MADDOGCAMP RELAX CHAIR**
랜턴 **CANDLELIGHT**
수납박스 **CARGOBOX**
아이스박스 **ALPICOOL**
아이스박스 커버 **DMSTUDIO**

1 캠핑 시 애용하고 있는 스노우피크 워터프루프 유닛 기어백. "조금 무겁지만,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전부 스노우피크로 구매하고 싶네요." **2** "IGT/플레이트 버너가 사고 싶어 가격을 속이고 구매 하였습니다. 결국 캠핑 동반자님에게 들켰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3** 첫 입문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S-FAN 타프팬 화이트.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닮은 캠프 사이트

황지환, 차유나 **회사원** @poohpooh_camping

캠핑과 낚시, 여행을 즐기는 낭만 캠퍼. "캠핑과 축제에 관심이 많고 참석을 많이 하는데, 2022년 코로나 이후 고아웃 캠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약실패로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 고아웃 캠프에는 예약에 성공하여 참여하게 되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텐트 **SPRINGBAR**
타프 **PITCH ORIGIN**
테이블 **SNOWPEAK**
파라솔 **BANANA CREAM**
체어 **BANANA CREAM**
화로대 **PETROMAX**
셸프 **ON:PING**

1 불멍을 즐길 때 사용하는 미니멀웍스 불칸 화로대. "설치와 조립이 간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멀웍스 아이언쉘프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2** 생일선물로 받은 위스키 디스펜서. "리모컨으로 모드 설정이 쉽고, LED 불빛으로 인해, 아늑하고 따뜻한 무드의 나만의 캠프 바를 만들어줍니다." **3** 셀타티코 툴박스. "텐트 설치 시 망치와 팩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카모플라쥬 패턴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 "손전등 기능도 있어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

3

4

ABUNDANT DAYS OF GO OUT CAMP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15회 고아웃 캠프 프로그램

EDITOR YOO SUNG KIM YOUNG HA **PHOTOGRAPHER** MS-PHOTOGRAPH, KHAN-PHOTO, VAGABONDPHOTOGRAPHY

WHO'S NEXT STAR?

명실상부 고아웃 캠프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고아웃 캠프 노래자랑'. 이번 15회 고아웃 캠프 노래자랑에도 관전의 즐거움은 남달랐다. 고아웃 캠프가 매회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발군의 실력자들이 등장해 보는 사람들로도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연령 불문, 장르 불문 다양한 끼를 가진 가수들을 바라보는 재미도 덤. 상품 또한 매우 푸짐해 참가자들은 더욱 욕심이 나기도 했을 터. 도메틱(DOMETIC)의 냉동쿨러, 일리 카페의 커피머신 등이 주인을 기다리며 이 경연을 빛내주었다.

SAFETY FIRST, SAFETY SECOND!

캠퍼라면 누구나 화기를 다루게되고, 이 때 늘상 '안전상의 문제' 혹은 염려가 수반된다. 맥스 부탄은 고아웃 캠프 때마다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닌, 화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적절한 팁을 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맥스부탄은 안터져요!'라는 외침 소리는 아마 여러 차례 고아웃 캠프를 참가한 이들이라면 익히 잘 아는 메시지다. 즐거운 캠핑라이프를 위해 첫 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든든한 시간이었다.

DIMITO x GO OUT CAMP WELCOMING BAG

15회 고아웃 캠프 웰컴킷을 담아서 증정하는 백은 디미토(DIMITO)의 패커블 숄더백으로 선정되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캠퍼들에게는 충분히 '탐날만한' 가치가 큰 제품. 단순히 캠프 기간에서의 사용 뿐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실용적인 면까지 고려해 준비한 디미토의 아이디어가 녹여져있다. 숄더 끈 끝에 견착된 카라비너는 '아웃도어 피플'을 위해 디미토가 반영한 존중과 배려 아니었을까.

OVERFLOWING LOVE FROM BR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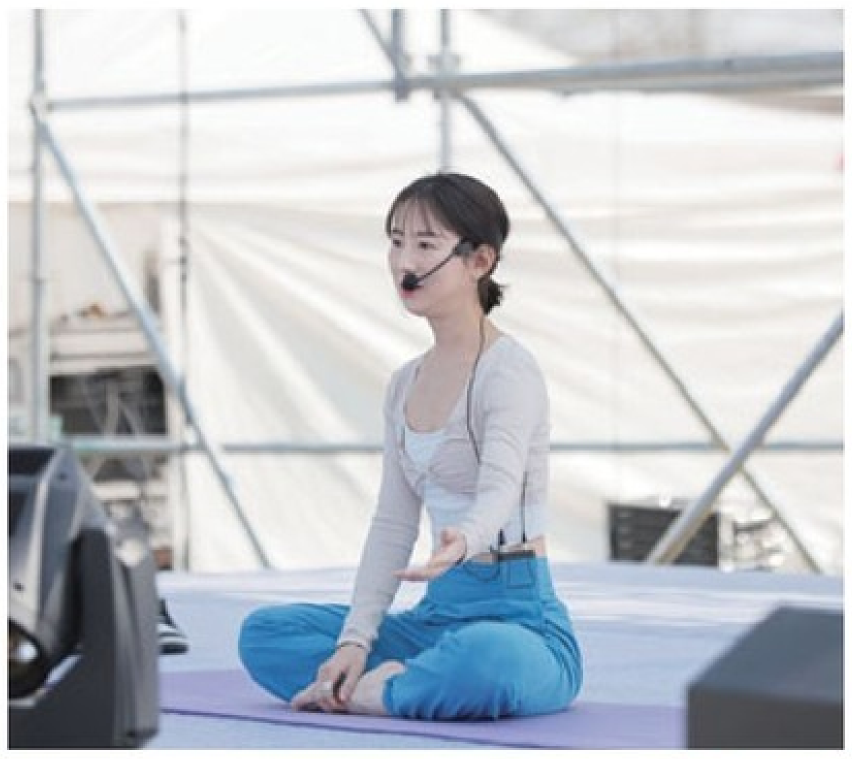
디미토의 웰컴백 안에 들은 구성품은 제임슨 코스터, 하이네켄 무알콜 맥주캔, 일리카페와 맥심 커피, 디오디 도플갱어 장갑, 하림 펫푸드 2종, 더미식의 3종 즉석 음식, 언파 차차 치약, 테 선블럭 크림, 제로그램 반다나, 지그 텀블러 등 다채로웠다. 한정 수량임에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바프(HBAF)의 레디백 안의 인기제품 3종 세트도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었고, 청정원의 육수팩과 '안주야 3종 세트', 각종 양념과 조미 상품은 실제로 사이트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캠퍼들 손에 들려있었다. 멋 보다는 실용적인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직감하게 된 '역대급' 웰컴킷이었다.

GRILLIN' NIGHT

청정한 노르웨이 자연에서 온 '씨푸드프롬노르웨이'는 고아웃 캠프 첫째 날 밤, 2023년 첫 캠프의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비비큐 타임을 진행했다. 독보적인 맛의 노르웨이 연어는 물론 잘 손질된 고등어까지 양껏 준비되어 약 50여명 이상 모인 캠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기존 육고기로 그릴에서 구울 때와 조금 다르게 생선류도 훌륭한 야식이 될 수 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MORNING YOGA SESSION

지쳐있는 일상과 도시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고아웃 캠프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는 '휴식'이 주는 의미가 꽤나 큰 편이다. 매 고아웃 캠프가 둘째 날 아침에 마련하고 있는 '요가 세션'은 그런 의미에서 캠퍼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무대를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이 일사분란하게 매트를 깔고 요가 강사가 리드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면서 본격적인 하루를 여는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풀리는 것은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 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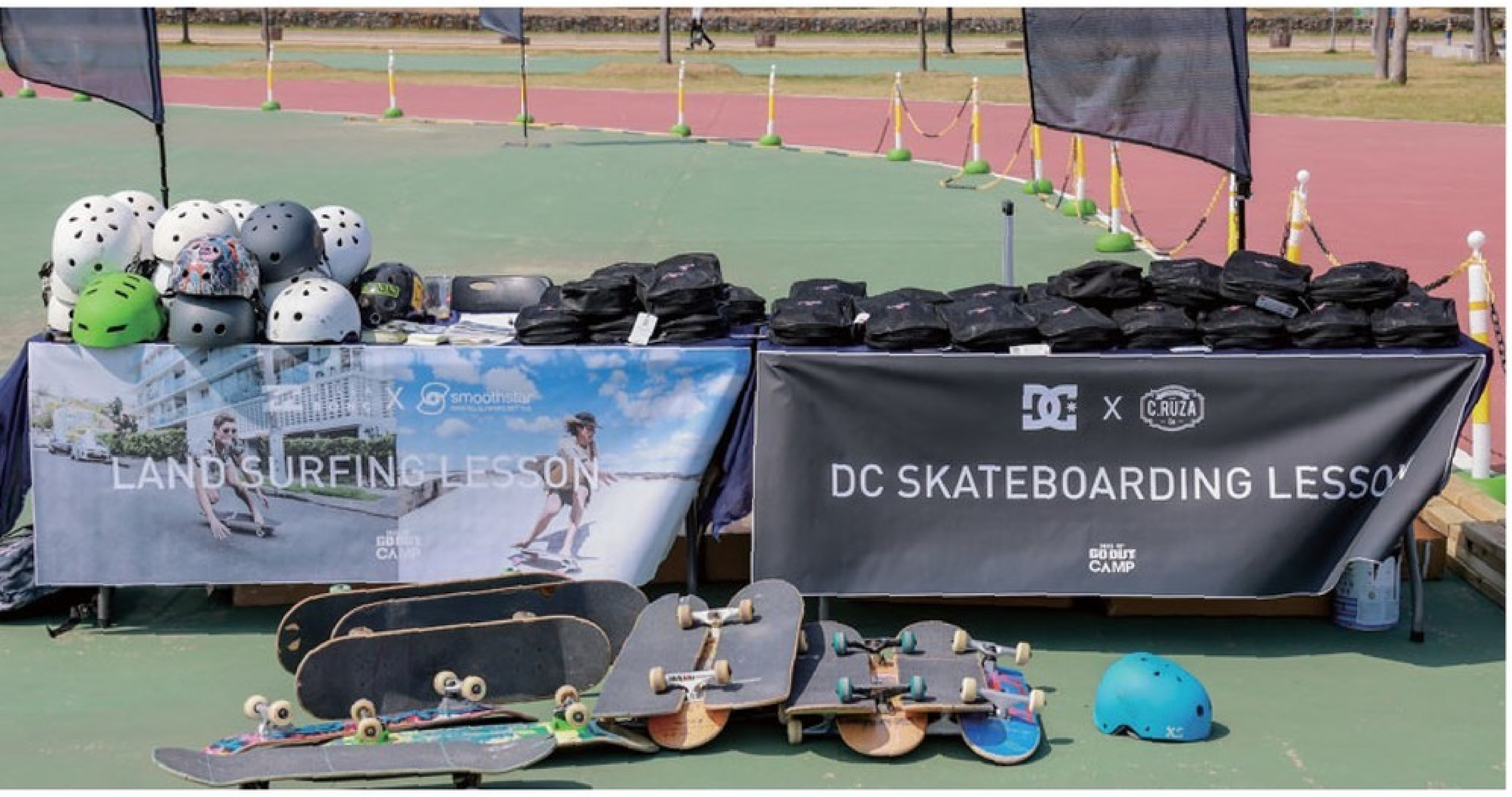


RELAXATION ON THE RIVER

세계 최초의 접이식 카누 브랜드 '마이카누(MY CANOE)'는 고아웃 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카누 체험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틀간 사전 신청을 통해 시간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이카누의 카누 체험 프로그램은, 낙동강변을 따라 카누를 직접 저으며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

FUN FOR ALL OF KIDS

고아웃 캠프를 방문하는 캠퍼들은 연인으로 오다가 가족이 되어 찾기도 한다. 점점 '패밀리'로 구성되어 찾아주는 캠퍼들의 자녀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존을 마련하였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아이들은 시간 가는줄 모르고 뛰어놀았다.
혹여나 노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불안해할 부모들을 위해 현장에서는 안전 요원이 배치되었고, 다행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어바운스 놀이터로는 아이들의 즐길거리가 충족되지 않는 법. 버블쇼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몽키쇼'를 준비했고 온몸에 버블을 묻힌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시간을 간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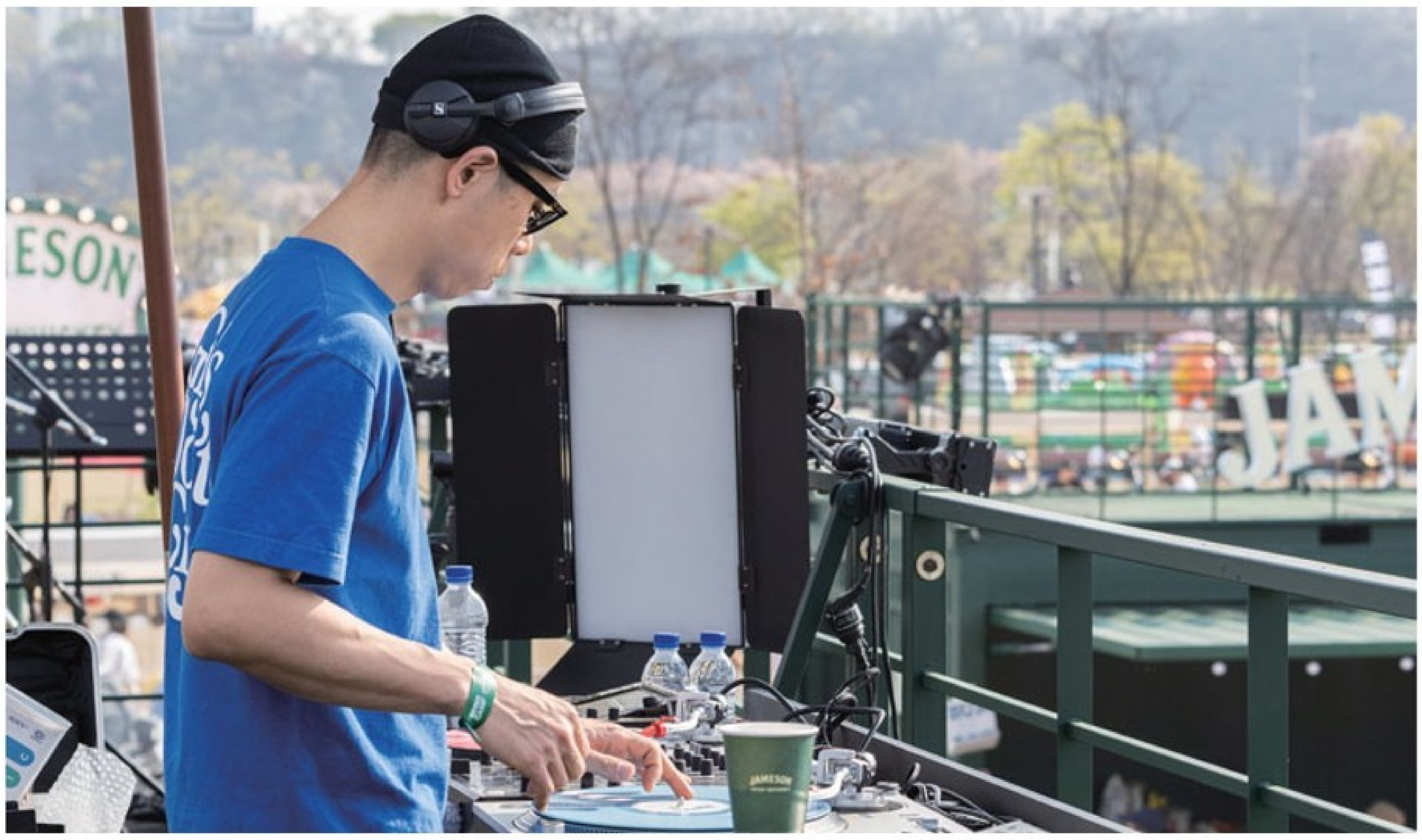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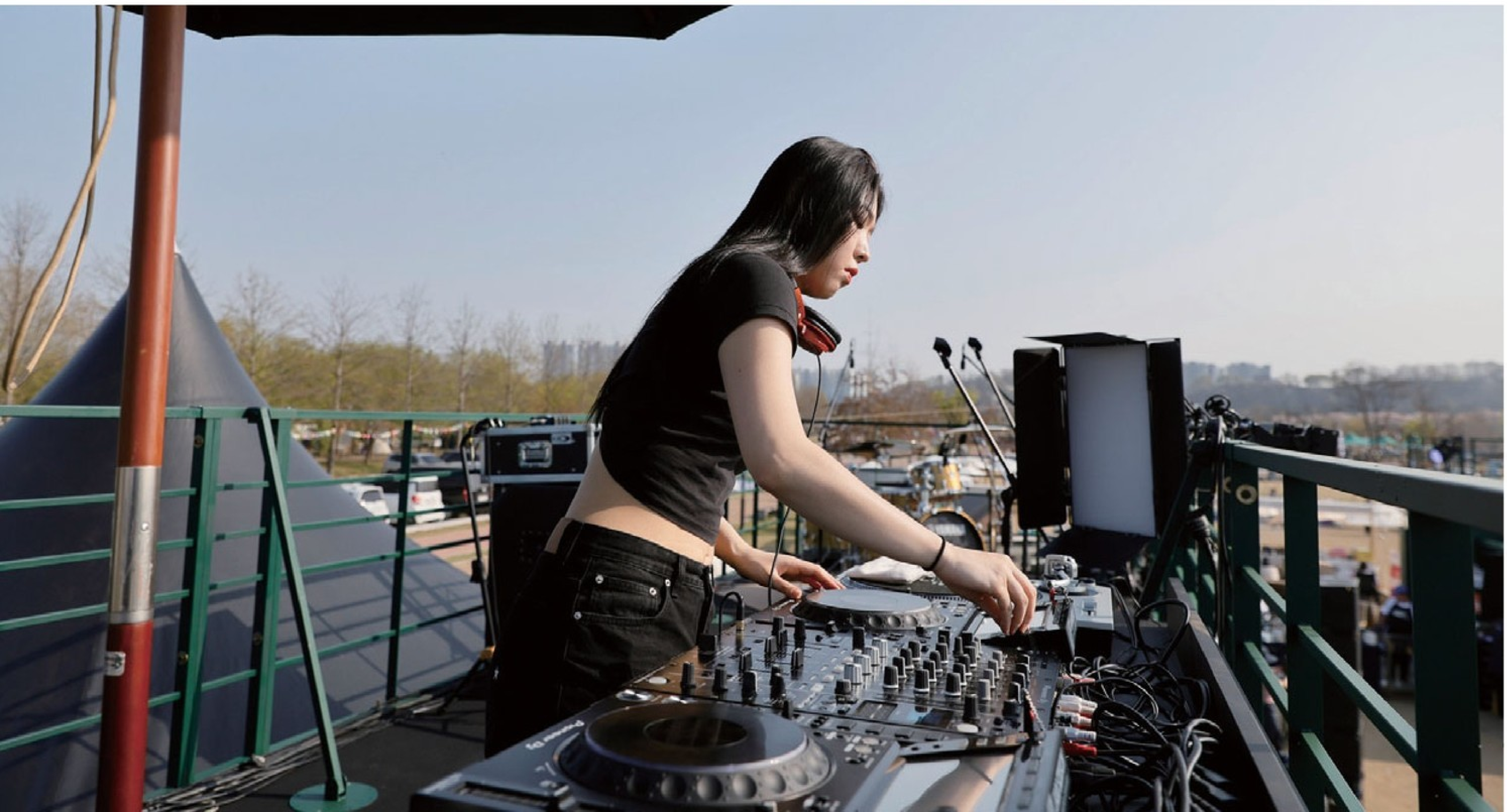
SKATE ALL DAY LONG!

스케이트보딩을 대표하는 브랜드 디씨슈즈(DC)는 브랜드 부스 외에 별도의 특설 램프를 시공해 스케이트보드 클래스를 운영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부담없이 기본기를 배우고 탈 수 있는 클래스는 고아웃 캠프 내에서도 다이내믹한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열띤 관심을 받았다.

DAYTIME CHILL WITH JAMESON

뜨거운 햇살, 깊은 풍미의 위스키 하이볼, 그리고 그루브한 음악. 이 3종 세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역시 제임슨 스테이지였다. 지난 13회 고아웃 캠프 당시 첫 선을 보였던 제임슨 위스키는 양양과 태안을 거치며 고정된 팬층을 두텁게 확보하는데에 성공했고, 구미에서도 그들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력파 디제이들이 준비한 플레이에 '귀호강'하는 시간은 아마도 잊지못할 순간이 되어줄 것 같다.





NIGHT'S VIBE WITH JAMESON

어느 순간부터 제임슨 스테이지는 '메인 무대급 헤드라이너'의 아티스트들로 채워져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15회 고아웃 캠프 제임슨 스테이지의 타임테이블이 공개된 몇 주전, 많은 캠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선우정아를 비롯해 래퍼 넉살과 밴드 까데호의 라이브 세션, 쏠의 감미로운 알앤비 메들리, 수민의 강렬하고 에너제틱한 무대는 제임슨 존 주변의 많은 캠퍼들을 불러모았다. 깊어가는 밤, 고아웃 캠프에서 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추억도 더욱 깊어져 갔다.

LOVE-JAMESON PLAYERS ARE KILLING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처음에는 주변 눈치를 보며 쑥쓰러워하던 캠퍼들도 하나 둘 제임슨 하이볼 잔을 들고 모인다. 뮤지션들과 관객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단지 '무대위'와 '그라운드'라는 차이만 있을뿐, 음악으로 호흡하는 체감상 거리는 꽤 좁혀져 있었다. 역시 '잘 노는' 관객들이 아티스트를 신나게 만들고 춤추게 하는 것. 제임슨 스테이지의 시작과 끝은 제임슨 하이볼을 사랑하고 음악에 열광하는 캠퍼들이 주도했다.

WE CALL THIS, ‘JAMESON NIGHT’

제임슨 스테이지는 해가 지면 형용할 수 없는 특유의 들뜸과 설렘의 공기로 가득 찬다. 이미 태안에서 열렸던 14회 고아웃 캠프 당시 여러 캠퍼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마치 애프터 파티를 수개월 기다리고 준비해온 것처럼 낯익은 ‘댄서 캠퍼’들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각자의 춤 실력을 뽐내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림은, 이 곳이 바로 ‘제임슨 나잇’의 중심임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디제이 말립의 시티팝과 올드 팝송, 가요와 힙합을 넘나드는 믹스셋도 한몫했다.

SUPERB SONGS MEDLEY

“폴킴이 온다고?” 15회 고아웃 캠프 헤드라이너 발표 영상을 공개했을 때 대다수가 가진 반응이었다. 감성 가득한 싱어송라이터 폴킴이 무대에 오르자 일제히 모든 관객은 소리를 지르며 뜨겁게 환영했다. 흡입력 막강한 분위기 속에 폴킴은 자신의 히트 넘버를 가열차게 이어갔고 ‘커피한잔 할래요’ 등의 곡이 나올 때면 관객들은 밤하늘과 폴킴의 보이스를 오버랩하며 서서히 스며들었다. 폴킴은 역시 폴킴이었다. 이쯤 되면 16회 고아웃 캠프의 메인 아티스트는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해질 지경이다.

"WHO WE'RE? DYNAMIC DUO!"

분위기 띄우는데 '힙합 라이브'만한 장치가 또 있을까? 디제이 프리즈와 함께 무대에 오른 다이나믹듀오는 이전 고아웃 캠프에도 방문해 폭발적인 피드백을 가져갔던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다. 십수년 넘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며 그간 발표했던 수많은 히트곡을 모두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대표곡 위주의 세트 플레이로 관객을 춤추게 만들고 흥겹게 해주었다. 유쾌한 그 둘은 중간 중간 여유로운 멘트도 곁들이며 관객과 진정으로 하나되는 바이브를 느낄 수 있게 했다.

BEAUTIFUL EXPLOSION NIGHT

봄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맑고 밝다. 마치 하늘을 캔버스 삼아 형형색색의 물감을 흩뿌리듯 약 15분간 펼쳐진 불꽃놀이 타임은 가히 장관의 시간이었다. 스타트 음악과 함께 터지기 시작한 불꽃놀이는 무대 주변의 관객들 뿐 아니라 올빼미, 패밀리 존에 있던 많은 캠퍼들의 육안으로도 충분히 보일만큼 크고 거대했으며 아름다웠다. 불꽃놀이는 모든 이들에게 '추억의 잔상'이라 했던가. 고아웃 코리아는 이번 15회 캠프가 성료된 후 고해상의 불꽃놀이 이미지를 저장하며 나름대로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어 흐뭇했다.

3 LUCKY CAMPERS

경북 구미시와 고아웃코리아가 함께 준비한 제 15회 고아웃 캠프의 행운권 추첨은 MC 프라임의 재기발랄한 멘트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과연 상품들은 어떤 캠퍼가 가져가게 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무대 뒤 대형화면을 통해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진 않을까' 하는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1등에게는 140만원 상당의 텐트, 2등은 130만원 상당의 침낭을 증정받았고, 3등에게는 120만원 상당의 다운재킷이 제공되었다. 부디 고아웃 캠프에서 '럭키'하게 얻은 기운을 가지고 2023년 행운만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ENJOY SPECIAL LANDSCAPE

고아웃 캠프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열기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15회 캠프 현장은 장소가 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멋진 뷰를 확보하고 있어, 많은 캠퍼들이 열기구 탑승을 위해 '오픈런'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쨍한' 태양이 꼭대기에 있던 한낮의 오후보다 어스름한 저녁 즈음 열기구 위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산과 강, 지면에 충만하게 채워진 수백개의 텐트를 보는 재미는 직접 열기구에 타보지 않았다면 아마 모를 것이다.

BRANDS REVIEW

BRAND ZONE

2023년 다시 시작된 제 15회 고아웃 캠프 또한 다양한 브랜드가 함께 캠프를 빛내주었다. 아웃도어 의류부터 기어와 액세서리, 눈과 입을 즐겁게 한 F&B, 그리고 레저 라이프스타일까지. 브랜드와 캠퍼들 모두를 '업'되게 만든 그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만나보자.

EDITOR YOO SUNG KIM YOUNG HA **PHOTOGRAPHER** MS-PHOTOGRAPH, KHAN-PHOTO, VAGABONDPHOTOGRAPHY

JAMESON
IRISH WHISKEY
Drink Responsibly

JAMESON

2023-15th
JAMESON
IRISH WHISKEY
GO OUT
CAMP

JAMESON
HIGH BALL
Drink Responsibly
JAMESON
TRIPLE DISTILLED
IRISH WHISKEY
YUM YUM BOX
우리쌀 양송이
크림수프

JAMESON
IRISH WHISKEY
JAME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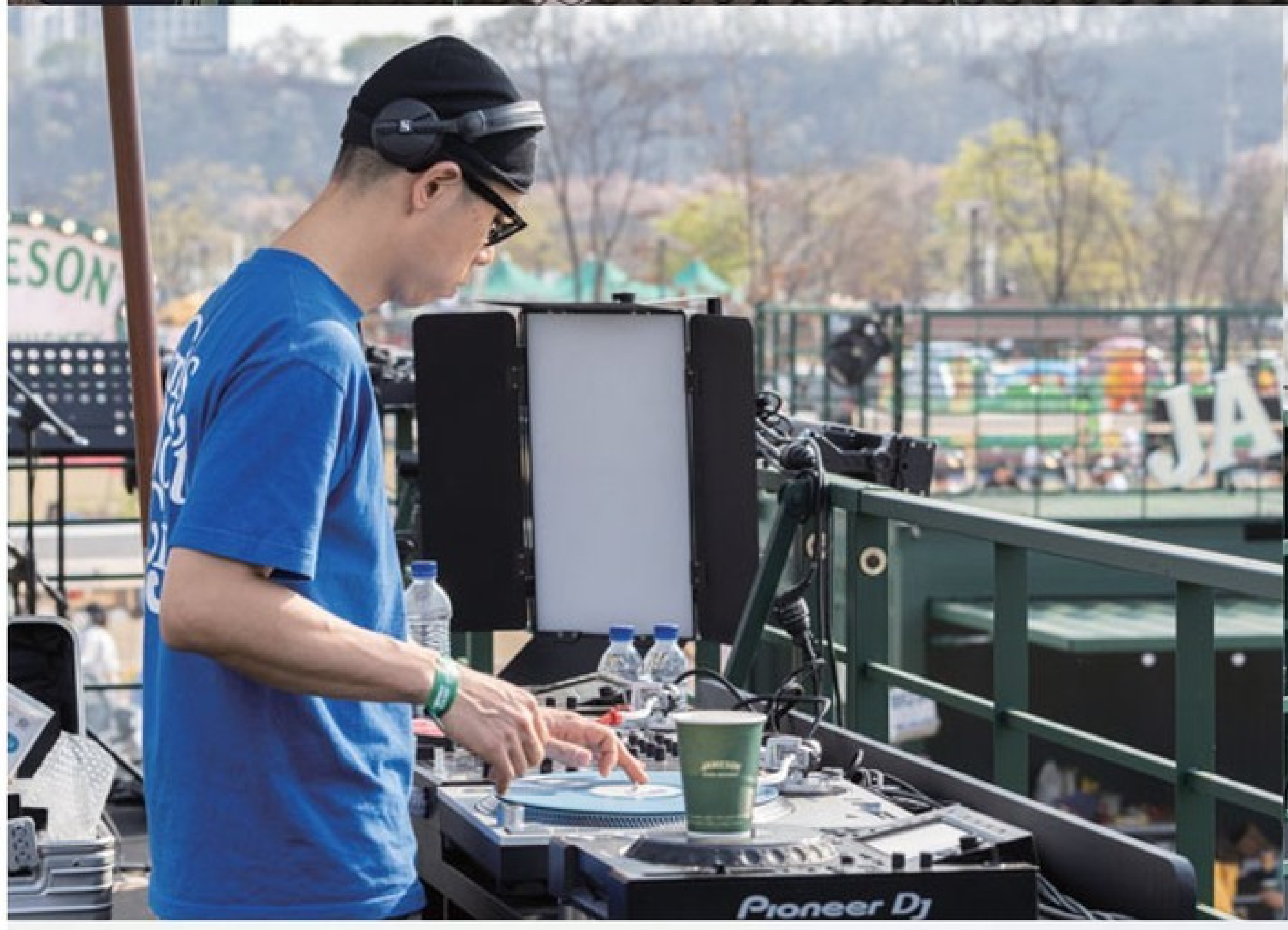
JAME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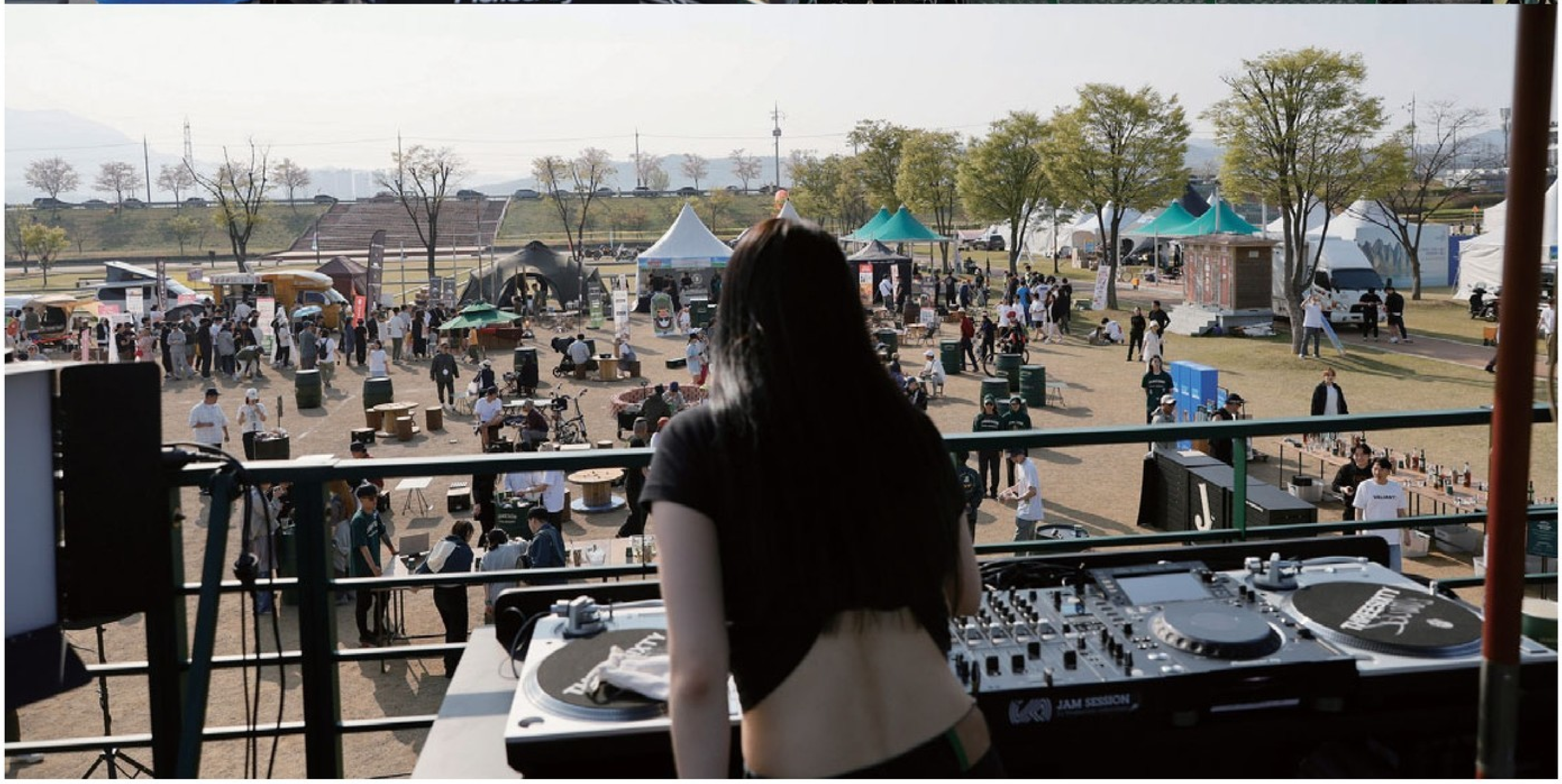
IRISH WHIS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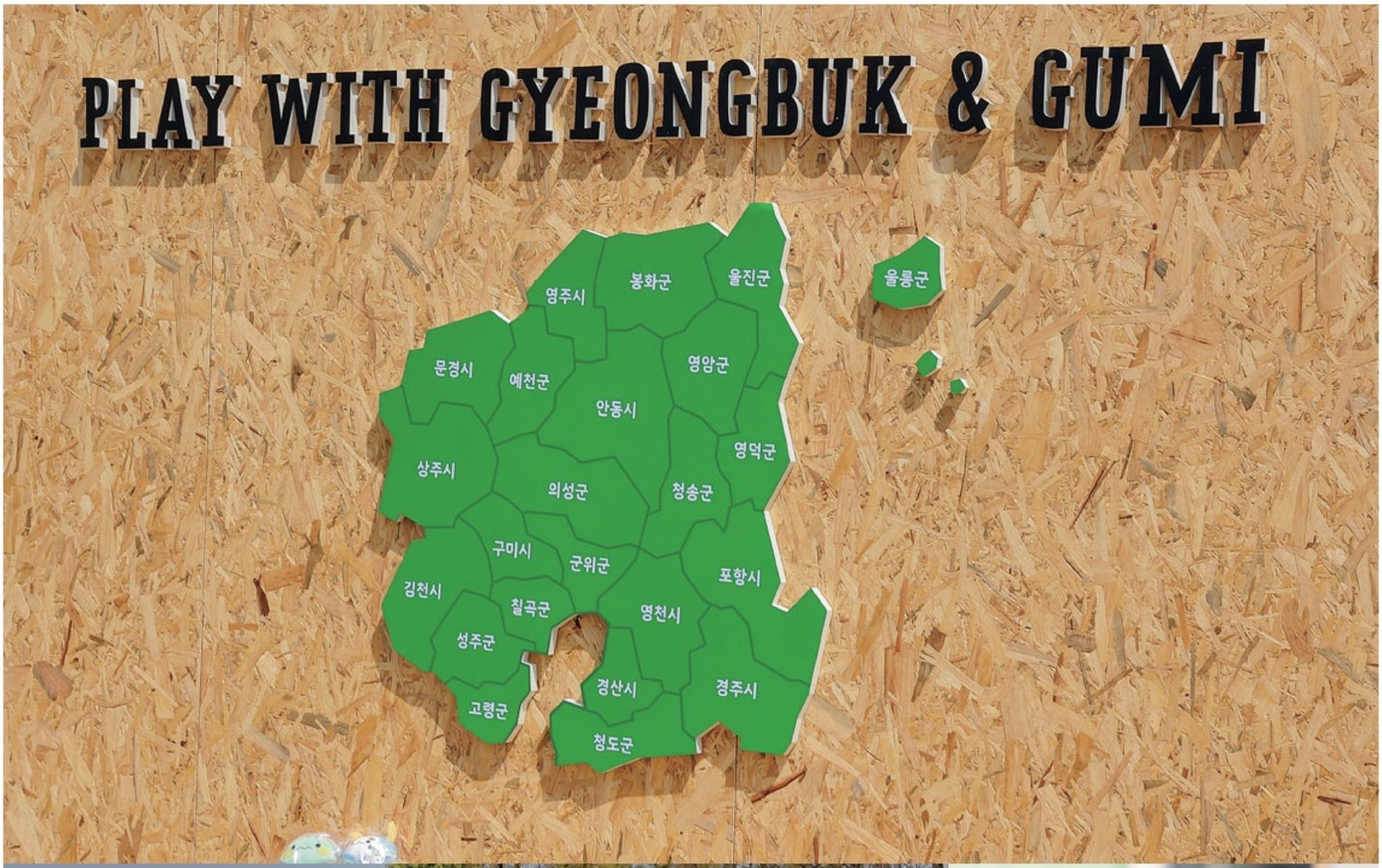
NO.1 아이리시 위스키 브랜드 '제임슨'. 고아웃 캠프를 즐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브랜드 존이기도 한 제임슨에서는 캠핑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위스키와 하이볼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다. 특히, 13회 캠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칵테일 클래스'는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쳤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시간대별로 하이클래스 바텐더의 믹스 칵테일에 버금갈 맛있는 하이볼 메이킹 컴피티션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15회 캠프에서도 제임슨 스테이지를 관망하는 위치에서 최적의 휴식 장소와 함께 소소한 이벤트를 충만하게 즐기는 캠퍼들이 가득했다. 제임슨의 협업 머천다이징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었고,소장 가치 충분한 각종 굿즈를 보는 재미와 군데군데 즉석 게임을 즐기도록 놓여진 젠가 등이 계속 제임슨 존에 체류할 수 있게 만든 힘. 해질녘 '불멍'과 더불어 맛보는 달콤한 마시멜로우.. 캠퍼들은 16회 캠프에서도 제임슨을 만나보길 원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제임슨은 '제2의 작은 뮤직 페스티벌'과도 같았다. BEAUTIFUL DISCO, 방민혁, MIDABEATS, 구민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디제이들이 플레이하는 세션은 비록 밤이 아니어도 별처럼 빛났으며, 낮이었어도 무드가 충만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구미시

'새 희망 구미 시대!' 라는 슬로건으로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도정 및 시정의 방향을 담은 경북 & 구미시의 협력 부스는 기존의 '올드한' 지자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선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구미 지역 구매영수증 행운권 추첨 이벤트'를 비롯해 'PLAY 054'라는 의미에 부합되는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 소개 등 알찬 볼거리들로 캠퍼들을 사로잡았다.

던져라
투호!
이벤트

Heineken

고아웃 캠프의 오랜 친구라 할 수 있는 하이네켄이 재회했다. 하이네켄은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맥주 본연의 맛을 현장감있게 전달하고자 논알콜 0.0과 함께 생맥주, 5리터 케그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캠핑 라이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인 맥주를 하이네켄 부스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캠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행운이었다.

SEAFOOD FROM NO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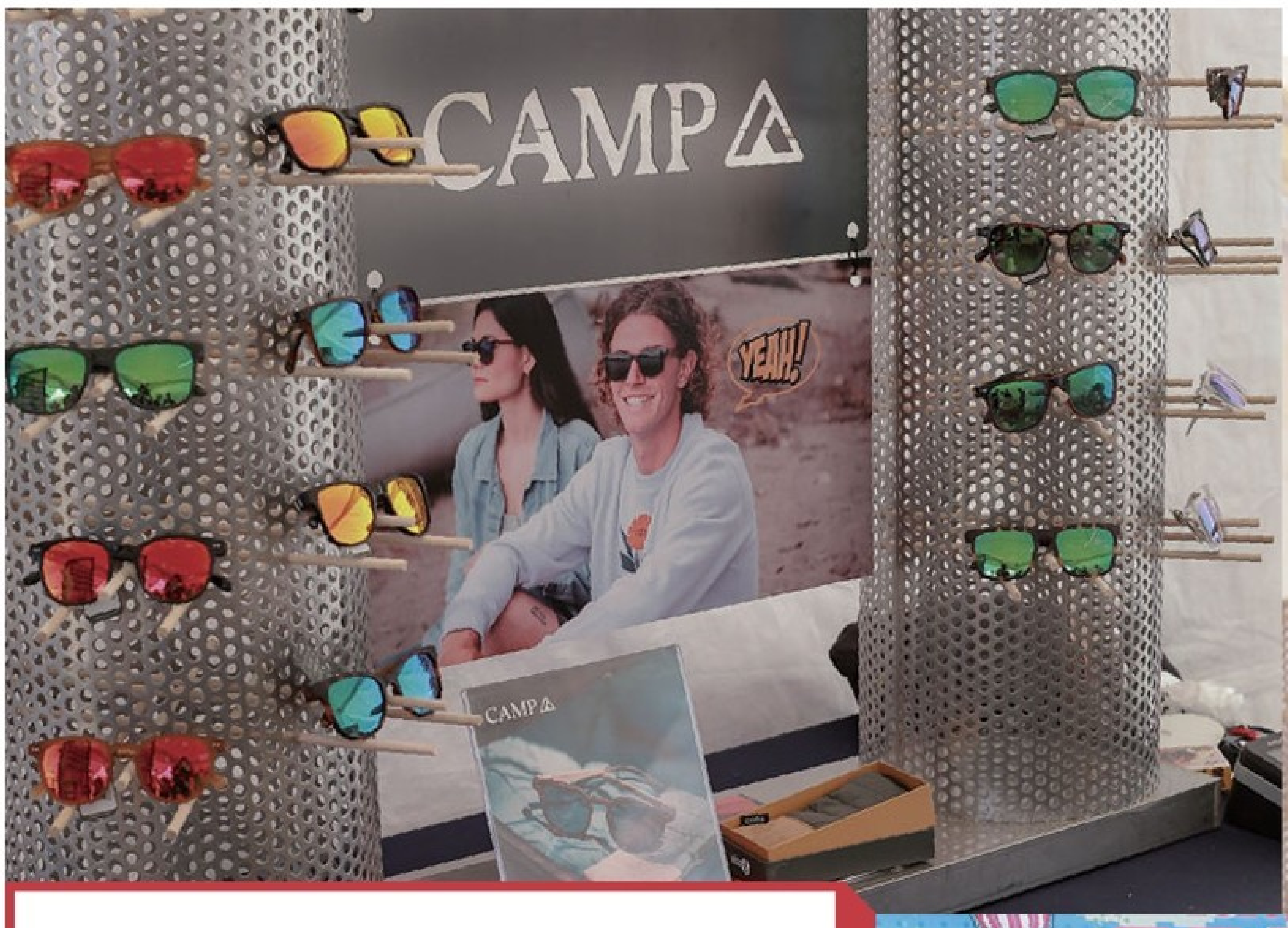
15회 고아웃 캠프에 참여한 브랜드 중 어쩌면 가장 '열일'한 브랜드가 아니었을까? 씨푸드프롬노르웨이는 사상 처음 참가한 고아웃 캠프에서 맛있고 신선한 연어를 비롯해 '그릴 메뉴'로 즐기고 꼬치로 즐기는 등 다채로운 연어 조리법을 준비해 캠퍼들의 눈과 입을 만족시켰다. '노르웨이 연어는 언제나 옳다!'라는 임팩트 넘치는 타이틀은 아마 잊지못할 것. 첫 째날 밤에 진행했던 비비큐 파티도 육고기가 아닌 노르웨어 연어와 고등어가 등장해 신선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고아웃 캠프 참가 브랜드 리스트에 이들의 이름이 등재되었을 때부터 캠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본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오디(DOD) 도플갱어가 드디어 한국 상륙을 기념함과 동시에, 고아웃 캠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디오디만의 크레이지한 감성은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건강한 과일 주스 브랜드 '프루터리 포레스트(FRUiTERiE FOREST)'를 소개했으며 룰렛 이벤트, 솜사탕을 무료로 나눠주는 타임 이벤트 등 푸짐한 콘텐츠로 보답했다.

오피넬, 날진, 클린켄틴, 레더맨, 레드랜서를 전개하고 있는 신명글로빅스의 부스는 15회 고아웃 캠프에서도 함께 했다. '캠핑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텀블러, 실용적이며 안전한 나이프 등의 기어류를 미처 챙기지 못한 캠퍼들은 물론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캠퍼들까지 신명글로빅스의 부스를 분주히 찾았다. 특히 15회 고아웃 캠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클린켄틴 'Rise' 제품과 날진의 새로운 컬러 시리즈를 만날 수 있었고, 40주년을 맞이한 레더맨의 제품을 부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SIGG

언제부턴가 고아웃 캠프 웰컴 기프트에 지그(SIGG) 텀블러가 함께 증정되며, 캠퍼들의 큰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지그. 친환경 철학과 함께 다양한 컬러로 구비된 지그의 텀블러는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특별히 고아웃 캠프 현장 부스에서는 지그의 텀블러 제품을 3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더불어 레이저 각인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었다.



CAMP
LA LOOP

캠핑 라이프 아이템에 선글라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캠프 아이웨어와 액세서리 브랜드 라 루프는 모두 고아웃 캠프 현장에서 구매시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오가는 캠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Kolon Motors

BMW 코오롱모터스는 새로운 계절 봄, 새해 첫 고아웃 캠프에 참가하며 X4, iX3, i4 등을 선보이며 시승과 상담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다. 역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는 '주사위 굴리기 이벤트'. BMW에서 준비한 푸짐한 기프트는 연일 긴 줄을 세우기에 충분했고, 방문객들은 순간을 만끽하며 돌아갈 수 있었다.

PIAGGIO Vespa aprilia MOTO GUZZI

최근의 트렌드에 '모토 캠핑'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베스파와 피아지오, 아프릴리아, 모토 구찌를 직접 시승해보고 구매 상담 프로모션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고아웃 캠프 밖에는 없지 않을까. 더불어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어 캠퍼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Shell

캠핑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고민이 클 경우를 대비해
적재적소한 타이밍으로 캠퍼들을 맞이해준 쉘.
타 제품에 비해 압도적인 출력으로 캠핑은 물론
다양한 야외활동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파워뱅크 제품들을 선보인 쉘의 인기가 상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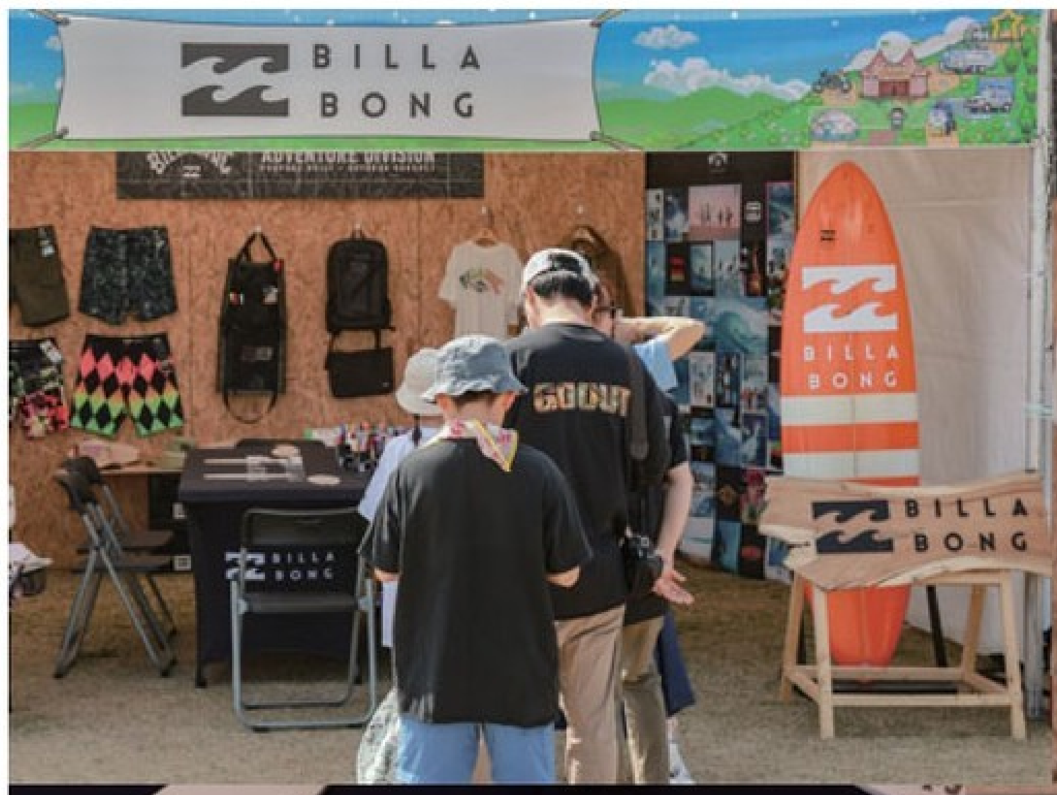
항상 '안전 캠핑'을 위한 캠페인을 강조하며 고아웃
캠프의 오랜 파트너로 자리잡은 맥스부탄. 캠핑의
즐거움과 묘미는 타들어가는 장작과 함께 하는 '불멍'과
맛있는 요리지만, 역시나 편의성을 가진 부탄 가스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이번 15회 고아웃 캠프에서도
맥스부탄은 다양한 제품의 홍보와 함께 연례행사인
'부탄가스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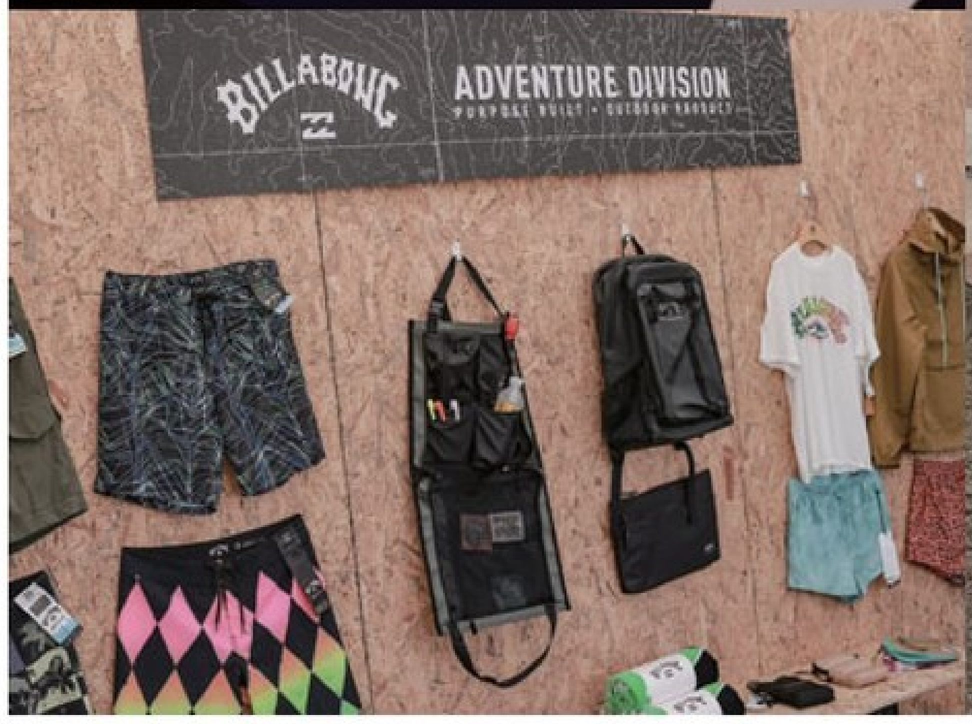
WOOD & BURN
WoodStoveWorks

태안에서 열렸던 지난 14회 고아웃 캠프에서 뜨거운 반응과 인기를 실감해서일까? 하이엔드 캠핑 화목난로 브랜드 우드앤번도 고아웃 캠프를 찾아주었다. 캠프 사이트로 꾸민 부스에 각종 화목난로와 펠릿 난로를 시연하며, 시중에서 접하기 쉽지않은 제품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일교차가 다소 큰 봄 저녁 무렵 우드앤번에서 지핀 캠프파이어 타임은 주변을 머물던 많은 캠퍼들에게 '무제한 불멍'을 제공해 추억을 만들었다.

GRAMI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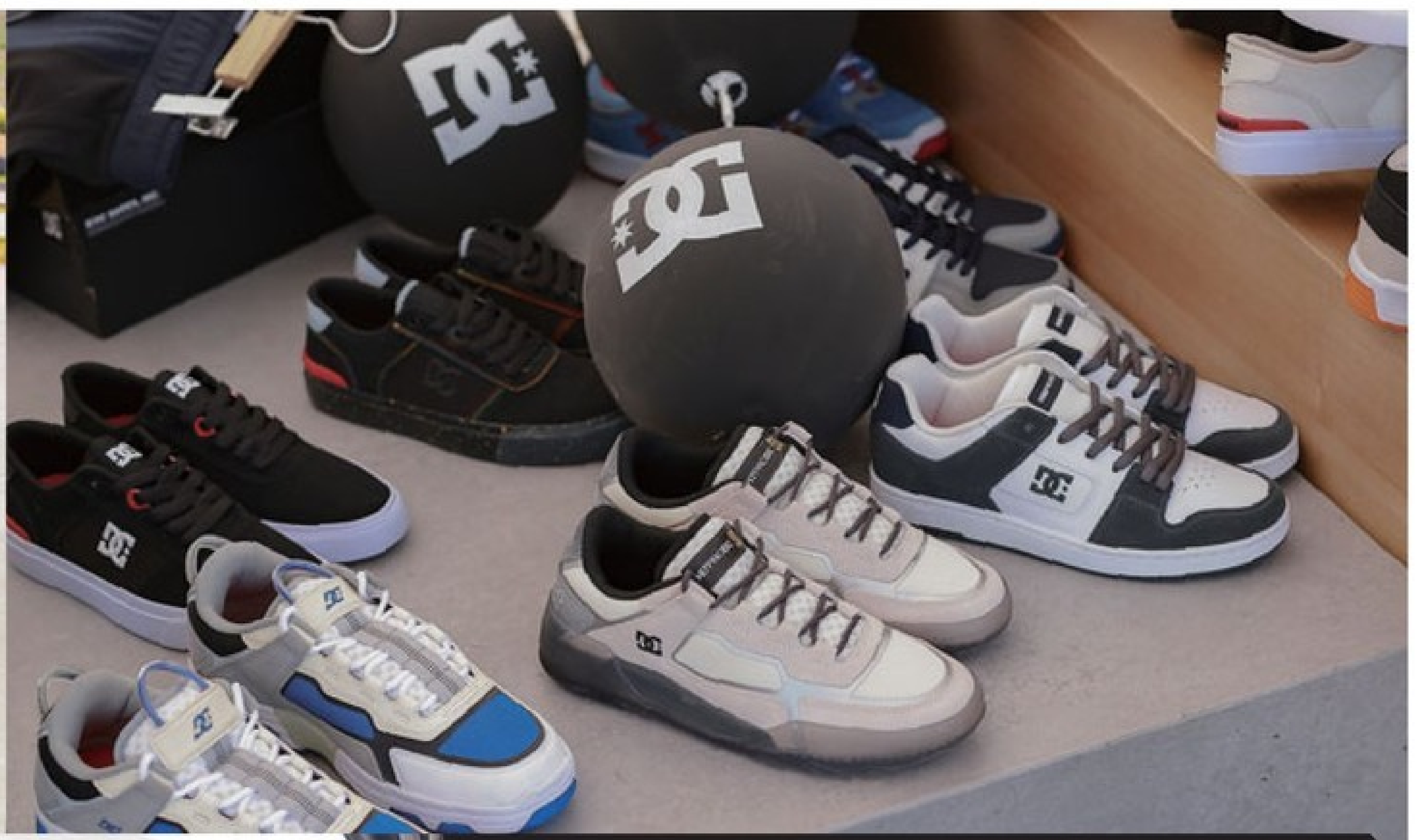
고아웃 캠프의 최대 쇼핑 스팟이라면 바로 그라미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번 15회 고아웃 캠프에서도 그라미치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적용한 상,하의류 및 각종 액세서리 제품을 '겟'할 수 있었다. 많은 캠퍼들은 발빠르게 그라미치 부스에 이른 오전부터 줄을 서며 조금이라도 멋진 아이템을 손에 쥐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덕분에 고아웃 캠프 3일간 그라미치의 캠프캡과 로고 티셔츠를 착용한 캠퍼들을 무수히 만날 수 있었다.





BILLA BONG

50여년 역사의 호주 서프 브랜드 빌라봉이 15회 고아웃 캠프에 입성했다. 빌라봉은 비록 바다와 가까이에 부스를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랜드 서핑' 체험을 통해 서핑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을 깨트리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나만의 서핑보드를 그려볼 수 있는 '마이 서프보드' 이벤트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시즌 보드쇼츠를 비롯해 신상 제품들도 만날 수 있었다.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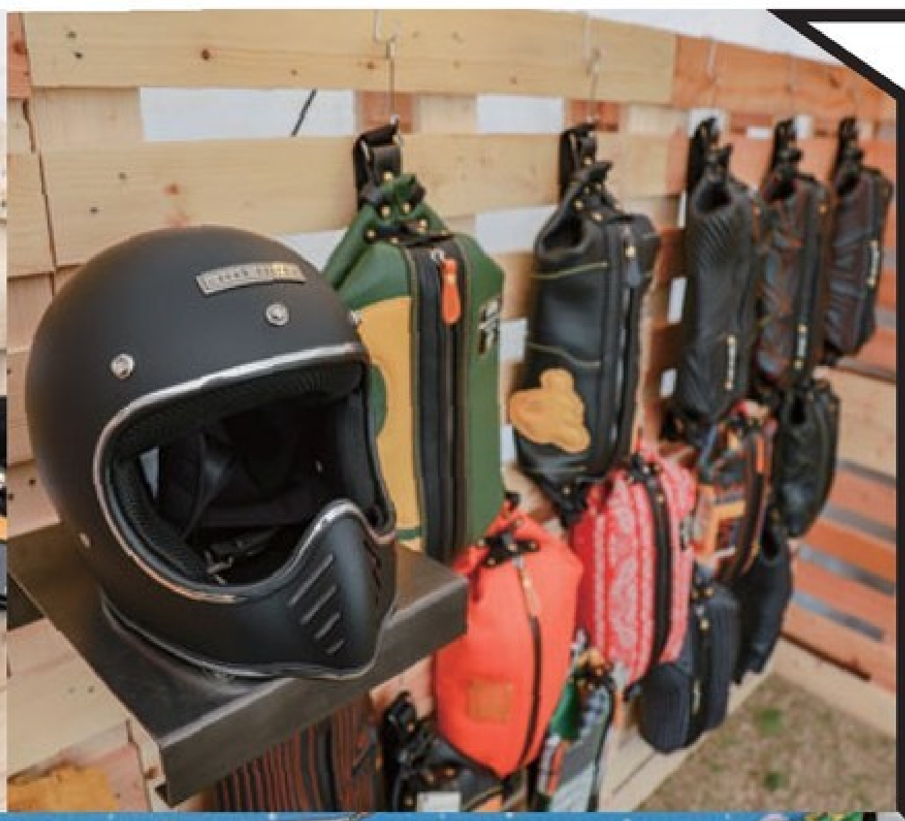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디씨슈즈(DC SHOES)도 15회 고아웃 캠프에 등장했다. 유서 깊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답게 단순히 부스 이벤트로만 한정 짓지 않고, 시공한 램프에서 스케이트보드 클래스를 진행했다. 더불어 미니 램프 데모쇼 등을 통해 고아웃 캠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캠퍼 자녀들이 스케이트보드 클래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의미 있었다.

ZEROGRAM

'텐트 빠르게 설치하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어쩌면 제로그램 밖에 없지 않을까.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를 표방하는 제로그램은 텐트 밖에 펼쳐진 생동감 넘치는 풍경과 함께 해외 트레킹을 온 느낌을 이벤트와 제품군을 통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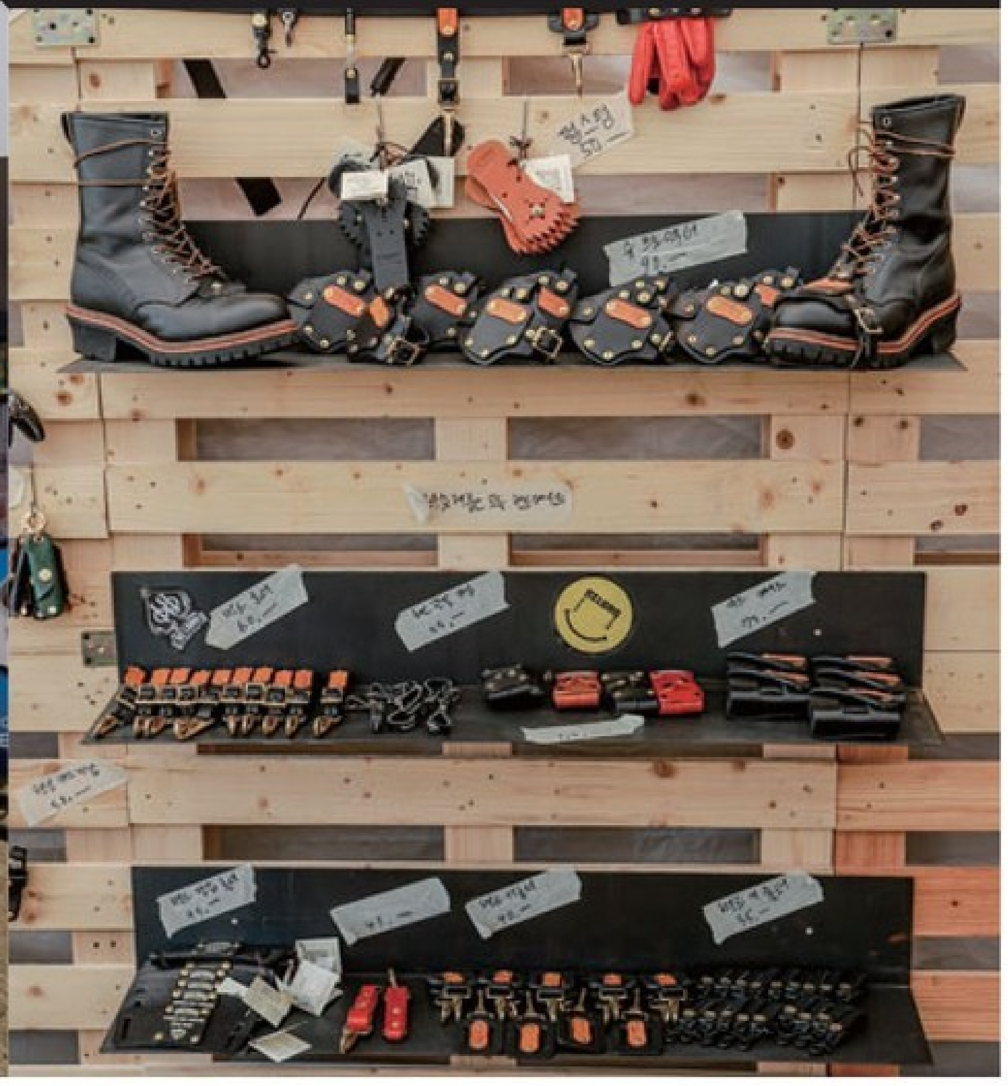
INSOOTH® GENTLWUFF®

아웃도어 브랜드 인수스와 아웃도어 반려용품 브랜드 젠틀우프는 함께 부스를 꾸려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증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자사의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100% 증정의 기회를 제공했고, 무려 17개의 체어가 경품으로 걸린 '체어 챌린지' 컨테스트로 캠퍼들을 불러모았다.



tower of babel
RELOAD
rider's dream

캠핑과 바이크의 조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리로드는 '모토 캠핑'의 로망을 증폭시키는 다채로운 핸드메이드 아이템으로 부스를 꽉 채웠다. 특히 고아웃 캠프에서만 특별히 만날 수 있는 '레더 카라비너'와 같은 제품들은 지나는 캠퍼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EPICJENNY
Ma Day Mo Better

LAIDBACKGEAR

캠퍼가 만들어 더욱 진정성 넘치는 브랜드 레이드백기어와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에픽제니가 함께 다양한 캠핑, 아웃도어 아이템들을 가득 선보였다. 특히 레이드백기어의 시그니처인 소프트 쿨러 제품은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톡톡 튀는 감성과 흥미로움으로 무장한 에픽제니의 아이템들은 구매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않았다.

POLHAM

'이벤트 맛집'의 전설이 되어버린 폴햄 부스. 다음 고아웃 캠프 때도 폴햄이 들어오느냐고 캠퍼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나누던 이야기들이 실현되었다. 폴햄은 스톱워치 이벤트, 꽝 없는 100% 당첨 뽑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푸짐한 경품을 증정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캠퍼들은 리유저블백과 피크닉 매트, 반팔 티와 볼캡으로 구성된 '스무살 패키지 백'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offroad

고아웃 캠프에 처음 참가한 오프로드는 젠더와 스타일의 경계를 초월한 컨템포러리 테크웨어를 표방하는 브랜드다. 23SS 컬렉션 제품들과 함께 부스를 꾸며 새로운 출발과 기대감을 알렸으며, 풍성한 이벤트와 굿즈로 성공적인 홍보를 할 수 있었다.

LIKE THAT SUN Te'

구미의 뜨거운 햇살에 두려움을 느낀 캠퍼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부스는 바로 테(Te')였다. 이번에도 테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정품 기프트를 증정했고 로맨틱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한정 꽃다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로 사랑받았다. 단순히 선크림 제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태양이 가진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 컬러풀한 테의 패키지는 부스를 찾는 이들에게 기분좋은 하루를 선물해주었다.

ESTD 2018 • THE CITY OF BUSAN
SAY IT WITH COLORS
DHEERE-DHEERE
AESTHETICS OF LIFE FOUND IN SLOWNESS

에스닉한 분위기의 인도 원단 브랜드 디레디레는 '천천히 느리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양으로 가득한 디레디레의 핸드메이드 패브릭은 여성 캠퍼들과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도록 했다.

GO OUT STORE

매회 고아웃 캠프에서 고아웃스토어는 주력 상품을 새롭게 선보여 많은 캠퍼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번 15회 캠프에서 고아웃스토어는 '송가네 장작', '론 체어'를 판매하며 꾸준히 캠퍼들이 부스를 방문 구매하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지난 14회 고아웃 캠프 로고 티셔츠를 할인 판매해 전량 솔드아웃 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더불어 새롭게 입점된 나그참파와 각종 액세서리들, 파격 할인으로 고아웃 캠프에서만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캠퍼는 없었다.

캠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커피' 아니겠는가. 일리카페는 그러한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풍미 가득한 일리 특유의 원두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기기에 좋은 커피 브랜드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고아웃 캠프에서는 일리카페 부스를 통해 커피를 사마실 수 있고, 일부 캡슐 제품도 구매할 수 있었다.

제임슨 존의 메뉴로도 만날 수 있는 버거보이는 아메리칸 수제버거 전문점으로 이미 서울권에서는 맛집으로 소문난 브랜드. 버거보이는 고아웃 캠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페셜 풀드포크 버거와 바베큐 플레이트를 선보여 이틀 내내 긴 줄을 세웠다. 특히 고아웃 로고가 찍힌 한정 번의 버거는 고아웃 에디터들조차 구경하지 못한 '레어템'.

마꽁이네 와인샵

by Sommelier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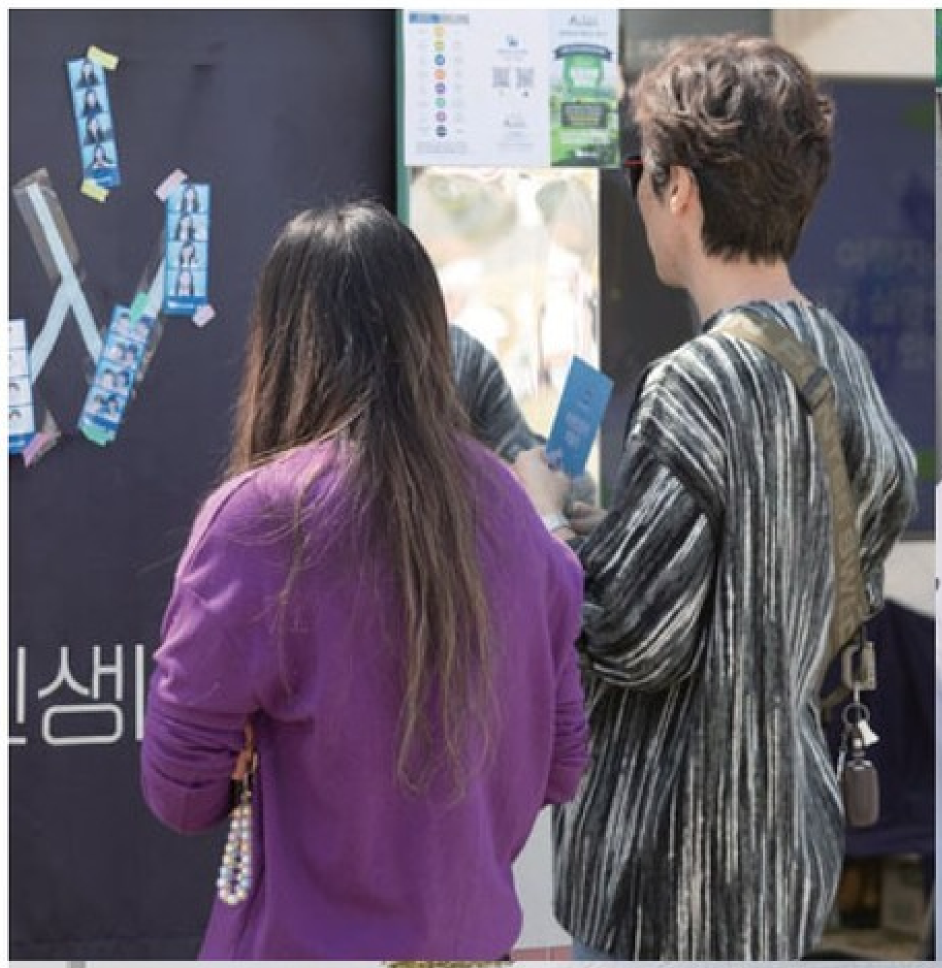
양양에서 열렸던 지난 13회 고아웃 캠프를 시작으로 15회 캠프까지 쭉 함께 해오고 있는 마꽁이네. 캠핑에서 간혹 와인이 생각나거나 치즈 안주가 떨어졌을 때엔 마꽁이네 부스를 찾자. 이번 15회 캠프에서도 마꽁이네는 와인 10종을 무료 테이스팅할 수 있게 준비했고 퍼팅으로 와인병을 맞추면 보틀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꽁이네 부스의 백미는 해가 진 뒤 고즈적한 분위기를 즐기며 와인 한잔 할 수 있게 마련된 '마꽁이네 사랑방'. 많은 캠퍼들이 이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MYUNGRANG HOTDOG

푸드트럭으로 만날 수 있었던 '국민간식' 브랜드 명랑핫도그는 감자통모짜, 점보, 모짜렐라 등 시그니처 핫도그 제품을 판매하며 출출한 캠퍼들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아무리 캠핑 푸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도, 가장 편한 음식은 역시 사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50K DOG LIFE CENTER

반려견을 동행하는 캠퍼 시장이 증가되며 그만큼 캠퍼들이 가진 반려견에 대한 생각과 고민도 늘어났다. 오십케이는 반려견과 보호자의 행복을 위한 반려견 교육 전문가 그룹 브랜드다. 이번 고아웃 캠프에 처음 참가한 오십케이는 메인 훈련사들을 현장에 포진해 캠퍼들 간의 상담을 진행하며 더 나은 반려생활을 위한 팁을 전수하고 돕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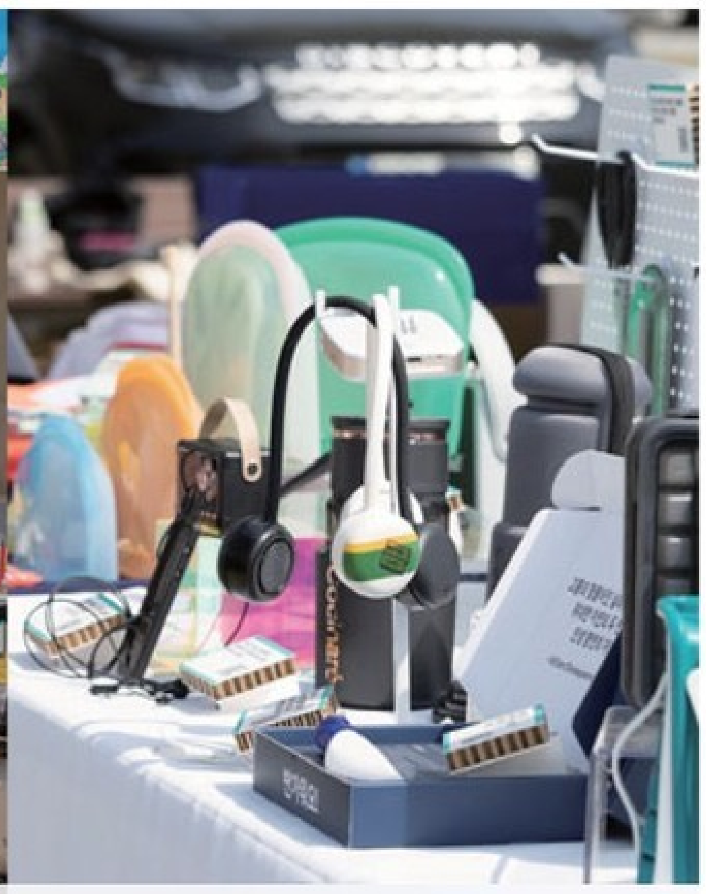


KWAVE
WAFFLESTAY

여행 정보의 팩트를 전달하는 영상 기반의 여행 앱 '와플 스테이'는 케이웨이브와 함께 고아웃 캠프를 찾았다. 와플 스테이는 여행 검증단 '와플러'를 모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검증된 여행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캠핑도 결국에는 여행이며 다양한 국내,외 캠핑이 늘어나는 시점 검증된 캠핑 스팟과 사이트를 캠퍼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wadiz

새로운 캠핑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아마도 와디즈의 역할이 클 것 같다. 고아웃 캠프에 참여한 와디즈는 랜덤 에어볼 뽑기, SNS 해시태그, 각인 서비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로지 와디즈 부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을 경품으로 걸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은 역시 '진로 소주 디스펜서'. 그 날 저녁 여러 캠핑 사이트에서 드문드문 보였다는 후문.



존쿡 델리미트

JOHNCOOK
DELI MEATS
SINCE 2005

캠핑에 소시지와 바베큐가 빠질 수는 없는 법. 존쿡 델리미트는 육즙이 가득해 매력있는 킬바사와 백립, 바로 먹을 수 있는 미트 스낵 등 캠핑을 위한 맞춤 제품을 통해 캠퍼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특히 시식 타임이 큰 인기였으며, 100% 당첨 에어볼 뽑기 이벤트, 30% 스페셜 할인을 통해 다양한 모듬 소시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

GoPro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고프로 카메라는 실용성 그 자체다. 고프로는 15회 고아웃 캠프에서 히어로11, 히어로 10 블랙 번들 패키지 및 다양한 마운트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열어주었다. 더불어 '점프 포토제닉' 어워즈를 진행해 트램폴린 위에서 고프로를 들고 독특한 점프샷을 찍어 선정되면, 히어로11 블랙과 통나무 버너를 증정받을 수 있었다. 고프로로 자신의 멋진 모습을 추억으로 기록하고 돌아간 캠퍼들의 흥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녀장 / 진흥상회 / 파머스마켓

고아웃 캠프에 큰 '장'이 열렸다. 경북, 구미와 인근 지역의 상생 및 향토 특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마녀장, 진흥상회를 비롯해 파머스마켓이 캠퍼들을 맞이했다. 수십여개의 부스에서는 막걸리, 다과류는 물론 지역 특산물과 식자재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었다.

COME, GENTLE SPRING!

봄이 즐거운 이유

아웃도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절인 봄에는 캠핑 기어와 굿즈 등 우리의 눈과 지갑을 유혹하는 아이템이 많다. <고아웃>이 나의 아웃도어 감각을 올려줄 다양한 모델 중 눈여겨봐야 할 아이템을 선정했다.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ST** TOMOYUKI SASAKI **TEXT** SACHIO KANAI

유니크한 산 로고

SAVE SHOCK

MOUNTAIN ENERGY CAP

2023년 봄에 출시한 브랜드. 유명 에너지 드링크를 샘플링한 모델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수를 나일론 소재의 트레일 캡에 넣었다. 스티커와 키홀더도 포함되어 있다. 4950엔

기능적인 저지 소재를 활용한 아이템

SOUTH2 WEST8

TRAINER HOODY, TRAINER PANT

통기 신축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 저지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 여유로운 실루엣과 트렌디한 컬러가 특징이다.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제품. (왼쪽) 1만7600엔, (오른쪽) 1만8700엔

서스티너블 소재로 만든 풀오버

PATAGONIA

HOUDINI SNAP-T PULLOVER

립스톱 리사이클 나일론 100%의 얇은 보디에, 불소 화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내구성 발수 코팅 처리를 더 했다. 113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 또한 뛰어나다. 1만5400엔

레트로 아웃도어 컬러의 윈드 브레이커

OUTDOOR RESEARCH

SWIFTBREAKER

50 데니어 리사이클 립스톱 나일론을 사용하여 방풍 내수성, 통기성, 내구성 등 구현했다. 프런트 지퍼가 깊이 열리기 때문에 탈부착이 간편하고, 다양한 액티비티에서 활용할 수 있다. 1만4300엔

클래식한 스타일을 최신 기술과 소재로 구축한 모델

GOLDWIN 0

PACKABLE LIGHT PARKA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고 발수 가공 처리를 한 원단을, 초음파 용착으로 만든 아노락. 뒷면에 퍼스너와 와이드 플리츠가 있어서, 실루엣에 변화를 줄 수 있다. 6만1600엔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이 공존하는 모델

ADIDAS TERREX ×AND WANDER

TERREX RAIN JKT

2022년에 이은 아디다스 테렉스와의 협업 아이템은, 움직이기 편하고 방수 투습성을 갖춘 2.5 레이어 레인 재킷. 심리스 가공과 방수 지퍼는 물론이고, 부분마다 적용한 리플렉터로 특징 있는 컬러링이 눈에 띈다. 4만6200엔

우수한 착용감과 방수성이 특징인 모델

IS-NESS

THM JACKET, CAP, PANTS

방수 투습성과 360° 신축 소재에 편안하고 경량성까지 갖춘 아이템. 하이테크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봉제를 극한까지 줄여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왼쪽) 4만6200엔, (가운데) 1만4300엔, (오른쪽) 6만3800엔

냄새와 습기를 방지하는 메리노 울

ARC'TERYX

IONIA MERINO WOOL LOGO SHIRT SS

엄선한 산지의 메리노 울에 나일론을 블랜딩하여 튼튼하고 범용성이 뛰어난 티셔츠. 입체 구조의 패턴으로 활동성이 우수하다. 1만3200엔

낚시용 셔츠 & 햇을 쾌적하게

THE NORTH FACE PURPLE LABEL

POLYESTER LINEN FIELD H/S SHIRT,
POLYESTER LINEN FIELD HAT

멀티 포켓과 팔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피벗 슬리브 등, 피싱 웨어에 낚시 기능을 갖춘 피싱 셔츠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리넨의 하이브리드 소재로 만들었다. (왼쪽) 1만2100엔, (오른쪽) 2만3100엔

캠핑과 산책, 정원 관리, 한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는 모델

POLER × JOURNAL STANDARD RELUME

MULTI-UTILITY CHAIR

다양한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멀티 체어. 좌석에는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착석감이 좋고, 프레임과 백은 스냅 버튼으로 분리할 수 있다. 6050엔

트로피컬 패턴을 사용한 기능성 웨어

COLUMBIA × BEAMS

PFG JKT, PFG SHORTS

컬럼비아의 피싱 라인과 빔즈에서 만든 협업 시리즈 제품. 발수성과 수납력, 활동성이 우수한 낚시용 세트 아이템을 히비스커스 패턴으로 만든 모델. (위) 3만1900엔, (아래) 1만3200엔

클리어 타입의 유니크한 쿨러

ICEMULE

JAUNT CLEAR 15L

스포츠 경기 관전이나 공연에 갈 때 보완을 생각하여 클리어 보디를 사용한 세계 최초 공기 단열식 쿨러. 발포 단열 소재를 사용한 모델과 비교하여 약 25%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고, 5~7시간 정도는 냉각 상태가 유지된다. 1만6500엔

스트랩 로고가 빛나는 협업 제품

SNOW PEAK × CHACO

LOWDOWN SLIDE SP

힐 스트랩이 없어 탈부착이 가능한 차코 모델을 스노우 피크에서 별주 제작했다. 메인 스트랩에 스노우 피크의 네임 로고를 넣고, 블랙 원톤으로 오리지널리티를 더했다. 9999엔

어디서나 따뜻한 음식을

MAKITA

MW001GZ

코드리스 사양의 전자레인지. 충전식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 USB를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용으로 뿐만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도 유용하다. 배터리와 충전기는 별도 판매. 12만1000엔

가드닝과 아웃도어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모델

W.M.B.C.

MEASURING HAND SHOVEL, HAND SHOVEL, TRIDENT

가드닝에 빼놓을 수 없는 스쿱과 포크의 물푸레나무 소재의 핸들에 브랜드 로고를 각인했다. 흙 작업뿐만이 아닌 모닥불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각 5480엔

100% 리사이클 소재로 쾌적성과 활동성이 뛰어난 모델

THERMAREST

판초다운

서머레스트의 최고급 슬리핑 백과 같은 발수 다운을 사용하여 만든 모델. 판초의 기능을 위해 불필요한 파츠를 제거했다. 포터블 사양으로 프런트 포켓에 수납하면 컴팩트하다. 4만4000엔

텐트 소재로 만든 모델

NORDISK

TECHNICAL COTTON BAG VEST,
TECHNICAL COTTON ANORAK PARKA

노르디스크의 텐트를 사용할 때 만드는 테크니컬 코튼을 적용한 모델. 속건 및 방수성과 통기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입으면 입을수록 변하는 에이징이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왼쪽) 2만4200엔, (오른쪽) 3만5200엔

클래식한 디자인에 고어텍스를 적용한 모델

CLARKS × BEAMS

DESERT ROCK

1990년대에 인기가 높은 모델을 별주로 제작했다. 방수 투습성이 우수한 고어텍스를 사용하고, 다양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베이지 컬러와 스웨이드를 사용한 것이 특징. 3만1900엔

타이다이와는 또 다른 매력인 모델

NANAMICA

OOAL HAND DYED H/S TEE

불규칙한 패턴의 핸드메이드 모델. 모든 제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 브랜드 컨셉을 나타내는 OOAL의 자수를 넣었다. 각 1만9800엔

레오파드 패턴의 협업 제품

GRAMICCI × WACKO MARIA

OPEN COLLAR SHIRT, G-SHORT

와코 마리아의 심볼인 오리지널 레오파드 패턴을 그라미치의 듀러블 나일론 셔츠와 쇼츠에 적용한 모델. 발수성이 우수하여 날씨와 무관하게 입을 수 있다. (왼쪽) 2만5300엔, (오른쪽) 2만7500엔

독특한 감성의 협업 제품

NEEDLES × BARACUTA

W.U.PANT, HUNTING Cap, G9

바라쿠타의 재킷에 타탄체크의 메시 안감을 넣어 봄, 여름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모델. 패턴 팬츠와 헌팅 캡 또한 매력적이다. (왼쪽) 8만8000엔, (가운데) 1만8700엔, (오른쪽) 5만3900엔

오리지널 나무 패턴을 더한 일본식 나막신

WHITE MOUNTAINEERING × GOYEMON

UNDA

에어솔을 적용한 나막신과 스니커즈의 조합이 매력적인 모델. 오리지널 나무 패턴이 들어간 자가드 원단으로 제작했다. 3만5200엔

메리노 울을 사용한 웨어러블 모델

BROWN by 2-TACS

BAA CREW, BAA HOODIE

보온성, 흡습성, 촉감이 우수한 메리노 울을 사용한 시리즈. 양 울음소리에서 따온 BAA라는 이름이 독특하다. 땀 배출과 바람이 잘 통하여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왼쪽) 1만9800엔, (오른쪽) 2만2000엔

가혹한 환경에도 완벽한 고성능 셸

KAPTAIN SUNSHINE × GOLDWIN

2TONE GORE-TEX SKI JACKET

고어텍스를 사용한 별주 3레이어 모델. 실루엣과 컬러링은 그대로 유지한 체, 스노 스커트와 고급 클로스 등 슬로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믹을 눈여겨볼 것. 13만2000엔

귀여운 가방이 매력적인 포켓 티

L.L.BEAN JAPAN EDTION

BEAN'S BOOK PACK POCKET TEE

프런트 포켓에 비스듬하게 들어간 리플렉터가 인상적인 스테디셀러 모델. 백 디자인을 가슴 포켓에 넣어 입체감이 있다. 8140엔

창업자의 얼굴을 30주년 기념 모델

KAVU

BARRY TEE 30TH ANNIVERSARY MODEL

2023년, 창업 30주년을 맞은 카부. 30주년 기념으로 창업자인 사장 베일리 바의 사진과 친필 메시지를 티셔츠로 만들었다. 같은 디자인을 넣은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다. 4950엔

가벼운 무게의 데일리 레인웨어

BONFIRE

2.5L CMF PONCHO

백팩을 등에 멘 채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내수압 2000mm의 판초. 봄에 딱 맞는 가벼운 2.5중 구조로 캠핑과 페스티벌은 물론이고, 데일리 레인웨어로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다. 3만800엔

인상적인 일러스트의 협업 티셔츠

ABU GARCIA

GRAPHIC T-SHIRTS

일러스트레이터 히라누마 히사유키와의 협업 티셔츠. 그의 시그니처 기법을 넣은 브랜드 로고와 배스를 낚은 소년의 일러스트가 인상적이다. 각 9240엔

아웃도어의 심볼 카를 와펜을 넣은 스웨트셔츠

O.K.

LAND CRUISER HAND EMBROIDERY SWEAT

입체감있는 랭클 70 모델이 인상적인 아이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코튼 50%, 폴리에스터 50%의 8온스 기모 소재를 사용하여, 아메리칸 캐주얼 룩을 연상하게 하는 모델. 9900엔

난가 컬러로 제작한 모델

NANGA × TEVA

TERA HI FIVE

테바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하이킹에 적합한 기능과 착용감을 가진 하이엔드 모델에 난가의 심볼 컬러를 더했다. 스트랩과 부드러운 촉감, 내구성이 뛰어난 아웃 솔도 주목할 것. 1만7600엔

뛰어난 기능성으로 중무장한 셸 재킷

KIIT × WILD THINGS

3LAYER NYLON LIGHT TAFFETA HOODIE SHELL JKT

매트한 나일론 태슬란 태프터에 특수한 우레탄 투습 폼을 래미네이팅한 3레이어 레인 재킷. 방수 지퍼와 심 테이프를 보강하여, 우수한 방수 및 투습성을 갖추고 있다. 6만4900엔

미국 빈티지 스타일을 연상하게 하는 백

MOUNTAIN RESEARCH

HOLIDAY BAG NEWS BOY, MINI NEWS BOY

미국의 신문배달 소년이 사용하던 백을 재현했다. D 캔을 이용한 레트로한 무드로 안쪽의 플랩 포켓 등 재미있는 기믹이 특징이다. (왼쪽) 1만6500엔, (오른쪽) 2만5300엔

티타늄 소재의 심플한 테이블웨어

THE NORTH FACE

TRAIL ARMS SIERRA CUP,
TRAIL ARMS SPORK

백패킹 시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벼운 무게의 테이블웨어. 티타늄 소재라 강성도 뛰어나다. (왼쪽) 2860엔, (오른쪽) 3960엔

프로 배스 앵글러와 개발한 피싱 라인

NEW ERA®

ANGLER COLLECTION FIELD COACH JKT,
MLB CUSTOM, FIELD WAIST BAG

프로 배스 앵글러와 개발한 피싱 라인 모델. 코듀라 소재와 태클 박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 낚시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왼쪽) 7700엔, (가운데) 6380엔, (오른쪽) 1만9800엔

인상적인 패턴의 코치 재킷
OLD PARK
FLAG COACH JACKET

빈티지 성조기 원단을 해체하여, 어센틱한 코치 재킷으로 만들었다. 뒤쪽에는 캠벨 스프가 1980년대에 창업 광고로 사용하던 런드리 백의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5만2800엔

발수 오염방지 기능과 UV 차단율을 갖춘 모델
COLUMBIA × ARAKA
COLD SPIDER AK SOFTSHELL JACKET

컬럼비아의 첫 오리지널 아이템, 멀티 포켓 피싱 베스트의 디테일을 넣은 소프트 셸. 피싱뿐만이 아닌 일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모노톤 모델이다. 2만2000엔

클라이밍 팬츠를 속건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로 만든 모델
BAMBOO SHOOTS × ROKX
BIG POCKET CLIMBING SHORTS

클라이밍 팬츠로 유명한 모델을 협업하여 복각했다. 깊은 주름과 웨이빙 벨트 등 당시의 디테일을 재현하였고, 코인이 잘 떨어지지 않는 커다란 프런트 포켓을 넣었다. 1만6500엔

20주년 기념 모델
KEEN
NEWPORT RETRO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킨의 스테디셀러 모델. 20주년을 기념하여 어퍼에 미니 뉴포트가 그려진 버스데이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 화이트 베이스로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 1만5400엔

봄을 연상하게 하는 샌들

THE NORTH FACE

RE-ACTIVE FLIP

이중 구조의 솔 유닛이 발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발등에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두터운 텅과 발의 아치를 지지해 주는 구조로, 감싸는 듯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9900엔

헬륨 원단을 사용한 게이터

OUTDOOR RESEARCH

HELIUM GAITERS

내구성이 뛰어난 퍼텍스 실드 다이아몬드 슈즈가 발을 단단하게 보호해 준다.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컴팩트하게 접어 포켓 안에 넣을 수 있다. 9900엔

빈티지 마니아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레어한 아이템

OUTDOOR PRODUCTS × JOURNAL STANDARD RELUME

MESSENGER BAG

아웃도어 프로덕트의 메신저 백을 별주로 제작했다. 1973년에 창업하여 1980년대 초기까지 수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환상의 트리 로고를 넣었다. 각 1만3200엔

레트로 팝 감성이 넘치는 모델

NEW ERA® × BUDWEISER

BUCKET-01 REVERSIBLE, DAY SACK

미국의 프리미엄 라거 맥주 브랜드의 아이콘을 넣은 모델. 데이 색은 토트백처럼 들고 다닐 수 있고 데이지 체인이 달려있다. 버킷 햇은 모노톤과의 리버서블 사양이다. (위) 5720엔, (아래) 5500엔

놀라운 복원력을 가진 더블 월 텐트

BACH EQUIPMENT

GUAM3

최대 3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백패킹용 더블 월 텐트. 실리콘 가공 처리한 립스톱 나일론 프라이 원단은, 작은 구멍이 뚫려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메워지는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14만3000엔

여름, 해변의 필수 아이템

ELDORESO

LOGO TOWEL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흡수력의 이마바리산 타월을 심플한 로고와 브랜드 네임으로 장식했다. 러닝이나 헬스장, 물놀이, 사우나용으로 추천한다. 3960엔

카모플라쥬 패턴이 인상적인 메시 파카

SHIPS ANY × MANNENRO

CAMOUFLAGE MESH PARKA

가드닝용 아이템으로 기능성을 더한 일본 브랜드 '만넨로'의 메시 파카에 카모플라쥬를 넣은 쉽스 별주 모델. 여유로운 실루엣이 인상적인 제품. 1만9800엔

피자 레스토랑과 프릭스 스토어의 협업

PIZZANISTA! × FREAK'S STORE

CROSSBONES T-SHIRT, SOCKS, SKATEBOARD DECK

레전드 스케이터인 살만 애거가 오너인 LA의 인기 피자숍을 오마주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제품. (왼쪽) 2992엔, (가운데) 4994엔, (오른쪽) 1만6500엔

레오파드 패턴의 보스턴백

LESPORTSAC × FRANKLIN CLIMBING

DELUXE LG WEEKENDER

짧은 여행 목적으로 만든 보스턴백을 레오파드 패턴으로 별주 제작한 모델. 패턴을 자세히 보면 텐트와 동물 등 아웃도어 무드의 모티브가 숨겨져 있다. 서브 포켓도 주목할 것. 2만5300엔

독특한 화분 백, 물 재배를 상상하여 다양한 포켓을 넣은 아이템

BRIEFING × SOLSO KEEP GREEN

WORK JUMPER

이동부터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델.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내구성이 우수한 이너 백은 탈부착을 할 수 있어 오염되어도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다. 2만5300엔

식물을 키울때도 개성있게

NEIGHBORHOOD

SRL. NOODLE BOWL PLANT POT,
SRL. SMALL BOWL PLANT POT

SRL 라인에서 출시된 세라믹 화분. 라면 그릇처럼 디자인하여 유머러스하다. 직접 심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있다. (좌) 9900엔, (우) 7700엔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모델

BLUNDSTONE

ORIGINALS

1870년에 창업한 브랜드가 만드는 사이드 고어 부츠 모델. 가혹한 사용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함과 일상용으로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경량성, 착용감으로 여전히 인기가 많다. 2만8600엔

도회적인 컬러의 협업 텐트

THE FREE SPRITS TENTS × NICETIME

YOTO PLUS 70D GREY NICETIME EXCLUSIVE

2~4인용 터널형 투 룸 텐트를 나이스 타임의 한정판 컬러로 만들었다. 텐트 외부 사방에 도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15만4000엔

압도적인 경량의 다이니마 텐트

FIELD RECORD

FR-SCD 싱글 월 카본 프레임 다이니마 텐트

탑 트레일 러너인 모치즈키 쇼고와 개발한, 프레임 포함 총중량 약 470g의 세계 최경량의 자립식 싱글 월 텐트. 하이테크 소재인 다이니마를 패브릭에 사용했다. 14만9600엔

MLB 공식 한정 모델

47 × MLB × HELINOX

CHAIR ONE, CAP PACKSET

에인절스, 레드삭스, 양키스, 다저스 등 인기가 많은 4개의 야구팀의 심볼을 사용하여 만든 모델. 체어원, 캡 각각에 로고와 팀 컬러를 넣은 MLB 공식 아이템. 3만9000엔

시그니처 아이템을 가죽으로 만든 모델

DVERF × BALLISTICS

LOWER CHAIR, MINI ROVER TABLE

체어 시트에 와일드한 주름이 매력적인 가죽을 사용한 모델. 가죽에 잘 어울리는 블랙 프레임, 암 레스트는 밤나무 소재를 사용했다. 별주 테이블과의 조합을 추천한다. (왼쪽) 4만9500엔, (오른쪽) 5만9400엔

OD 캔과 싱글 버너를 수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SOTO

TITAN POT 750, TITAN POT 1100

두께 0.3mm 초경량 티타늄 포트 시리즈의 두 가지 용량의 신제품이 출시됐다. 매우 가벼워 백패킹용으로 추천. 전용 티타늄 리드와 스프링 알루미늄 뚜껑이 포장되어 있다. (왼쪽) 6600엔, (오른쪽) 6050엔

캔버스 소재를 사용한 플랜터

CARHARTT WIP

CANVAS PLANTER SET

칼하트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워크웨어에 쓰이는 헤비 온스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플랜터. 각각 세 가지 다른 사이즈로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1만5400엔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패밀리 텐트

MSR

HABISCAPE4

좌우 대칭 디자인으로 폴의 배치를 헤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패밀리형 텐트. 차의 열쇠나 헤드램프 등 수납이 편리하고, 양방향에서 열 수 있는 방충망이 있다. 8만8000엔

할츠부르크 사의 문헌상 가장 오래된 모델

HULTAFORS

325th ANNIVERSARY AXE

할츠부르크의 역사를 기념하는 모델. 아카이브 모델에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컬러가 포인트다. 가죽 칼집과 선박용 못이 달린 키체인도 인상적이다. 4만1800엔

삼림공원 캠핑장 한정 모델

HALO COMMODIRY ×TRIP LONG TRIP

SAUNA HAT

파베이어즈가 프로듀싱한 리헤이차야 삼림공원 캠핑장 한정 모델. 폴리에스터의 혼방 소재로 만든 뛰어난 속건성과 항균성을 구현했다. 각 4180엔

카모플라쥬 패턴의 LED 라이트

CLAYMORE

3FACE MINI, ULTRA MINI

미니 사이즈의 LED 라이트. 모두 500루멘 이상의 광량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법이 다양하고, 야간 보행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왼쪽) 7920엔, (오른쪽) 9900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만든 화로대

MONT-BELL

COMPACT FIRE PIT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만든 모닥불 스탠드. 캠핑과 투어링에 적합한 접이식 사양이다. 깊은 구조로 양 측면이 열리기 때문에 조리 중에도 긴 나뭇가지를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8800엔

습기에 강한 침낭

OLD MOUNTAIN ×NANGA

UDD 600DX CAMEL × KHAKI REGULAR

봄가을의 3000m급 등산에서 동계 중급 산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침낭. 발수가공 처리한 770FP 고성능 다운을 사용하여 습기에 강하다. 협업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10만7800엔

가스 충전식 고화력 버너

AS2OV

PORTABLE STICK BURNER

205mm의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연소 온도는 1300도의 고화력이 특징인 모델. 잠금장치 기능으로 실수로 착화할 위험성이 적고, 사용 시에는 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850엔

갓 갈아낸 신선한 향신료를 어디서나

SKEPPSHULT

SWING PEPPER SPICEMILL

스토커와 밀 일체형의 심플한 설계로 효율적인 공간 분배가 특징이다. 주물의 중량을 살려 향기로운 향신료를 갈 수 있다. 오염 방지 효과가 뛰어난 흑칠 마감 표면도 인상적이다. 6600엔

설치가 간편하고 연소 효율이 높은 화로대

VARGO

MEGAHEX SMOKELESS FIRE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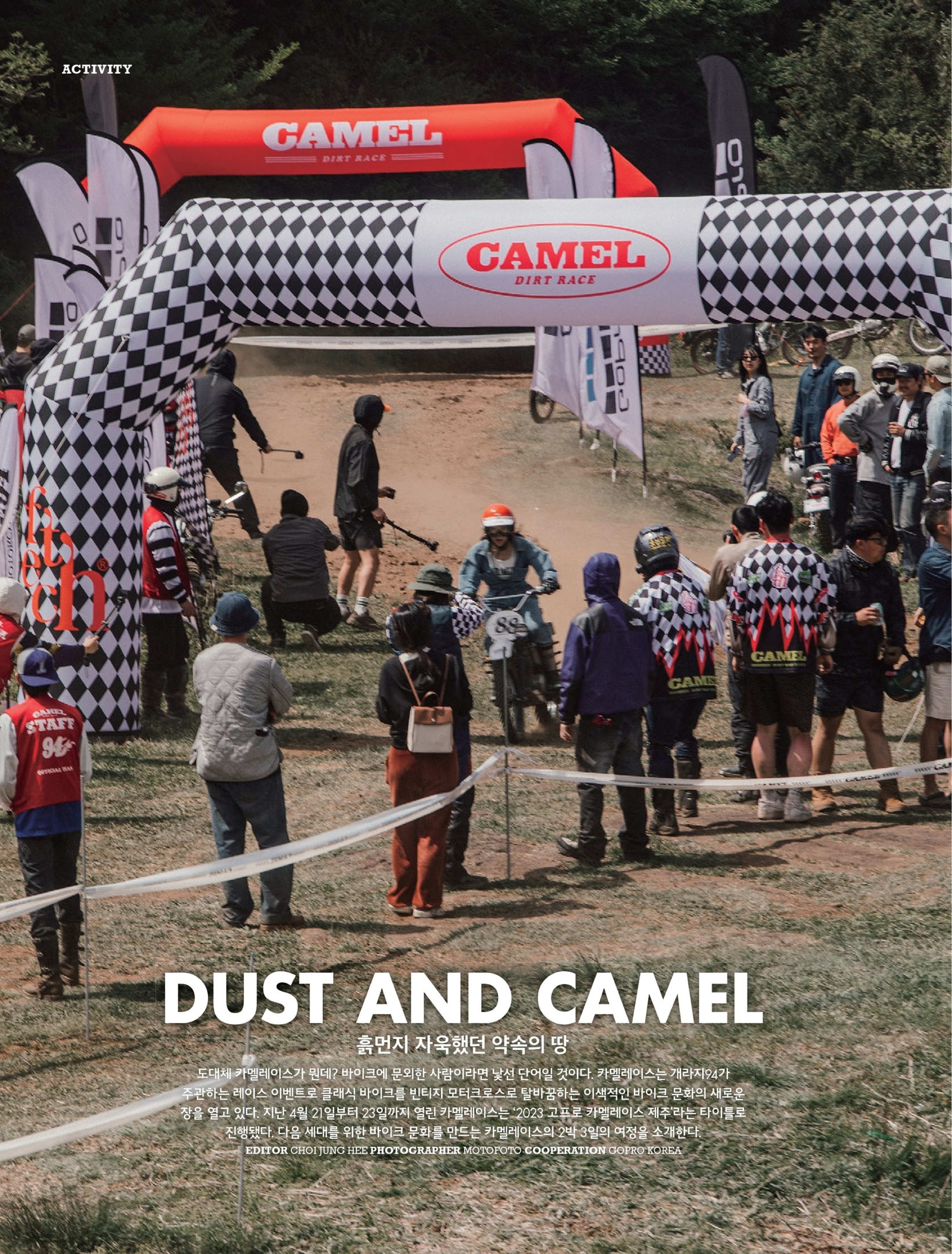
헥사곤 우드 스토브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육각형 타입의 모델. 높이 33.6cm, 바텀 폭은 61cm 크기의 모닥불 스탠드다. 연소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연기가 적고, 접으면 5cm 크기로 작아지기 때문에 운반이 편리하다. 8만2280엔

대용량 하드 쿨러의 전용 커버

OREGONIAN CAMPER

HYAD 27R, COOLER JKT 27

350mL 캔이 40개 들어가는 1박2일 캠핑에 최적화된 보냉력을 가진 하드 쿨러에 전용 커버를 씌었다. 몰 시스템과 메시 포켓, 알루미늄 시트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본체 1만9800엔, 커버 7480엔



DUST AND CAMEL

흙먼지 자욱했던 약속의 땅

도대체 카멜레이스가 뭔데? 바이크에 문외한 사람이라면 낯선 단어일 것이다. 카멜레이스는 개라지94가 주관하는 레이스 이벤트로 클래식 바이크를 빈티지 모터크로스로 탈바꿈하는 이색적인 바이크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카멜레이스는 '2023 고프로 카멜레이스 제주'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바이크 문화를 만드는 카멜레이스의 2박 3일의 여정을 소개한다.

EDITOR CHOI JUNG HEE **PHOTOGRAPHER** MOTOFOTO **COOPERATION** GOPRO KOREA

제주도와 바이크, 그리고 캠핑 이 세 요소가 한데 모이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제주도라 하면 보통 가볍게 떠나는 여행지 정도로 여기기에 바이크와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벤트로 인식된다. '카멜-'은 개라지94의 기반을 만들었던 '빨간낙타'의 닉네임을 따 명명했다. 재밌게도 유튜브에 영어로 카멜레이스를 검색하면 사막에서 낙타들이 신나게 달리는 영상들이 주르륵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 낙타 이미지를 밈으로 사용할 만큼 유쾌하게 접근한다. 2023년의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하고, 옛 엔진 구동방식인 캬브레터 엔진 배기음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영상들이 주르륵 나타난다. 1970, 80년대에서나 볼 법한 패션 스타일을 한 라이더들은 바이크 위에서 하염없이 웃고 있다. 여성 라이더들도 꽤 많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보인다. 아마도 단언컨대 카멜레이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겐 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2023 고프로 카멜레이스 제주'는 액션캠의 대표 브랜드 고프로 코리아가 공식 후원했고, 패션 브랜드 'FETCH-SUNDAY'가 그들을 위한 레이싱 저지를 제작하여 지원하는가 하면, 글로벌 헬멧 브랜드인 'HJC', 커진 오프로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아메리칸 컬쳐의 열풍을 일으킨 '포드'까지 참여한 것을 보면 이제 카멜레이스는 '나만 몰랐던 페스티벌'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특히, 바이크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고프로 앰배서더와 갤러리들도 레이스를 함께 즐기며 다음 레이스에는 꼭 바이크를 갖고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커다란 텐트를 친 고프로 부스에서는 고프로 조립 대결, 고프로 클래스, 야간 별 궤적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레이스에 출전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고프로 렌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끌어냈다.

첫날인 금요일엔 F&B 부스 운영과 제라진 어드벤처 내의 약 7km에 달하는 오프로드 주행 체험 시간이 주어졌고, 레이스 이벤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열렸다. 슈퍼커브 류의 바이크인 언더본 전을 시작으로 각 배기량 별로 100cc, 125cc, 250cc, 배기량 제한이 없는 무제한 전, 여성 전, 최근 출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헌터커브 전 등 특색있는 레이스 게임으로 참가자들이 원 없이 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여성 전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경기에 남녀 구분 없이 레이스를 진행했고 바이크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초보자에게 앞을 내주는 진풍경도 종종 펼쳐져 여타 바이크 레이스 행사에서 보이는 진입장벽을 낮춘 유일무이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토요일 밤엔 카멜레이스 최초로 라이브 디제잉 파티가 열려 낮의 열기로 가득했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요일까지 모든 레이스가 끝난 후 이어진 각 종목별 시상식은 카멜레이스만의 독특한 의례다. 기념 메달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풍성한 경품을 받아 갈 수 있는 럭키드로우까지 이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2박 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이 카멜레이스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그만큼 카멜레이스는 국내 바이크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공공도로에서 바이크는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된다. 제아무리 값비싼 최신형 바이크를 타더라도 그 인식은 썩 다르지 않다. 카멜레이스 창립자 '빨간낙타'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바이크는 외부 요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해도 더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카멜레이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페스티벌입니다.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모두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요. 우리가 만드는 트랙 코스는 철저하게 저속 위주로 설계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카멜레이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라고 생각해요. 참가자들을 보면 10대, 20대가 정말 많고 우리와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족과 함께 카멜레이스에 참가해요. 돌잡이 때부터 온 아이는 엄마와 함께 바이크를 타는 게 익숙하고 카멜레이스에 다른 또래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면 꽤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BRAND PICK UP

PWA

마치 미국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웨어로 일상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브랜드 'PWA'. 마스다 노부키의 철학이 깃든 PWA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고아웃>이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REPORT & TEXT NAOTO MATSUMURA

1

2

3

4

5

6

1 PWA가 시작되는 업무용 방 **2** PWA는 'Progressive Workers Association'이라는 뜻과 빈곤함을 의미하는 '푸어'에서 시작됐다.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가 "큰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PWA의 브랜드 태그 뒤쪽에 저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브랜드가 생각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3** 창업자인 카와베 신타로와 함께 만들었다는 잡지 'PPAPPERS'. **4** 과거의 아카이브. 처음으로 만든 아우터가 이 사진의 모델이었다. **5** 하프집 코듀로이 셔츠. **6** 사진의 제품 또한 인기가 많았던 리버서블 베스트.

"한순간만이 아닌, 가볍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

스케이터와 자전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바리스타 등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런 직업군을 떠올려 보면 의외로 그들은 항상 비슷한 옷을 입는다. 눈에 띄지 않지만, 편안한 옷을 고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PWA(푸어)'를 만드는 마스다 노부키는 "주변에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매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힙합을 좋아해서, 셸과 아노락과 같은 1990년대 무드를 좋아한다. 폴로나 ACG처럼 옷이 부각될지도 모르지만, 스포티한 것보다는 시티 룩이 나의 취향이다." 가볍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스다는 10년 동안 근무한 섬유 계열의 상사를 퇴사하여, 이 브랜드를 설립했다. 소재 부분에선 전문가이고, PWA를 만드는 것 이외에 다양한 남성용 의류의 OEM을 수주 받아 제작한다. "아이템에 맞게 주름이 잘 지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등, 원단의 적절한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PWA도 원단에는 당연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노멀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좋아하는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에 적합한 기믹을 추가한다."

평범하고, 가볍게 자주 입을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기에 원단과 기믹을 더한다. PWA의 유니크한 접근 방법이 브랜드 설립 이후 불과 3년 만에 전국으로 널리 퍼지고 무려 이번 해 여름부터는 뉴욕에서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데일리 웨어가 미국에 통한다는 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매력적인 부분으로 비치고 있는 증거다.

디자이너의 몸 주변에 있던 것

개성적인 디자인이 아님에도 뛰어난 감도를 가진 PWA의 아이템. 취재로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던 마스다의 취미와 취향을 소개한다.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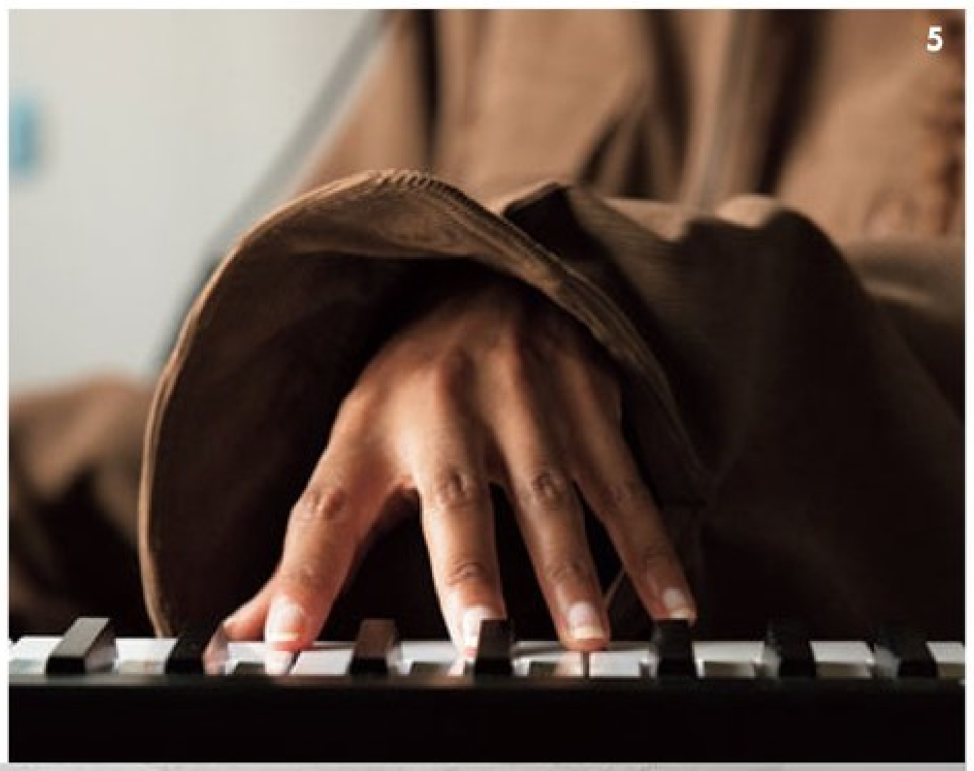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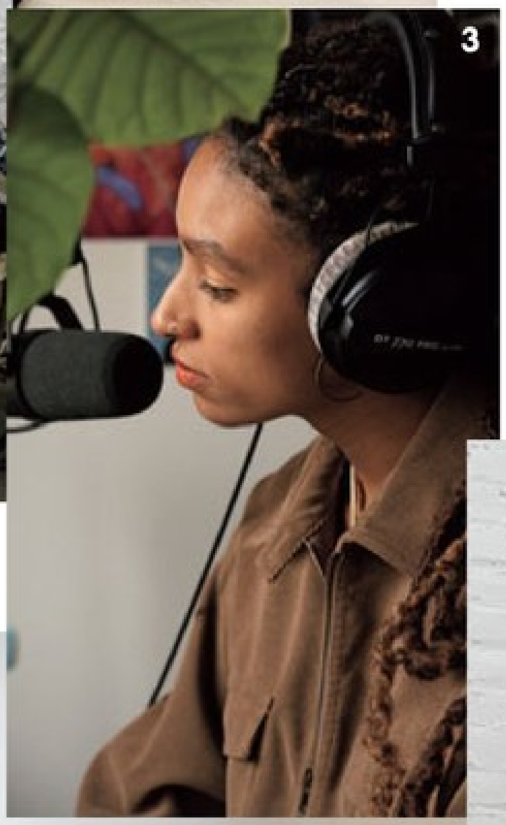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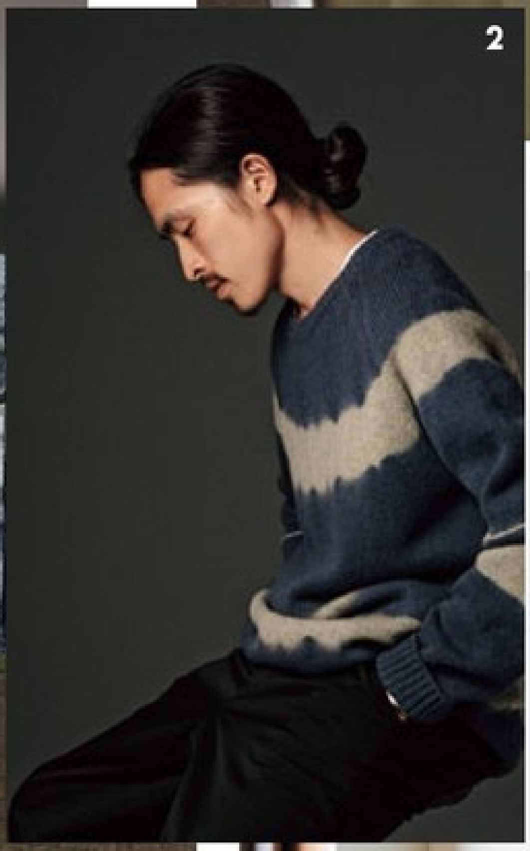
7

8

1 커피는 스니트를 좋아한다. 체크 셔츠에 아노락의 느낌이 PWA 스타일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2 작은 액자를 좋아해서, 포스트 카드 등의 에페메라류와, 실크 스크린 등의 미술품을 찾고 구입하여 장식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사진가 고야 신고의 작품이다. **3** 이 사진 또한 좋은 물건만 보면 무심코 사고 마는 진귀한 식물이다. **4** 스케이트보드의 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FAT의 티슈 케이스. 오른쪽에 장식한 스케이트보드를 놓은 랙 이외에도 iPad 거치대 등 동일 브랜드의 아이템을 갖고 있다.
5 오가와 요헤이와, PWA의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는 친구들의 스케이트보드. **6.** 레코드 랙에는 힙합과 재즈를 중심으로 장식해놨다. 소울 스크림의 레코드 재킷은 마스다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다.
7 울트라 로망스의 백으로 자전거 또한 취미 중 하나다. **8** 랜드크루저 프라도로 친구들과 캠핑을 주로 다닌다.







1, 2 첫 시즌의 디자인이다. 팬츠 2가지 밖에 없었지만 10명이 모여서 촬영했다. **3, 5** 셔츠를 찍기 위해, 일본에 사는 가수와 모델을 섭외했다. **4, 11** 인물과 브랜드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6** 요즘 뉴욕에서 촬영하던 디자인 중 하나이다. 현지의 비디오그래퍼가 착용하고 있다. **7** 팬츠룩. 모델은 마스다가 좋아하는 로스터리, 스니트의 스태프이다. **8** 뉴욕에서 촬영한 것이다. 현지의 아티스트가 아노락과 쇼츠를 착용하고 있다. **11** 그가 사는 집의 베란다의 재떨이이다. **9** 가끔 놀러 가는 DJ의 집 **10, 12** 동일 인물로, 도쿄에 살며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다. 프로 모델이 아닌 거리의 멋있는 사람들에게 브랜드 특유의 느낌을 엿볼 수 있다.

BRAND PICK UP | **PWA**

디자인에서 알 수 있는 일상복의 정수

PWA의 홈페이지를 보면, 일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 빠지게 된다. 과거 3년간의 자료에서 몇 가지 작품을 픽업하여 각각의 스토리를 물어봤다.

BRAND PICK UP | **PWA**

PWA의 절묘한 디자인

매일 누군가가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브랜드 철학이 여실하게 전해지는 아이템. 브랜드 설립 시에 출시한 인기 팬츠부터 신작 쇼츠까지, <고아웃>이 소개한다.

STASH S/S SHIRTS

1990년대의 빈티지를 테토론과 코튼 혼방 소재를 사용하여 속건성까지 겸비한 S/S 셔츠. 오리지널 체크 패턴이 PWA의 매력 포인트다.

UNIHOME-04 & UNIHOME-05

100% 폴리에스터 코튼 라이크 치노를 사용한 와이드 실루엣의 PWA 워크 재킷. 벨트 없이 입을 수 있는 소재의 치노 'UNIHOME-05'와 세트로 입으면 좋다. (위) 2만2000엔, (아래) 1만7600엔

PACK AND DROP ANORAK

발수성과 통기성을 가진 미니 립스톱 소재를 사용한 라이트 웨이트 아노락 파카. 넉넉한 실루엣에 신축성을 가미한 팩커블 모델이다. 2만4200엔

EXPLORERS HAT

얇지만 탄력 있는 소재와 가벼운 착용감이 특징인 코튼 타입의 라이터를 사용한 햇. 어저스터로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과 네이비로 출시한다. 8800엔

PWA × CTC STORE BEAN'S BODY BAG

원 숄더 타입의 클래식한 보디 백. CTC STORE 와의 협업 아이템으로 안쪽에는 PC 슬리브가 달려있고, 다양한 크기의 포켓을 넣었다. 네이비도 출시한다. 1만7600엔

CITY HIKE SHORTS

헤비 듀티한 부쉬 쇼츠를 PWA 무드로 만든 모델. 천연 섬유와 하이테크 섬유를 MIX한 고성능 소재로 가볍고 시원하며 허리의 고무와 다수의 포켓이 달려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1만7600엔

UNIHOME-02

브랜드 론칭 때부터 인기였던 슬랙스. 100% 폴리에스터 울 라이크 원단으로, 드라이한 터치와 섬세한 질감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주름이 잘 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만5400엔

UNIHOME-03

'UNIHOME-02'의 실루엣을 좁게 조절한 모델. 세탁에도 내구성과 건조성도 뛰어나다. 포켓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벨트 없어도 입을 수 있다. 1만5400엔

그래픽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패턴과 다섯 가지 색상이다.

ROYAL ENFIELD HUNTER 350

미래에서 온 서스티너블한 전동 바이크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는 모터사이클 시장의 '현재'를 소개하는 <고아웃 모터사이클 클럽>. 일본 도로에 적합한 네오크라 계열 단기통을 로얄 엔필드 헌터 350을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 FUMIHIKO IKEMOTO **TEXT** TATSUNORI TAKANASHI

인도에서 시작한 영국 브랜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목표, 카본 뉴트럴 등, 이륜차 업계에도 친환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엔진에서 전기를 사용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모든 생산을 종료한 공냉식 바이크는 컴팩트하고 가벼운 엔진과 독특한 배기음이 매력적인 바이크다. 심지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놀랄만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최근 혼다에서 발매한 GB350은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완판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인기가 높은

❯ 타이어는 17인치를 사용했다.

프런트와 리어의 타이어는 모두 17인치를 장착했다. 시내 주행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투어링 시 험로에서도 노면의 상태를 경험하며 기분 좋게 코너 주행을 할 수 있다.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앞뒤로 ABS를 장착했다.

❯ 네오클래식 시트와 펜더

시트는 턱롤을 연상하게 하는 레트로한 스타일이다. 펜더는 도금처리 대신 블랙으로 도장하여, 원형 테일 램프와 윙커의 조합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밸런스가 인상적이다.

❯ 시인성이 뛰어난 아날로그 디지털 메타

심플한 원형 메타. 아날로그 회전식의 속도계와 연료와 트립 관련 정보는 액정 화면에 표시된다. 야간에도, 눈부심이 심한 낮에도 시인성이 뛰어나다.

❯ 있으면 편리한 센터 스탠드

타이어 교환과 체인을 정비할 때 편리한 센터 스탠드는 기본으로 탑재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바이크는 경량화 때문에 접하기 어렵지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인도에서는 필수다.

❯ 최신 디자인이 사용된 대용량 탱크

13L와 대용량 탱크는 대담한 투톤 컬러의 그래픽과 그립용 홈이 패인 댐퍼의 두 가지 디자인으로 라인업했다. 레트로한 차체의 프레임은 커다랗게 보이지만 의외로 컴팩트하고 가볍다.

❯ 시원시원한 사운드의 싱글 엔진

350cc의 공냉 단기통 엔진으로 2022년에 출시한 클래식 350에서 사용했다. 레트로한 디자인이지만, 힘 있는 토크 덕분에 뛰어난 가속을 보여준다. 독특한 감성의 아이들링과 메가혼 머플러에서 나타나는 시원시원한 배기음은 바이크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단기통의 독특한 진동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부드럽다.

로얄 엔필드의 헌터 350은 일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존하는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로얄 엔필드가, 1950년대에 인도로 거점을 옮긴 이후로 수년 전까지 당시 성능과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바이크를 제조했지만,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로얄 엔필드는 일본 4대 바이크 브랜드를 뛰어넘어 유럽 시장의 최고를 차지했다.
헌터 350은 압도적인 성능의 바이크는 아니다. 하지만 원형 라이트가 매력적인 바이크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엔진 소리와 다루기 쉬운 페달로 가볍게 탈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다. 일본에서도 많은 마니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로얄 엔필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1901년에 제조를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이크 브랜드. 1950년대에 인도로 거점을 옮겼고, 1971년에 영국 본사가 도산했다. 현재는 상용차를 만드는 아이샤 그룹 산하로 영국에도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다.

후이나무와의 낚시 대결의 상세한 내용은 YouTube를 체크!

GO OUT FISHING에서 연재하는 영상은 YouTube를 확인해주세요. 낚시부원들의 리얼한 고군분투를 볼 수 있습니다.

GO OUT FISHING

후이나무 팀원과 바다 배스 지깅 대결하기

패션 컬처 웹 매거진 '후이나무'와 바다 배스 지깅 대결을 준비했다. 도쿄만을 무대로 고아웃 낚시부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과연 결과는?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TAKUMA UTOO **REPORT & TEXT** TOSHIAKI ENDO(EDITREAL)

너무 많이 잡아서 선상은 축제 분위기였다. 대결에 참여한 멤버 이외에 스태프도 취재를 잊은 채 바다 배스를 잡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낚싯배는 여기서!

이번 취재에 협력해준 우라야스의 오래된 선박 대여소, 요시노야. 루어부터 미끼까지, 도쿄만의 낚시는 이곳을 추천한다.

이시이 요우스케
후이나무 부편집장

판초, 파우치 모두 **다이와**, 컷앤소 **니들즈**, 팬츠 **바우와우**, 베레모 **아나토미카**, 선글라스 **레스카**, 패스 파우치 **TASF×마스터피스**, 슈즈 **킨**

이치카와 쥰페이
에디터

재킷 **더블 탭스**, 베스트 **스탠더드 캘리포니아**, 파카 **포마**, 팬츠 **세단 올 파파스**, 선글라스 **오운**, 슈즈 **킨**

무라야마 야스유키
플래그스태프 디자이너

재킷 **클라우드 베일**, 컷앤소 **더 노스페이스**, 비브 팬츠, 캡, 선글라스 모두 **플래그스태프**, 슈즈 **소렐**

VS

류야
타마호 피싱 에리어 디렉터

코치 재킷, 파카, 컷앤소, 팬츠, 캡 모두 **네이탈 디자인**, 게임베스트 **네이탈 디자인×서브록**, 선글라스 **빅피시 1983**, 레인 부츠 **바바리안 치프텐**

미우라 슈란
GMT 프레스

플리스 재킷, 플리스 오버올 모두 **파타고니아**, 컷앤소 **필멜란제**, 캡 중고, 슈즈 **브랜드스톤**

Shogo
카이멘 디렉터
모델

풀오버 재킷, 팬츠, 모자 모두 **카이멘 컷앤소**, 선글라스 **더 유니온**, 던 세이디즈 글로브, 다이와 레인 부츠 **에이글**

'후이나무'와의 낚시 대결은 모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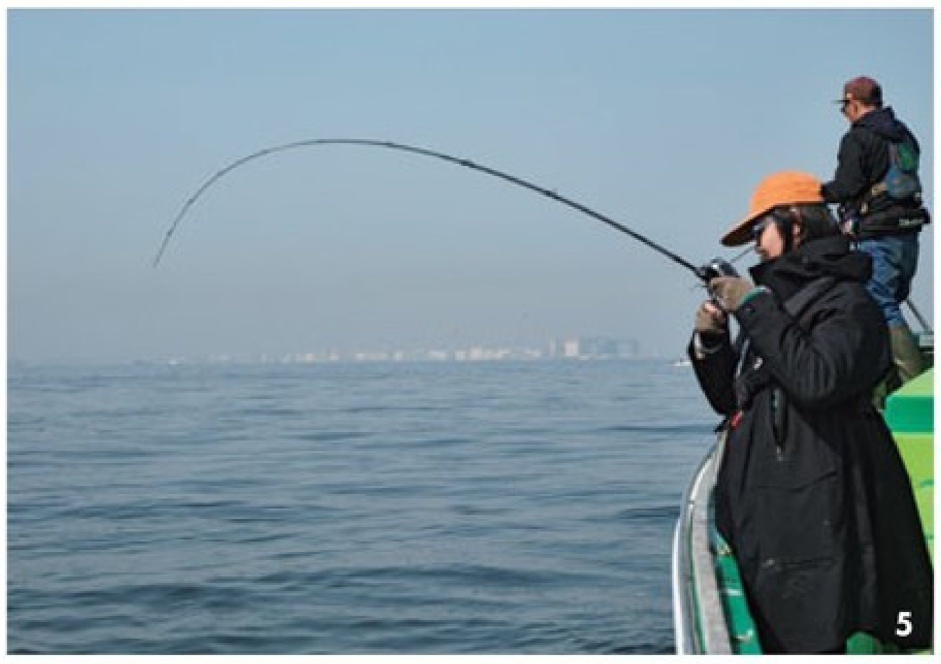
이번 낚시 대결은 바다 배스 잡기. 겨울 바다 배스는 정어리 떼를 쫓아서 깊은 바다로 모이기 때문에 금속제 지그를 떨어뜨리면, 초보자도 손쉽게 낚을 수 있다. 잘될 때는 엄청난 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쿄만 겨울의 시즌 또한 거의 끝이라 서둘러 낚시를 떠났다.
평소와 다른 컨셉으로 접근한 바다 배스 낚시는 고아웃 피싱 클럽과 후이나무 피싱 클럽의 협업으로 고가의 상품이 걸린 대결이었다. 패션, 컬처 웹 매거진 '후이나무'가 주최하는 피싱 커뮤니티의 참가자는 이시이, 이치카와, 무라야마 등 3명이다.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긴장감마저 감도는 순간이었다.
고아웃 낚시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낚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경험자는 류야 이외엔 없었다.
이번 대결엔 일본을 대표하는 피싱 브랜드 '다이와'가 지원을 해줬다. 낚싯대와 릴, 루어 등 낚시 도구부터 스태프까지 준비해줬다. 준비는 즐거웠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서 조금은 불안했다. 멤버들 역시 즐거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대결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1

2

3

4


5

6

7

9

8

1 출항 직전, 양 팀의 만남 **2** 이번에 사용한 루어는 '다이와'의 사무라이 지그R 60그램. 로드는 '러브랙스 AGS'에 루어는 '라이트 게임 IC'와 태클까지 만전의 준비를 마쳤다. **3** 고아웃 낚시부의 서포트로 함께한 다이와 필드 테스터인 월리 마코토가 지그의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4** 이번 포인트는 도쿄만 아쿠아 라인의 바람탑. 이른 아침에는 조수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조과가 별로였지만, 갑자기 새떼가 나타났다. **5** 루어를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6.7** 그 후에는 양 팀의 엄청난 조과를 올렸다. 약 150마리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풍어였다. **8** 이번 대결의 룰은 각 멤버 3명이 낚은 바다 배스의 최대 사이즈의 합계를 비교하기로 했다. 각자 낚은 고기 중 각자 자신 있는 크기의 바다 배스를 잡고 나서 줄자로 계측했다. **9** 결과는 후이나무 피싱 클럽이 61, 62, 62센티미터의 합계 185센티미터, 고아웃 피싱 클럽은 63, 62, 74센티미터의 합계 199센티미터로 고아웃 피싱 클럽의 멋진 승리였다. 그리고 상품으로 준비한 쿨러 박스는 74센티미터를 잡은 류야에게로 돌아갔다.

Lookin' Back On Trail *144
PANASONIC
BF-192

PANASONIC BF-192, 헤드랜턴의 베스트셀러 모델

EDITOR KIM HAE GIL **PHOTO & WRITER** TAKATOSHI AKUTAGAWA

1980년대까지 LED, 즉 발광 다이오드는 적색과 황록색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일본인 과학자의 연구로 1990년대에 처음으로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했다.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이 갖추게 되어 백색 LED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명 분야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LED는 아웃도어용 조명으로 가장 잘 어울리지만 2000년대 이후로 다양한 아웃도어용 조명기구의 광원은 LED로 인해 바뀌기 시작했다. LED의 장점은 소비 전류가 극히 적고, 밝기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지도 작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이유이다.

백색 LED의 등장 이전의 캠핑에서는 휘발유나 가스 랜턴을 주로 사용하였고, 트레킹을 할 때는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식 라이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필라멘트 전구는 어두운 데다가 소비 전력이 크고, 전원에 건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이 큰 D사이즈 전지를 몇 개씩 넣는 무거운 배터리 박스를 허리에 달고, 체온으로 데우면서 사용했다. 또한 전선이 접속한 광원부만 머리 위에 고정하는 조명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기, 전자 브랜드인 '파나소닉'이 과거 '내셔널'로 불리던 시절에 회중전등 등의 소형 조명 분야에서 마츠시타 전기 산업 사의 제품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내셔널'은 창업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자전거나 손전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조명 기구를 개발하여 전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목적에서 만든 이름이었고, 1920년대 이후로, 내셔널 램프는 일본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되었고, 필연적으로 아웃도어 업계에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1996년에 발매한 'BF-192' 헤드램프는 필라멘트식 소형 전구를 사용한 일반적인 제품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소형화와 경량화를 구현했기 때문에, 1996년에 굿 디자인 롱 라이프 디자인상을 받았다. 또한 아웃도어용 헤드라이트로는 이례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컴팩트한 디자인을 토대로 당시 파나소닉이 출시했던 리튬 전지를 사용했다.

리튬 전지를 발명한 것은 1985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품화한 시기는 1990년이다. 리튬 전지는 일반적인 망간 건전지와 비교하여 방전 전압이 높고, 또한 가볍고 추위에도 강한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작은 3V 리튬 전지(CR123)를 사용하여, 광원과 전원을 일체화 한 작은 크기의 헤드램프로도, 한냉지에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했다. 당시 백색 LED 헤드램프가 등장하기 직전의 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LED로 범람했지만, BF-192는 저가형 제품을 찾는 수요층을 공략하여 2000년대 후반까지 10년 이상에 걸쳐 카탈로그에 게재되는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LED 헤드램프가 주류가 된 이후로, 아웃도어 업계에 있어서 파나소닉의 이름을 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당시 일본의 전기 산업 전체가 쇠락하던 시기였고, 반도체 제조로 세계를 리드하던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밀리기 시작한 시기와도 부합된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발광 다이오드도 또한 반도체의 종류 중 하나이다. 그 기술을 확립한 것은 일본의 개발자였지만, 양산 제조하여 제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싼 가격의 일본 브랜드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 LS 등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 LED에서도 발생했다. 그 작은 일본산 헤드램프는 제조 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램프가 끊어지는 일도 없다. 그 뛰어난 신뢰성과 높은 품질은 일본 브랜드의 자부심이었지만, 시장은 그보다 저렴한 가격을 원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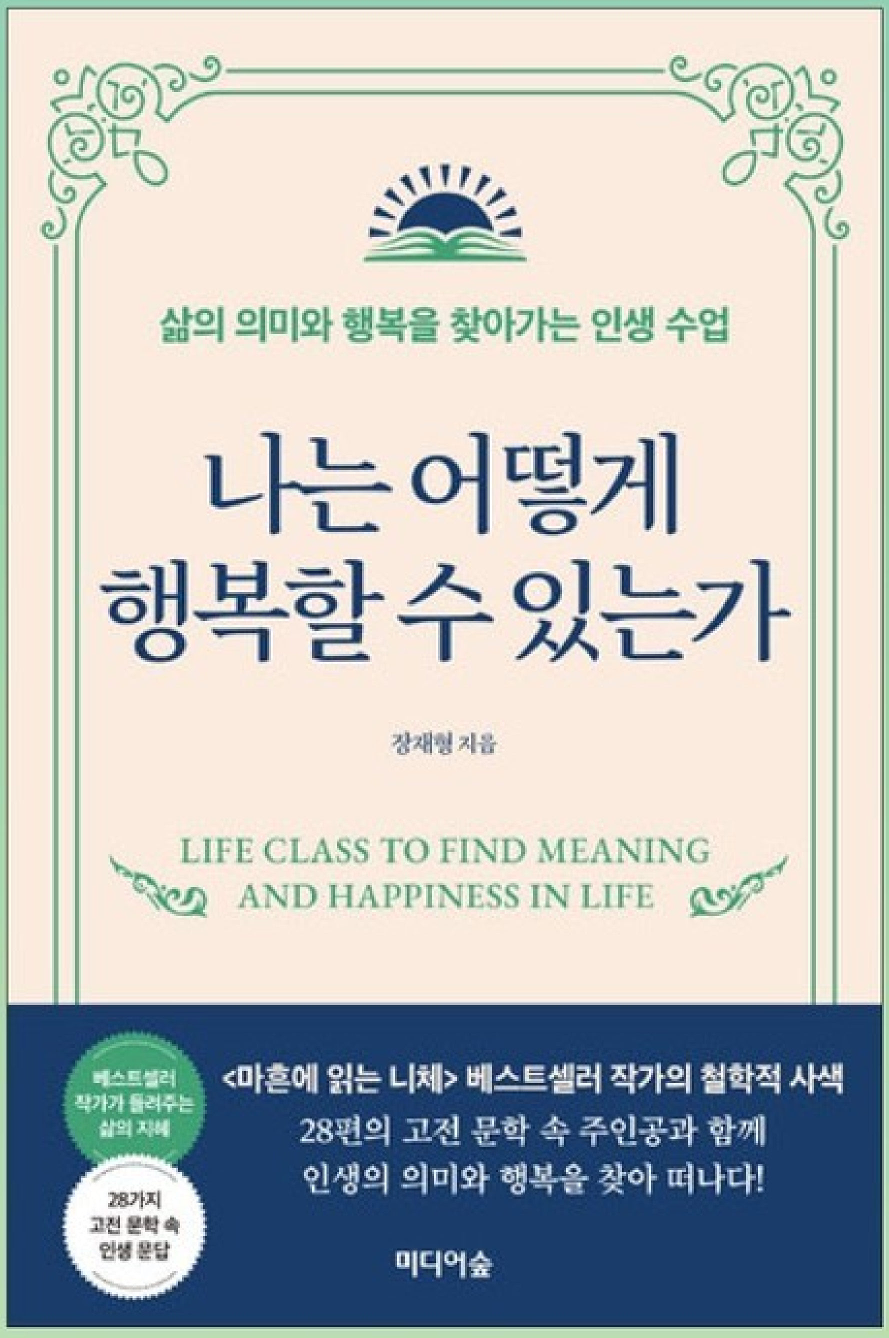
PHOTO & WRITTEN BY
아쿠타가와 다카토시
Instagram @takatoshi_akutagawa

Panasonic
anasonic

TO MAKE A HAPPY LIFE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 자격이 충분하다.

EDITOR KIM YOUNG HA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장재형 | 미디어숲

—

살면서 우리는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사회 경제 상황에서 미로에 갇힌 듯 인생의 출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 이 책의 저자인 장재형은 위의 질문에 부딪힐 때면 고전 문학을 찾았다. 저자는 살면서 고민하던 자아와 희망, 꿈과 실패, 죽음과 우정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전문학 속 주인공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곁들였다. 이 책은 감수성과 욕망, 삶과 죽음,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다룬 인문학 에세이로 독자에게 고전 작품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깊은 인문학적 지혜를 선물한다.

불영이 띄우는 마음편지

심전일운 | 담앤북스

—

심전일운 스님이 2011년부터 매일 아침,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띄우기 시작하며 올해 12년째를 맞는 마음편지가 책으로 나왔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과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고 세상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오롯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준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일'이라며 말하는 일운 스님의 책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 선시와 간결한 문체의 편지글이 어우러져 때로는 깊은 울림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저자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마음의 본래 상태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기에, 일상에서의 명상 수행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한다.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백수린 | 창비

—

이 책은 백수린 작가가 몇 년전 자리잡은 서울의 옛 동네를 배경으로 한 애틋하고도 눈부신 기록이다. 그 곳에서 만난 이웃들과 떠나 보낸 반려견,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을 겪으며 깨달은 슬픔, 인생에 대한 통찰, 여성작가의 일상 이야기를 두루 담았다. 저자의 사려깊은 성찰과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이 에세이는 각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성장 서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인생의 찬란한 비밀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생의 의지와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모두를 선사할 것이다.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방문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후지산을 바라보며 2박 3일간의 캠핑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나무와 끝이 없는 울창한 숲에 둘러 싸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캠핑장 주변을 걷고 걸었습니다. 마주 오는 이름 모를 캠퍼와 눈인사도 했고요. 변화무쌍한 산의 날씨를 경험하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숲을 걷다가 노루를 발견하고 숨을 죽이며 기다려 주기도 했고요. 상쾌한 밤공기를 맡으며 떨어지는 별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고요. 후모톳바라의 높다란 하늘을 아름다운 배경 삼아 우거진 숲을 걸으며 나와 함께 했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EDITOR
KIM HAE GIL

Walk Radio

WALK. 33
후모톳바라 캠핑장

안녕하세요.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에디터 김해길입니다. 이 칼럼은 평소 제가 걸으면서 자주 듣는 곡을 소개하고, 마음속에 저장해놓은 기억 그리고 삶의 흔적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모쪼록 제가 추천하는 음악과 함께 소중한 '걷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Summer Cologne
KELSEY KUAN
—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시간을 더하고 싶을 때,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책을 읽거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거나, 이른 산책을 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사실 삶의 재미를 알기 위해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수합니다. 경험은 어떤 방향으로든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넘치기에 바깥 활동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행위도 장소만 바뀌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과의 경험은 즐거운 재미를 줄 수도 있잖아요. 무료한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달콤한 향'을 뿌려부세요. 그 여운은 오래 갈 거예요.

Feel Your Blue Sky
BOTHNIA
—

요새 하늘이 너무 좋죠? 추운 겨울을 지나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 봄, 그중에서 5월은 '색다른 세상'이 펼쳐져 제가 유난히도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소리도, 돌 틈 사이에 핀 들풀도, 새파란 하늘 안에 수놓은 구름도, 모든 것을 눈에 담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 사진첩을 들춰보면 유난히 이 시기에는 자연을 담은 사진이 많습니다. 은연중에 우연히 행운을 만난 것처럼 사진을 많이 찍었나 봐요. 기억에 없는 사진도 발견하니 이 또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유난히도 손꼽아 기다리는 계절이 있나요? 마음을 활짝 펼치듯, 온몸으로 이 계절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Out Of Control
GLORIA TELLS
—

가끔은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이 오래도록 지속될 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우울한 감정이 꽤 오래갈 땐 피하기보다 더 맞닥뜨려 그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결국 회피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부딪히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은살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결과적으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같습니다. 나의 감정을 자세히 읽고, 들여다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결국 타인에 의해 시작된 것들은 '나'로 인해 결정되니까요. 순간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는 상황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 또한 과정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과 멀리해 보세요. 주변을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보세요.

Better Place
SPRING GANG
—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한국어로 번역한 영화 제목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령 영화 속에서 어떻게 여성을 잘 묘사할 수 있냐는 출판사 직원의 말에 "남성에게서 이성과 책임감을 빼면 돼"라고 대답한 멜빈의 대사는 인간관계에 대한 촌철살인과 같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지만 아직도 그 말을 가끔 되뇌곤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찾아 갈구하는 우리에게 있어 인간의 욕구는 어쩌면 당연한 본능이지만,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경험이 전부일까요? 관계에 대한 성찰일까요? 중요한 건 관계는 아직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Sunrise
FAIME
—

좋은 기억은 오래간다고 했었나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정동진의 새해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해변에 서서 온몸을 덜덜 떨어가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죠. 그때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더 좋았던 나이였으니까요. 현실 기억의 단면은 꽤 많이 잊혔지만, 아직도 지평선 끝에서 활활 타는 듯한 모습은 기억에 선명합니다. 가사에서만 보던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실제로 처음 느껴봤었으니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캠핑을 가게 되면 자기 전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 일출 시각도 확인하고, 잠이 듭니다. 텐트 안에서 경험하는 일출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값진 기억으로 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FAMILY MATTERS.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구성원이 각각 골라보기 좋은 영화들을 소개한다.

EDITOR KIM YOUNG HA **COURTESY OF** NETFLIX

푸바

2023 | 넷플릭스 제공

—

은퇴를 앞두고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CIA 요원이 부득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러 다시 현장에 뛰어들며 벌어진 에피소드. 세계를 무대로 한 스파이 활동, 액션, 유머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가족 문제를 다룬 시리즈다. 사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전작들을 통해 스릴 넘치는 액션과 특유의 유머를 조화롭게 보여주며 사랑받아왔다. '푸바'에서는 단순한 액션 히어로서가 아닌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가장의 무게를 CIA요원 으로서 동시에 짊어진 모습으로 잘 그려냈다. 그렇기에 극중 '이중 생활'을 하는 루크 브루너의 역할도 슈왈츠제네거가 맡아 연기하는 것이 '찰떡'이었다는 후문이다. 루크 브루너의 딸 엠마 브루너 역을 맡은 모니카 바르바로의 연기 또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외교관

2023 | 넷플릭스 제공

—

'외교관'은 1시간 분량의 8부작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케이트 와일러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물이다. 국제적인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한 외교관이 순탄했던 결혼 생활과 정치적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 신임 주영 미국 대사직을 맡게 된 케리 러셀은 유독 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만, 전통 우방국에서의 활약은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 영화는 국가과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오랜 관계의 초월성과 고통을 그린 위험천만한 현대 정치 드라마다. 기존의 유사한 영화들은 주로 남성 배우가 주연을 맡아 그로 하여금 전반적인 스토리를 끌어가게 했다면, '외교관'은 여성 배우의 리드를 통해 조금 더 가족의 구성원으로 포커스를 받게끔 만들었다.

엑스오, 키티

2023 | 넷플릭스 제공

—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인 키티가 한국에 놀러 갔다가 알게 된 남학생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사랑을 맺어주는 게 특기인 키티 송 코비는 사랑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 소위 '롱디'중인 남자 친구와 재회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 후 연애가 자신의 일이 될 때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하이틴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다소 유치한 설정들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볍게 보기좋고 10대 자녀에게 부담없이 권할 수 있는 영화다. 한국 배우 김윤진, 김지아, 최민영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MAY

<고아웃>이 엄선한 5월의 이벤트 & 전시 소식

EDITOR KIM HAE GIL

2023.05.04~ 2023.06.03

2023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하동군 화개면과 악양면 일원에서 펼쳐진다!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상남도 하동은 약 천 년 전에 차를 재배한 기록이 남아 있는 한국 차 시배지(始培地)이다. 섬진강과 가까워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일교차가 커서 차나무 재배에 좋은 환경을 갖춘 하동의 녹차는 예부터 왕에게 진상 되던 '왕의 녹차'라 불렸다. 왕의 녹차, 그 맛과 향이 궁금하다면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참가해보자! 이번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서는 5.4개막식, 5.5 효 콘서트, 다양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따뜻한 봄철 하동야생차를 만끽해보자!

문의 wildteafestival.kr/

2023.05.05~ 2023.05.07

2023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과 부여의 봄을 만끽 할 수 있는 축제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체류형 축제이다.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일원과 어우러지는 경관조성과 휴게 쉼터 조성으로 힐링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buyeo.go.kr/

2023.05.18~ 2023.05.21

2023 밀양 아리랑대축제

아리랑의 선율, 희망의 울림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밀양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1957년 밀양문화제로 시작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향토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밀양아리랑 경연대회와 아리랑 체험, 각종 전통문화체험 등이 진행된다. 밀양아리랑대축제의 하이라이트, 밀양강 오딧세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밀양의 역사와 밀양아리랑을 결합해 창작한 판타지 뮤지컬로,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음악,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문의 www.arirang.or.kr/

2022.05.13~ 2023.05.13

2023 THE COLOR RUN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글로벌 컬러 축제, 세계 최초의 페인트 레이스 이벤트인 더 컬러런은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세계적으로 5백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FUN RUN이다. 참가자들은 흰색 레이스 티셔츠를 입고 컬러존마다 다양한 색의 컬러 파우더를 맞으며 달리기를 이어가는 컬러 페스티벌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자.

문의 thecolorrunkr.com

2023.05.25~ 2023.05.28

2023 남원 춘향제

남원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추어 춘향제를 열고 있다. 1931년에 시작된 춘향제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효시로 꼽히고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춘향제를 통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춘향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춘향제의 일환으로 함께 열리는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는 우리 눈앞에서 오늘날의 춘향이 태어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며, 대동길놀이라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수 있다.

문의 chunhyang.org/

2023.05.26~ 2023.05.28

2023 계촌 클래식 축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는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 마을로써 우수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계촌초·중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계촌초등학교는 2009년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전교생이 참여하는 현악중심의 계촌별빛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계촌중학교도 2013년부터 클래식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계촌 클래식 마을로 선정된 후, 마을주민들이 모여 '계촌 클래식 축제위원회'를 조직했고, 계촌클래식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중심의 마을 만들기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지역마을-예술장르 간 연계로 지역문화 진흥 및 일상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계촌 클래식 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artvillage.or.kr/

*본 행사는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UT OF OUTDOOR

아웃도어 안팎을 넘나드는 브랜드의 최신 소식

EDITOR YOO SUNG

BANG & OLUFSEN

뱅앤올룹슨(Bang & Olufsen)이 신제품 하이엔드 포터블 스피커 베오사운드 A5를 전세계 동시 출시했다.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디자인 듀오 '감프라테시(GamFratesi)'와의 협업한 베오사운드 A5는 포터블 오디오와 홈 오디오가 교차하는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뱅앤올룹슨만의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와 정교한 장인정신, 제품의 오랜 수명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다. 4개의 디지털 증폭기를 갖춘 4웨이 드라이버 셋업이 함께 어우러져 280와트 출력을 제공, 역동적인 360도 사운드를 가져 현재 뱅앤올룹슨의 가장 강력한 포터블 스피커로 풍성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전달한다. 또한 1 x 5.25" 우퍼, 2 x 2" 미드레인지, 1 x ¾ 트위터로 이뤄진 베오사운드 A5는 디자인과 사운드 모두에서 탁월함을 보여준다. 베오사운드 A5는 내추럴 알루미늄(노르딕 위브), 블랙 앤트러사이트(다크 오크)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각각의 가격은 149만원, 169만원이다.
문의 bang-olufsen.com

GARMIN

가민이 혁신적인 가민 러닝 사이언스에 기반한 러닝 커뮤니티 '가민 런 클럽(GARMIN RUN CLUB, 이하 GRC)' 2기를 진행한다. GRC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해 가민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러닝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러너 전용 커뮤니티로, 가민 유저의 로열티 증대 및 올바른 러닝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GRC 2기는 10K 개인 최고 기록 달성을 목표로 하는 8주간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GRC의 헤드 코치로는 경기도청 소속의 김영진 코치와 나주시청 소속의 임경희 코치가 초빙되어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GRC 2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가민코리아 인스타그램과 가민 스포츠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garmin.co.kr

JULBO

최초의 아시안 핏 선글라스를 선보인 브랜드 줄보(JULBO)가 그간의 노하우와 진보된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볼드, 스타일리시, 기능적 특징을 모두 지닌 덴시티를 출시했다. 덴시티는 큰 원통형 렌즈가 미니멀한 프레임과 조절 가능한 커스텀핏 안경다리와 결합, 정밀한 핏과 공기처럼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머리카락이나 헬멧 스트랩에 방해 받지 않는 코받침(소프트 그립 인서트)과 그립 테크 안경다리를 통해 더욱 향상된 고정력을 제공한다. 넓은 렌즈는 무제한의 시야를 제공하며 전면부 통풍은 렌즈 형태로 인한 전면부 공기 흐름을 촉진하여 김서림을 제거한다.

문의 annapurna.co.kr

VANS

반스가 환경 개선 변화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GROWTH GARDEN COLLECTION'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자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래픽과 지구 보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지가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출시 제품은 어센틱을 포함한 스니커즈는 물론, 티셔츠와 오버롤, 스웨트 등 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단순히 디자인적 접근 뿐 아니라 지속가능 소재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친환경 생산 방식을 실천하였다.

문의 vans.co.kr

FETCH

스트리트 웨어, 댄스, 아웃도어 등 다방면의 영역으로 재능있는 커뮤니티와 함께 의류 컬렉션을 선보이며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 페치(FETCH)가 바이크 콘셉트의 룩북을 공개하며 새로운 딜리버리를 지속적으로 출시중이다. 23SS 시즌은 페치가 조금 더 바이크 컬처에 집중하고자 하며, 이러한 브랜드의 계획과 의도를 적극적으로 제품군으로 반영한다. 데님 재킷과 팬츠를 포함해 셔츠 및 액세서리 등을 통해 '페치 마니아'를 양산시킨 가운데, 이번 시즌 선보이는 바이크 콘셉트 컬렉션은 저지류와 숏츠, 바이크 글러브 등 이다. 바이크 유저가 아니더라도 일상룩에 부담없이 적용하기 좋은 페치의 23SS 시즌에 관심이 간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문의 fetch-sunday.com

K2

K2의 대표 하이킹화 '플라이하이크(FLYHIKE)'가 하이킹화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 100만 족을 돌파했다. K2의 플라이하이크 시리즈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첫 출시 이후 2022년 33만7천 족의 압도적인 판매고로 마감했던 바 있다. 플라이하이크는 등산화와 러닝화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킹화로 가벼운 착화감과 우수한 접지력을 갖고있어 트레킹이나 산행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착용이 가능한 점이 인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3년간 플라이하이크의 30대 구매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코로나 기간 젊은 타깃이 등산 인구로 유입되며 젊은 층의 구매가 급증하였다. 또 출시 초기부터 그래핀 폼을 미드솔에 적용하는 등 K2의 기술력을 통해 최상의 쿠셔닝과 안정성을 선보였고, 기존 고객층 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하이킹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

문의 k-village.co.kr/k2

PATAGONIA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해양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트레일 쇼츠(Trail Shorts)'를 출시한다. 파타고니아는 트레일 러닝의 가치를 오랫동안 전파 중이며, 이를 위해 매년 소재와 핏을 개선시킨 트레일 러닝 제품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번 시즌에는 '오션사이클(OceanCycle)' 인증을 받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했고, 이는 바다에서 50km 이내 위치한, 적절한 도시 재활용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생산된다. 파타고니아는 이번 트레일 쇼츠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위험에 처한 인도네시아 북부 해안섬의 지역사회에서 공급받은 오션플라스틱 방지(Prevented Ocean Plastic™)용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새롭게 적용했다. 트레일 쇼츠 컬렉션은 단거리 및 장거리, 일상 러닝까지 모든 활동에서 입기 좋은 디자인과 기능성 등을 고루 갖춰 총 3가지 스타일로 출시된다.

문의 patagonia.co.kr

LE CREUSET

1925년 설립된 프랑스 명품 키친 앤 다이닝 브랜드 르크루제가 남프랑스 해안가의 여유로움에서 영감을 받은 '리비에라 컬렉션(Riviera Collection)'을 국내에 론칭한다. 리비에라 컬렉션은 '아주르', '캐리비안 블루', '머랭', '넥타르'의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되었으며 남프랑스 리비에라 해안의 여유로운 무드를 선사한다. 르크루제의 대표 아이템인 시그니처 원형냄비와 스킬렛, 다채로운 스톤웨어로 구성돼 남유럽의 햇살 아래에서 휴가를 즐기는 듯한 감성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르크루제 리비에라 컬렉션의 시그니처 원형냄비, 스킬렛은 전국 백화점 르크루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미니볼 4P세트와 미니라메킨 4P세트, 카푸치노머그200 4P세트, U머그380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다. 스푼4P세트는 전국 백화점 르크루제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문의 e-lecreuset.co.kr

ROYAL SALUTE

로얄살루트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케이트 맥과이어(Kate MccGwire)'와 협업해 최상위 라인업 '로얄살루트 아트 에디션 바이 케이트 맥과이어'를 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 점만 선보이는 최고급 한정판이다.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가 무한한 창의성과 혁신의 영역인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경의와 헌사를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아트 프로젝트 '아트 오브 원더(Art of Wonder)'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시간에 대한 존중, 희소성, 현대적인 블렌딩, 예술적인 창의력 등 로얄살루트의 고연산 라인업이 가진 독보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로얄살루트 아트 에디션 바이 케이트 맥과이어는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트부산'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pernod-ricard-korea.com

JAGUAR LANDR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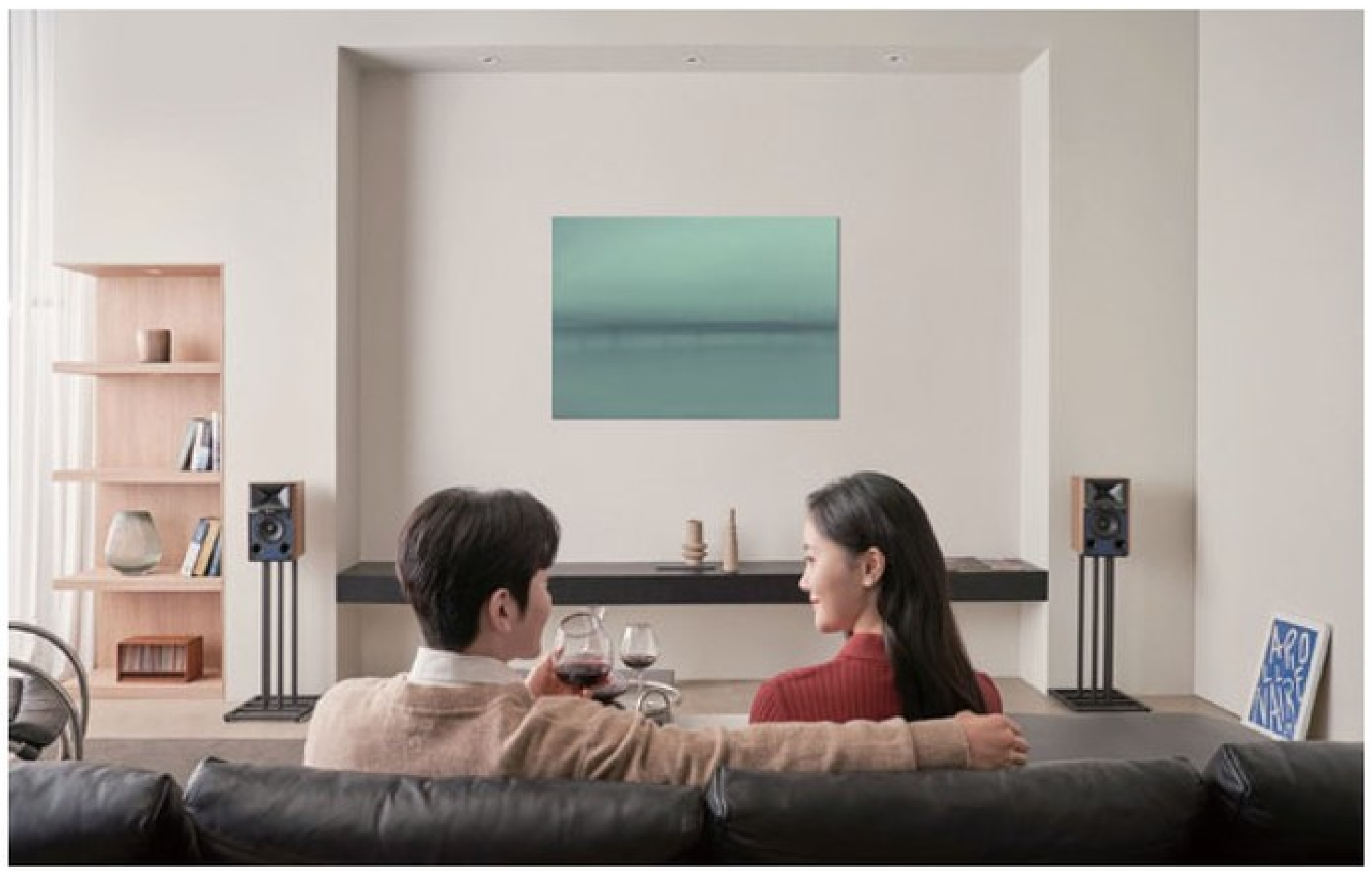
재규어 랜드로버는 독일 뮌헨,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마드리드에 새로운 테크 허브를 개설하고 약 100개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일자리를 창출해 글로벌 디지털 역량을 확장하는 중이다. 기존에 개설한 글로벌 테크 허브 6곳에 이어 추가 신설된 세 곳은, 재규어 랜드로버의 차세대 모던 럭셔리 차량에 탑재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3개의 새로운 테크 허브를 추가 개설한 것은 인공지능(AI) 및 가속 컴퓨팅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NVIDIA)와 재규어 랜드로버의 다년간의 파트너십의 진전을 의미한다. 재규어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및 고객 경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jaguarkorea.co.kr

GREGORY

그레고리가 기존의 'Miwok & Maya'에서 업데이트된 Biosync 컬렉션을 출시했다. 데일리 하이킹에 탁월하게 설계된 라인으로, 신축성과 유연함이 있는 어깨끈과 힙벨트가 트레일을 따라 내려갈 때 거의 착용하지 않은 듯한 편안함을 제공하며, 커다란 힙벨트 포켓은 휴대폰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공기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등을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도톰한 폼 형태의 백패널, 역동적인 움직임과 통기성을 위하여 패딩 처리된 천공 형태의 어깨 하네스, 전면 메시 포켓으로 빠른 접근과 탁월한 용품 및 장비 보관 기능이다. 남,녀 동일한 사이즈의 15L(20만9000원)부터 25L(25만9000원) 사양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gregorypacks.co.kr



J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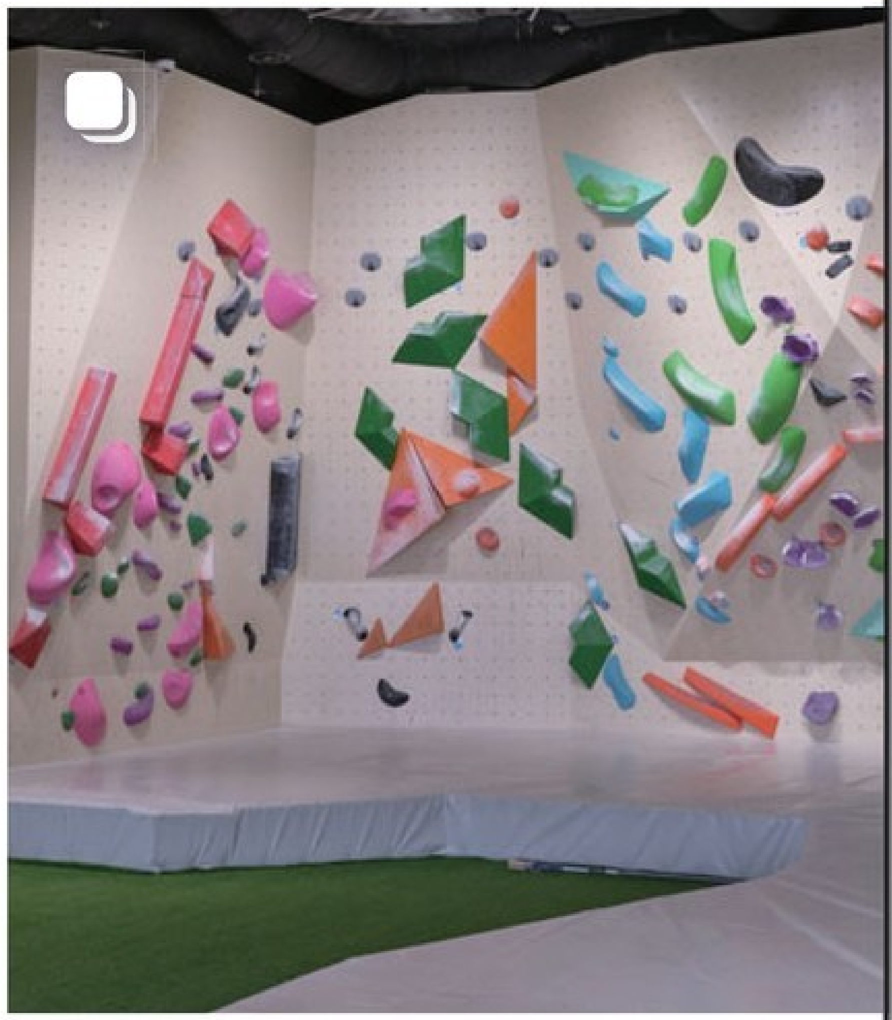
JBL이 스튜디오 모니터 시리즈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 JBL 4305P 올인원 뮤직 시스템을 선보인다. 전 세계 하이파이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사랑받아 온 JBL의 스튜디오 모니터 43 시리즈의 최신 모델 4305P는 스튜디오 모니터 시리즈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로, 앰프가 내장되어 패시브 스피커처럼 추가 오디오 제품을 구성하지 않아도 4305P만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하이파이 오디오 경험이 가능한 올인원 뮤직 시스템이다. 콤팩트한 사이즈와 JBL 고유의 클래식한 감성이 돋보이는 레트로 디자인, 특허받은 음향 기술이 선사하는 고품질 사운드와 뛰어난 연결 편의성 및 활용성으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하이파이 오디오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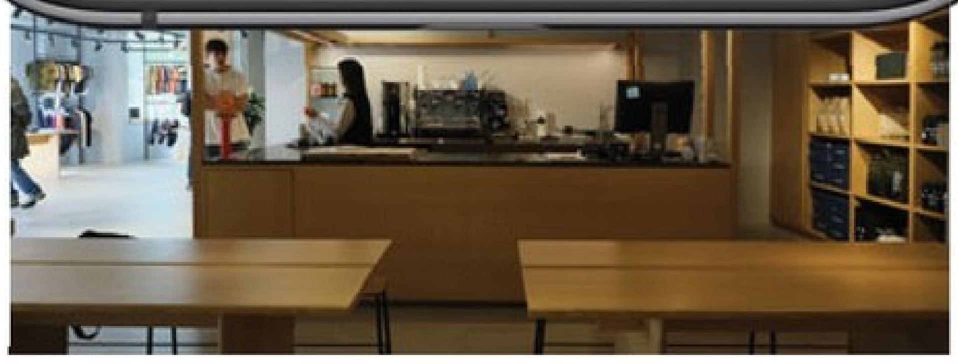
문의 harman.com

아웃도어 스타일 패션 / 아이템 / 트래블 / 기어

GO OUT KOREA

<고아웃> 코리아는 매거진 이외에도 WEB & SNS 채널로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제작되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신 이슈와 콘텐츠를 꾸준히 소개합니다.
지면에 구현하기 힘든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등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www.gooutkorea.com

www.facebook.com/gooutkorea

@gooutkorea

'고아웃매거진' 또는 '고아웃코리아' 검색

₩120,000

<고아웃> 코리아 1년(12권) 정기 구독

아웃도어 스타일, 아이템, 기어 등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이 전하는
최신 아웃도어 소식을 만나보세요.

온라인 구매 또는 서점 방문의 불편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을 받아보세요!

우리은행 1005-001-290615
예금주 ㈜미디어 블링

GO OUT KOREA
정기 구독 안내

❶ '고아웃 스토어'에 접속 www.gooutkorea.com
❷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GO OUT MAGAZINE' 클릭
❸ 상품(정기 구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결제

정기 구독 문의 메일
nurino8@mediabling.co.kr

BRAND INFO

ㄱ

가민	02-2141-5855
고프로	070-4901-5124
그라미치	1600-8143
그레고리	02-2007-6515
까웨	1644-6862

ㄴ

네파	1666-2096
노스페이스	1661-3512
뉴발란스 아웃도어	080-999-0456

ㄷ

담앤북스	02-765-1251
디레디레	010-5514-0248
디미토	1668-1385
디씨슈즈	070-4369-5300
디오디	070-8028-3525
동서식품	1588-2233

ㄹ

라루프	02-979-7960
라스포르티바	02-903-6171
레이드백기어	010-9966-9954
레인스	02-745-7401
로어즈	02-3144-0432
룰루레몬	070-4769-7965
르크루제	070-4432-4133
리로드	031-944-9881
로버	031-528-2004

ㅁ

마꽁이네와인샵	0507-1424-2070
맥스부탄	1566-2828
명랑핫도그	1600-0399
몽벨	031-714-7027
미디어숲	02-323-7234
밀레	02-1644-7710
모이프	010-2000-8640

ㅂ

반스	1522-1882
버거보이	0507-1408-1347
블랙다이아몬드	1644-4807
블랙야크	1800-6166
빌라봉	070-5097-2239
뱅앤올룹슨 코리아	02-518-1380

ㅅ

살로몬	1833-4203
쉘코리아	1811-8600
신명글로빅스	02-558-1818
시티핸즈컴퍼니	02-979-7960
시푸드프롬노르웨이	47-77-60-33-33

ㅇ

안나푸르나	070-8859-2516
에픽제니	010-2361-9272
오스트리야	070-4117-2222
오십케이	0507-1328-5683
오프로드	080-800-0230
와디즈	1661-9056
와플스테이	1533-7901
우드앤번	033-734-8456
웰터 익스페리먼트	070-8690-8027
이탈로모토	02-504-1198
인수스	080-541-5000
일리카페	1666-1282
이세	02-394-2077
오스트리야	070-4117-2222
에스피오나지	02-544-1793
오들로	02-553-7088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070-4581-8943
아디다스코리아	1588-8241

ㅈ

재규어랜드로버	080-898-9900
제로그램	1644-7805
젠틀우프	070-4099-5790
존쿡델리미트	1588-6071
지그	02-733-8848

ㅋ

카부	070-4944-6816
칼렉	070-4047-5883
캠프아이웨어	02-979-7960
케이투	1533-1631
코오롱스포츠	1588-7667
카페뮤제오	1533-0918

ㅌ

테	070-5100-1711
테렉스	1588-8241
트리피	02-979-7960

ㅍ

파노말스튜디오서울	0507-1484-9065
파타고니아 코리아	1544-1876
페치	02-322-7273
폴햄	1600-3424
피엘라벤	1566-8911
피커스신촌	02-526-8989
페르노리카 코리아	02-3466-5700

ㅎ

하만코리아	02-3488-9802
하이네켄	02-558-8553
헨리코튼	1588-7667

B

BMW KOREA	080-700-8000

E

EE	02-468-1001

R

RTTC	070-4101-4980

SIMPLY
BOLD
DENSITY

볼드함, 스타일리쉬함,
기능성 특징을 모두 지닌 **줄보 덴시티**

(주)안나푸르나 | www.annapurna.co.kr | **제품문의** 1544 - 1576 | 인터넷에서 **최고의 전문 등산장비 안나푸르나**를 검색해보세요

Corona
Extra
Corona
Extra
Hi:Hæk®
www.cityhands.com